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평가에 대한 조사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 ▶ 연구 기관 :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책임연구원 : 윤진주(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 공동연구원 : 서영미(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 공동연구원 : 고은혜(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군산시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조사는 군산시로 부터 용역 발주된 연구로써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시 지역사회 아동친화도」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및 아동권리 보호·증진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조사는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유니세프에서 개발한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를 군산시 아동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뒤,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별로 비례 유층 표집하여 각 학교별로 25%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2학년(지학년 대표) 633부, 5학년(고학년 대표) 689부, 중학교 2학년(중학교 대표) 864부, 총 2,186부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놀이 환경에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시설 개선과 학교수업 이외의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웹사이트 개발과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어린이 의회 등 아동의 권리가 우선 고려되는 전달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사생활 보호 등에 관련된 조례 제정,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안전예방교육을 위해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한 매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아동친화적이고 위생적인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대상별 맞춤 교육과 지역사회 아동·소년 정책 모니터링(책무성, 영향평가, 정책 효율성 점검), 아동 관련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홍보 및 활성화, 아동정책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다.

주제어 :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1. 연구목적

○ 광의의 목적

본 조사는 「군산시 지역사회 아동친화도」를 알아보기 위해 추진된 연구로,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음.

○ 협의의 목적

-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아동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 및 아동권리 보호·증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동들이 살고 있는 가정, 학교,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가를 아동의 경험과 눈높이, 아동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기반 한 설문 조사 후, 가정, 학교, 동네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 삶의 질 향상이 보장되는 아동 친화도시 구축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군산시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자가평가지 설문조사 및 분석
- 군산시 어린이 대상 면담 조사
- 아동친화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3. 연구결과

○ 우리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결과

5점 만점 중, 초등학교 2학년(4.32점), 5학년(4.24점), 중학교 2학년(3.95점) 순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 ‘본인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높게 응답했고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좋고, 나쁜 정도(친화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높게 응답했으며, 중학교 2학년은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보다 만족도에서 낮은 수치가 나타났음.

○ 놀이와 여가에 대한 조사결과

3점 만점 중, 초등학교 2학년(2.23점), 5학년(2.19점), 중학교 2학년(1.99점) 순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운동 및 놀이를 위한 공간의 충분도’, ‘우리 동네 놀이터의 장애를 가진 친구들 이용도’, ‘동네의 숲과 나무 등 자연환경 정도’,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단체 활동 참여정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높게 응답하였음. 이와 달리 중학교 2학년에서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단체 활동 참여정도’에서 ‘전혀 아니다’의 낮은 의견을 보임.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 참여 및 행사 구경 정도’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참여와 시민권에 대한 조사결과

3점 만점 중, 초등학교 5학년(1.68점), 2학년(1.63점), 중학교 2학년(1.58점) 순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기여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계획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남. ‘매체(TV, 인터넷, 신문)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들은 정도’는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낮으나, ‘인터넷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남.

○ 안전과 보호에 대한 조사결과

3점 만점 중, 초등학교 2학년(2.37점), 5학년(2.34점), 중학교 2학년(2.16점) 순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느끼는 안전정도’에서 약간의 차이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아는 정도’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높게 나타났음. ‘동네를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느끼는 안전정도’, ‘위험을 느낄 때 그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아는 정도’,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정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건강과 위생 및 나의 건강 결과에 대한 조사결과

3점 만점 중, 초등학교 5학년(2.12점), 2학년(2.11점), 중학교 2학년(2.09점) 순으로 근소한 차이이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플 때 진료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 여부’에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에서 동일하게 높게 응답했으며,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중화장실의 여부’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높게 응답함. ‘쓰레기 더미와 더러운 오염수의 동네 방치 여부’, ‘동네의 공기가 쾌적하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는 정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높게 응답 함.

○ 교육에 대한 조사결과

3점 만점 중, 초등학교 2학년(2.49점), 5학년(2.47점), 중학교 2학년(2.30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주요내용 대부분인 ‘학교 취학률’, ‘학교에서 남·여 평등한 대우 정도’,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정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 정도’, ‘학교 화장실의 안전하고 깨끗한 정도’, ‘학교에 나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의 여부’, ‘학교에서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받는 정도’,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정도’, ‘학교 또는 동네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여부’, ‘학교에서 차별하지 않는 정도’,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 할 수 있는 정도’, ‘장애 아동청소년의 학교 취학률’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높게 나타남. ‘필요할 때 선생님의 충분한 관심 정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모두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고,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의 충분한 사용정도’, ‘학교에서 배우는 건강과 위생에 대한 교육정도’, ‘학교에서 배우는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정도’,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학교의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의 여부’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높게 나타남. 중학교 2학년에서 높게 나타난 영역은 없었으며, 반대로 ‘학교에서 차별하지 않는 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 초등학교에서 조사하지 않는 별도의 영역인 ‘학교와 동네에 청소년의 장래 직업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여부’에서는 2.16점으로 평균보다 낮았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서도 2.16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음.

○ 나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결과

3점 만점 중, 초등학교 5학년(2.57점), 2학년(2.54점), 중학교 2학년(2.53점) 순으로 근소한 차이이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집에서의 깨끗한 물 사용 정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모두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집에서의 편안함’, ‘다른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정도’,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음’,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음’,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음’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이 높게 나타남.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음’, ‘학교 친구들이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따돌리지 않는 정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높게 나타남.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 사용의 충분성’과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음’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서 동일 점수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 이용 정도’,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음’에서 중학교 2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의 평균 및 항목별 점수에서 거의 근사치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중학생만 해당하는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깨끗함’, ‘위험한 야목로부터 안전정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고 ‘우리가 법을 어겨 경찰서 등에 잡혀가도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함’은 가장 낮으며,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성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을 수 있음’은 평균보다 약간 낮았음.

4. 정책제언

- 지역사회 놀이 환경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시설 개선 필요

-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필요
-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과 참여권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구성: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의 과정에 용이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제안이 반영되는 공식적인 참여기구 조직
-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아동권리에 대한 조례 제정
- 지역사회 내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성화
- 어린이 의회 등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의결기구 조직
-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담 기구 마련
- 아동 안전교육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정기적인 안전예방교육을 위해 아동안전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 요청
- 인터넷 역기능 예방·피해 치료 및 건전한 매체 환경 조성
- 정신건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아동 친화적이고 위생적인 환경으로서의 관리 필요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대상별 맞춤 교육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책 모니터링(책무성, 영향평가, 정책 효율성 점검)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홍보 및 활성화
- 아동정책 실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목 차

- I. 서론 3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B. 용어의 정의 4
 - C. 연구의 내용 4
 - D. 연구의 방법 5
 - E. 연구의 기대효과 5
- II. 이론적 배경 9
 - A.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9
 - 1. 아동친화도시의 방향 9
 - 2. 아동친화도시의 정의 및 내용 10
 - 3.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권리 12
 - 4. 아동친화도시의 원칙 12
 - 5. 아동친화도시의 환경 15
 - B. 아동친화도시의 사례 17
 - 1. 성북구 17
 - 2. 독일 18
 - 3. 스웨덴 19
 - C.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평가내용 20
- III. 조사방법 25
 - A. 설문조사 25
 - 1. 조사대상 26
 - 2. 조사도구 29
 - 3. 연구절차 31
 - 4. 자료분석 32
 - B. 면담조사 32
 - 1. 면담대상 32
 - 2. 면담내용 32
 - 3. 면담방법 33

- IV. 조사 결과 및 해석 36
 - A. 설문조사 결과 36
 - 1. 전반적인 지역사회 만족도 39
 - 2. 놀이와 여가 50
 - 3. 참여와 시민권 66
 - 4. 안전과 보호 77
 - 5. 건강과 위생 및 나의 건강 90
 - 6. 교육 101
 - 7. 나의 사생활 145
 - B. 면담조사 결과 177
 - 1. 놀이와 여가 177
 - 2. 참여와 시민권 178
 - 3. 안전과 보호 179
 - 4. 건강과 위생 및 나의 건강 180
 - 5. 교육 180
 - 6. 나의 사생활 182
- V. 결론 및 제언 185
 - A. 전반적인 지역사회 만족도 결과 186
 - B. 평가항목에 따른 만족도 결과 187
 - 1. 놀이와 여가 187
 - 2. 참여와 시민권 191
 - 3. 안전과 보호 195
 - 4. 건강과 위생 및 나의 건강 205
 - 5. 교육 207
 - 6. 나의 사생활 213
- 참고문헌 222
- 부 록 227
 -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어린이용) 227
 -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청소년용) 235
 - 3.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초등학생용) 244
 - 4.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중학생용) 252

제 I 장

서 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B. 용어의 정의
- C. 연구의 내용
- D. 연구의 방법
- E. 연구의 기대효과

제 I 장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 친화적 환경의 기본 이념은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고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¹⁾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300개국 1,300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성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군산시에서는 민선 6기 최우선 과제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군산”을 공표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군산시는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면서 호남권 1호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동권리 보호·증진에 필요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하여 군산시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유니세프에서 개발한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평가 항목을 군산시의 실정에 맞춰 적절히 수정·보완한 뒤 군산시 어린이들에게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나의 사생활들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아동이 권리를 보호받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동들이 살고 있는 가정, 학교,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가를 아동의 경험과 눈높이, 아동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에 기반 하여 설문평가 후 아동들의 가정, 학교, 동네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김젤나(2014).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논문집, 38(1), 57-66.

B. 용어의 정의

1. 아동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범위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중 각 급간의 중간 학년에 속하는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학생, 그리고 중학교(1~3학년) 2학년 학생을 대표 학년의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2. 아동친화도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어린이 행복도시란,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아동친화도시를 의미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준수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크고 작은 단위의 지역 거버넌스”라고 정의한다.²⁾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의 권리를 지역의 공공 정책,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적 대책, 또 지역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의 주체는 아동이어야 하며, 아동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이다³⁾.

C.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에 대한 자가 평가를 사용하여 군산시의 현 실태를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군산시 어린이 행복 도시 조성의 주춧돌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군산시 아동친화도 자가평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 둘째, 군산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친화도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다.
- 셋째, 아동친화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을 제안한다.

2) UNICEF(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15). <http://www.unicef.or.kr>에서 인출

D.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참고문헌을 수집·분석 한 후,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각종 도서와 기타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2. 설문조사

군산시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니세프에서 개발한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초등학교 59개소 중 33개소가, 중학교는 19개소 중 12개소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학생의 25%인 2,186명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학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고 저학년을 대표할 수 있는 2학년과 고학년을 대표할 수 있는 5학년, 중학교는 2학년을 선정하였다.

3. 면담조사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추출하기 위하여 중학교 2학년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구조화된 방법과 비구조화된 방법이 동시에 병행되었으며, 본 연구진과 중학생들은 자유 토의 형식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면담지의 내용은 유니세프에서 개발하여 공식화한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의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면담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자유 질문을 하였다.

E. 연구의 기대효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분석하여 아동권리 보호·증진은 물론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어린이행복도



시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친화도시 구축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아동친화도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략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강구한다.

둘째, 아동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아동권리 보호·증진 계획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의 개인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안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사 결과를 분석·요약하여 정책 수요 파악, 아동 정책과 활동의 방향 설정,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사항 등을 제안한다.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 A.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 B. 아동친화도시 사례
- C.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평가내용

제 II 장 이론적 배경

A.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1. 아동친화도시의 정책 방향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무차별원칙, 아동의 이익 최우선,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지 25년이 지났으나 아직 아동권리에 대한 보장은 미진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행복이라는 기조 아래, 보건복지부(2015)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비전으로 아동 행복감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까지 도달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칙을 정착시키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기로 아동기를 누리고 체감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가정을 포함해 영유아 돌봄 공간, 교육 공간 등을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아동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발달 주기별·분야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⁴⁾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생활환경, 특히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행동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동 정책이 지역사회에 잘 반영되어 실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4) 보건복지부(2015).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서울: 보건복지부.

2. 아동친화도시 정의 및 내용

아동친화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준수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크고 작은 단위의 지역 거버넌스”로 정의한다.⁵⁾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의 발달과업을 개발하고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⁶⁾

아동친화도시 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1996년 이후 세계 각국의 정책과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정도를 평가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솔직한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조직 개발,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 제정, 예산의 평가와 실행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독려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삶의 질’,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욕구 충족’을 궁극적 목표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기본 바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기반과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⁷⁾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란, 군산시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의미한다.

유니세프는 2000년 이노센티 연구센터(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각국에서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칙, 특징, 기본요소, 이행요건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1과 같다.

5) UNICEF(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6) UNICEF(2005). Cities with children-child friendly cities in Italy,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Florence.
7) 홍승애(201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표 11-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구체적인 내용

구분	내용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특징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양질의 기본 의료 서비스, 깨끗한 물, 적절한 위생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 쓰레기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지방정부는 정책적으로 시행을 실시해야 하며, 자원의 배분과 정부의 행동계획은 시민과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함.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안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
	·거리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장애아 혹은 적절한 가족의 지원이 없는 아동·청소년과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제공되어야 함.
	·성별, 종교적 배경,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금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 요소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결정권 행사하기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가족, 지역사회,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참여하기
	·의료와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안전한 식수와 깨끗한 위생환경을 제공받기
	·폭력과 착취 그리고 학대로부터 보호받기
	·거리를 안전하게 걷기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놀이기
	·자연과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문화행사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기	
·모든 시민이 향유하는 서비스에 종교, 민족, 경제적 수준, 성별,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 받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9가지 이행요건	·아동·청소년의 참여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률 구조
	·도시 전반에 걸친 아동·청소년 권리 전략
	·아동·청소년 권리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
	·아동·청소년 영향 사정과 평가
	·아동·청소년 예산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상황 보고서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홍보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옹호 기구	

자료: CFCIWebsite(<http://www.childfriendlycities.org>) ; 홍승애(2010)



3. 아동친화도시에서의 아동권리

아동 친화적 환경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이다. 회복력 있고(resilient), 안전하고(secure), 역량이 있으며(capable), 살만한(livable) 도시로서 아동이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으며, 위협이 없는 안전한 도시, 아동의 참여가 보장된 도시, 물, 음식, 교통안전과 공간, 환경의 친화적 요소가 보장되어야 한다.⁸⁾

아동친화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동의 구체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다.⁹⁾

-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
-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가족, 지역사회와 사회적인 삶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보건의료나 교육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안전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위생이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권리
-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거리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
- 친구를 만나고 놀 수 있는 권리
- 녹색환경을 누리고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권리
-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
-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인종, 종교, 소득, 성별,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평등한 시민이 될 권리

4. 아동친화도시의 원칙

유니세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일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¹⁰⁾

8) 김영지(2005).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개발을 위한 아홉 가지 원칙.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 UNICEF(2015). What is a Child Friendly City?

<http://childfriendlycities.org/overview/what-is-a-child-friendly-city/>에서 인출

1) 무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

일반아동 뿐 만 아니라 장애아동, 소수인종의 아동까지 차별 없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2)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

도시 행정가, 가족, 학교, 지역사회,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기존의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서비스(학교, 교육센터, 발달센터 등)뿐 만 아니라 도시와 관련된 모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의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The right to life and maximum development)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참여의 원칙(Respecting children's view)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며, 아동·청소년의 의견과 욕구가 지방정부와 국가 정책이념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 II-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원칙

조항	원칙	내용
제2조	무차별의 원칙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됨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제6조	생명권, 생존과 발달의 보호	생애 시기에서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제12조	자기 표현권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아동 자신의

10) UNICEF(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 받아야 함

<표 II-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기본권	내용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발달권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권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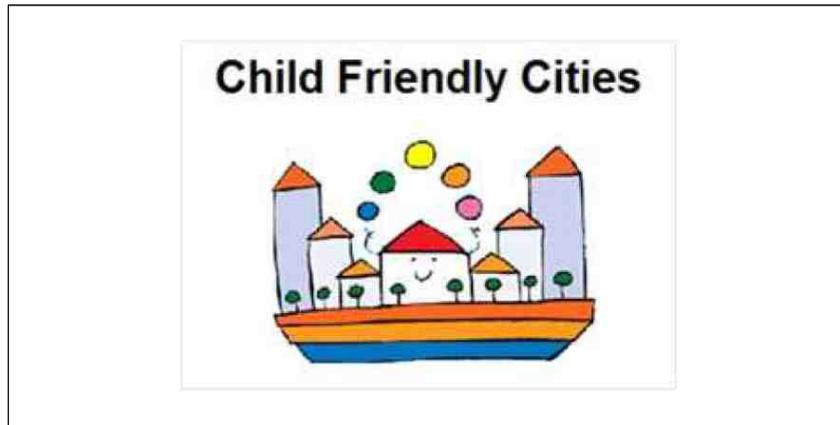
<표 II-4>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

원칙	내용
01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함
0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함
0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함
0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함
05 아동영향평가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함
06 아동관련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함
0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함
08 아동 권리 홍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함
0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함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http://childfriendlycities.kr/cfc/goal>) 인출

<그림 II-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심벌



자료 : <http://www.devinfo.org>

5. 아동친화도시의 환경

현대사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아동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 비율은 점점 가속화 되어 2025년까지 전 세계 아동의 60%가 도시에 살게 될 전망이다¹¹⁾. 도시 환경은 이미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11) 정경숙(2009). 아동친화적인 주거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환경 디자인지침 개발.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신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에 적합한 환경의 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식 정보화 사회와 저출산의 인구학적 변화의 패러다임에서 향후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을 둘러싼 다각적인 면에서의 고찰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생태학적 아동발달 이론을 주창한 Bronfenbrenner(1979)는 아동의 발달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체계 내에서 매일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하고 아동이 활동하는 환경인 미시체계(microsystem)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미시체계에는 가정환경, 놀이터, 학교, 근린 사용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환경이 아동의 발달과 신체에 유익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나타날 때 이를 아동 친화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동을 위한 아동 친화적 환경이란 아동의 차별적 특성인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이해하고, 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이를 지원하고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한계를 고려하여 아동의 안전을 배려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아동 중심의 디자인을 구현하여 아동의 단계별 발달을 지원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아동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되어야 한다.¹²⁾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¹³⁾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 학교, 학원, 공원, 의료기관, 여가시설, 상담 기관, 사회 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은 청소년의 배움을 자극하며 건강한 발달을 이끌어 낸다.¹⁴⁾ 특히 공원, 놀이터, 스포츠 센터 등 여가활동과 관련된 기관은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¹⁵⁾

12) 정경숙(2009). 아동친화적인 주거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환경 디자인지침 개발.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김선숙(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E Start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장근영, 이해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3-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 Levental, T., & Brooks-Gunn, J.(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309-337.

B. 아동친화도시 사례

1. 성북구¹⁶⁾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동의 기본 이념

성북구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아동친화·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구립 돌봄센터, 아동청소년센터, 안심 귀가버스,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동친화 예산서 등의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성북구의 사례를 보면 조례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어린이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시 고려하고 있는 내용

- ① 아동의 권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수립
- ② 보육: 보육관련 교육체계 구축 및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 ③ 돌봄: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민관돌봄네트워크 확대 등
- ④ 교육지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허브 역할 강화 등
- ⑤ 친환경급식: 친환경급식 확대 및 만족도 향상 등
- ⑥ 어린이·청소년 참여: 청소년지원센터 설립, 다양한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지원,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
- ⑦ 어린이세상: 친환경 체험텃밭 운영, 어린이가 함께 디자인하는 마을 만들기, 놀이터 만들기, 통학로 개선 등

16) 성북구청(2015).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정착 벤치마킹 교육자료(2014). (<http://www.seongbuk.go.k>에서 인출)

2. 독일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동의 기본 이념

독일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동의 기본 이념은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추진 과정은 설문을 통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도출된 요구 및 의제 설정,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 계획(목표, 시간계획, 추진주체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2) 독일연방아동·청소년보호협회

독일은 독일연방아동·청소년보호협회에서 폭력과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권, 계획과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기제를 제공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 빈곤 퇴치, 아동·청소년 폭력 근절,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지침

- ①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 ② 아동 친화적 환경(법, 건강, 아동보호장치 등) 조성
- ③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략과 종합적인 아동 친화적 활동계획 수립
- ④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 ⑤ 지역사회에서 법, 정치, 행정 제도 등의 결정시 우선적으로 아동의 이해 반영(아동·청소년 영향 사정과 평가)
- ⑥ 아동·청소년을 위한 명확한 예산 수립
- ⑦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

- ⑧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대한 홍보
- ⑨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설치와 이에 대한 지원

4)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시 고려하고 있는 내용

- ① 지역사회구조의 데이터 확보
- ②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행정과 정책
- ③ 아동·청소년 권리
- ④ 아동·청소년의 참여
- ⑤ 진로 및 지역교육 기회 가능성
- ⑥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 정책 수행 능력
- ⑦ 놀이와 여가 시설 정도
- ⑧ 주거 및 주거환경과 교통(이동)의 편리성
- ⑨ 건강과 아동·청소년 보호 정도
- ⑩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내 또는 국제적 협력 정도



3. 스웨덴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운동의 기본 이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표현된 아동의 의사는 결정을 내리는 데 반영되어야 한다.’를 강조하고 있다. 즉,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시 고려하고 있는 내용

첫째, 어떤 아동 혹은 아동 집단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가이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동이 더 이상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아동에게는 최선의 것이 다른 아동에게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나 다양한 민족, 장애아동, 사회·경제적으

로 열악한 가정의 아동, 정신적 혹은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취약한 환경 속의 아동, 괴롭힘이나 학습 장애와 같은 학교에서의 문제나 또는 신경정신병리 문제 등과 같은 삶의 조건과 관련하여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둘째, 어떤 정책 결정이 검토되어야 하는가이다.

어떠한 결정이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를 예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어떠한 정책 결정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포함되어야 할지 않을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여 적용해야 한다.

셋째,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어떠한 양식을 취해야 하는 가이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 기능이 합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조사·감시하는 제도인 옴부즈맨이 임명되어 있으며, 학교 건물의 구조적인 변화 등과 같이 분명하게 아동 최선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결정이 행해지고 있다.

넷째, 어떤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가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때 어떤 결과가 분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든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결정의 결과나 효과는 종종 사건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건은 서로 관계되어 있어서 무한대로 영향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를 평가할 때는 어떤 연속선상에서 현실적으로 상상 가능한 수준의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

C.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평가내용

유니세프에서는 지역사회 아동친화도를 평가하기 위해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자가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아동친화도 평가 항목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제공한 평가 항목으로 초등학생용(48문항)과 중학생용(55문항)으로 구분되나, 전체적인 평가 내용은 유사하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제시한 아동친화도 평가 항목을 제시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5> 아동친화도 평가 항목

실문영역	평가항목
놀이와 여가	동네 놀이·운동 장소, 놀고 싶 시간, 동네 놀이터 이용, 동네 자연환경, 축제 참여 (구경), 방과 후 프로그램·단체활동 참여
참여와 시민권	동네 변화 기여도, 어린이 의견청취, 어린이 권리 인식도, 인터넷을 활용한 동네 정보 접근
안전과 보호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도, 동네 안전한 환경 위험시 도움요청, 재난대처 방법, 인터넷 위험성
건강과 위생	동네 병원, 동네 공중화장실, 동네 청결도, 동네 공기 상쾌도
교육	학교 재학유무, 학교에서의 남녀평등, 학용품 사용, 선생님의 관심, 건강·위생교육, 환경보호교육,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 의견제시, 자유시간, 깨끗한 물,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고민상담, 똑같은 존중, 동일한 대우, 학교 동네 도서관, 학교 체벌, 학교 의사결정 참여, 장애 학생 배려, 성교육, 직업교육 프로그램
나의 사생활	집에 있는 마실 물, 깨끗한 화장실(집, 집근처), 집에 있는 씻을 물, 집에서의 편안함, 왕따, 동네 폭력집단, 유괴납치 걱정, 폭력 학대, 학대(폭력) 상담, 동네 어린이 존중, 학교 왕따, 집 공기 오염, 약물 위험, 법위반시 대우, 정신과 상담, 에이즈·성관계 교육

이
문
적
배
경

제
II
장

자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 Ⅲ 장

조사방법

- A. 설문조사
- B. 면담조사

제 III 장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의 주춧돌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설문조사와 이에 따른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A. 설문 조사

<표 III-1> 조사 개요표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총 2,186명
조사지역	군산시 27개 읍면동
최종 표본수 (실제 응답수)	초등학교 2학년 633명, 5학년 689명, 중학교 2학년 864명
참여 학교수	초등학교 59개 중 33개, 중학교 19개 중 12개
최종 표본 선정에서 고려한 점	군산시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집단으로 채택하고, 각 학교의 학생수를 고려하여 전체 학생의 40%에 해당하는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분실, 미수거 등의 이유로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전체 학교별 학생수의 25%에 해당하는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함.
조사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
조사내용	아동이 평가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자료수집 도구	유니세프에서 개발한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
조사기간	2015. 10.20.~11.06.
조사기관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 아동복지학과 윤진주)

1. 조사대상

표본 표집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를 모집단으로 행정 구역별과 학교급별, 학생 수의 규모를 고려하였다. 일정 비율대로 비례 배분하여 초등학교 2학년 633명과 5학년 689명, 중학교 2학년 864명이 할당되어 총 2,186명이 선정되었다. 조사대상을 선정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학교 선정

조사대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산 시청과 군산시 교육지원청의 협조로 군산시 27개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학교 수와 학생 수를 파악하였다.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초등학교의 수는 59개 이었으며, 중학교의 수는 19개이었다. 본 연구진은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군산시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해당 학교에 대표 학년이 아예 없거나 재학생의 수가 지극히 없는 학교, 설문지의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는 59개소 중 33개소가, 중학교는 19개소 중 12개소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2) 조사대상 학생 선정

조사대상을 일정 비율로 선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별로 학생 수를 비례 배분하여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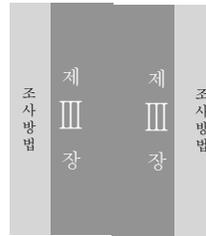
첫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학년(1~3학년)과 고학생(4~6학년)으로 구분하고 저학년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된 2학년과 고학년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된 5학년을 초등학교 대표 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중학교(1~3학년)의 경우에도 중간 학년에 속하는 2학년을 대표 학년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각 학교별로 대표 학년 학생수의 40%에 해당하는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의 수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전체 25%에 해당되는 학생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초등학교 응답자의 일반 현황

구분		사례수(건)	비율(%)
성별	남자	598	45.2
	여자	724	54.8
학년	2학년	633	47.9
	5학년	689	52.1
거주지역	개정동	23	1.7
	경암동	25	1.9
	구암동	28	2.1
	나운1동	126	9.5
	나운2동	183	13.8
	나운3동	61	4.6
	미성동	61	4.6
	소룡동	128	9.7
	수송동	466	35.2
	신흥동	14	1.1
	오룡동	17	1.3
	월명동	28	2.1
	조춘동	70	5.3
	중앙동	4	0.3
	해신동	4	0.3
	흥남동	17	1.3
	옥구읍	1	0.1
	개정면	9	0.7
	나포면	-	0.0
	대야면	20	1.5
	서수면	3	0.2
	성산면	4	0.3
	옥도면	-	0.0
	옥산면	3	0.2
	옥서면	0	0.0
	임피면	7	0.5
회현면	20	1.5	
전체		1,322	100.0

<표 III-3> 중학교 응답자의 일반 현황

구분		사례수(건)	비율(%)
성별	남자	421	48.7
	여자	443	51.3
학년	2학년	864	100.0
	개정동	15	1.7
거주지역	경암동	26	3.0
	구암동	12	1.4
	나운1동	51	5.9
	나운2동	150	17.4
	나운3동	86	10.0
	미성동	43	5.0
	소룡동	84	9.7
	수송동	241	27.9
	신흥동	21	2.4
	오룡동	13	1.5
	월명동	15	1.7
	조춘동	37	4.3
	중앙동	2	0.2
	해신동	4	0.5
	흥남동	25	2.9
	옥구읍	-	0.0
	개정면	5	0.6
	나포면	-	0.0
	대야면	13	1.5
	서수면	4	0.5
	성산면	2	0.2
	옥도면	-	0.0
	옥산면	3	0.3
	옥서면	1	0.1
	임피면	7	0.8
	회현면	4	0.5
전체		864	100.0



2. 조사도구

1)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평가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니세프에서 개발한 아동친화도시 평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유니세프에서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내용으로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 대상자인 군산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평가하는 일반적인 동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첨가하여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유니세프에서 추구하는 평가 문항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문항의 내용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설문지 내용을 추가·정리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아동 본인이 자신의 인식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여러 제반 상황을 평가하는 자기 보고식 평가지이다. 연구진이 추가한 문항의 채점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식 설문 문항의 채점 방법은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설문지 내용은 초등학생용과 중학생용이 유사하지만, 학년의 특성에 따라 문항 내용과 문항 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사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4>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에게 사용된 설문지의 영역과 항목

구분	설문영역	문항수
연구진이 추가한 질문	학생의 성별	1
	학생의 학년	1
	거주지역	1
	주변 성인과의 관계	1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1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
	동네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정도	1
	소계	7



유니세프 공식 질문	놀이와 여가		6
	참여와 시민권		4
	안전과 보호		5
	건강과 위생		4
	교육		18
	나의 사생활	우리집	4
		나의 안전과 보호	6
우리학교		1	
소계		48	

<표 III-5> 중학교 2학년에게 사용된 설문지의 영역과 항목

구분	설문영역	문항수	
연구진이 추가한 질문	학생의 성별	1	
	학생의 학년	1	
	거주지역	1	
	주변 성인과의 관계	1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1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	
	동네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정도	1	
	소계	7	
유니세프 공식 질문	놀이와 여가		6
	참여와 시민권		4
	안전과 보호		5
	나의 건강		4
	교육		20
	나의 사생활	우리집	5
		나의 안전과 보호	8
		나의 건강	2
		우리학교	1
	전체		55

3. 연구절차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진들이 예비조사 전에 유니세프가 공식화한 아동친화도시 설문지를 점검한 결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의 내용 중 일부에서 군산시 초등학교와 중학생에게 적합하지 않는 문항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비조사에 앞서 군산시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 설문지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아동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만족도에 관련된 4개의 문항을 첨가하였다. 수정 및 보완된 질문지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학과 교수에게 내용 타당도를 의뢰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과 구성이 타당하다는 검증을 받았다.

2)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15년 10월 20일에 유니세프에서 공식화한 아동친화도시 평가 설문지의 현장 가능성과 설문에 답하는 소요 시간, 문항의 내용 및 구성의 적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대상은 군산시 나운동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본 조사의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중학교 2학년 각각 30명이었다.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는 본 연구진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지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용으로 확정하였다.

3) 본조사

본 조사는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군산시 교육지원청의 협조로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군산시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교가 많은 지역과 학생이 많은 학교로 조사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학교별로 전체 학생 수 대비 25%에 해당하는 설문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40%에 해당하는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전체 학생수의 25%의 비율 표집을 달성하기 위하여 40%에 해당하는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전체 학생수 대비 25%에 해당되는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기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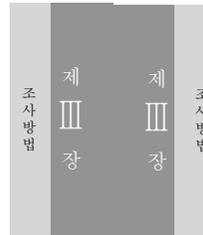
B. 면담조사

1. 면담대상

심층면담은 2015년 11월 27일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아동의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2학년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하여 설문조사로 추출할 수 없는 정성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2. 면담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위한 면담지를 작성하였다. 면담지는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용으로 사용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자가 평가지의 설문 내용을 기초로 구조화된 면담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면담 상황 및 맥락을 고려하여 비구조적인 면담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5>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아동용 면담지 내용

하위영역	면담 질문
놀이와 여가	본인에게 놀이와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여와 시민권	본인에게 참여와 시민권이 충분히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과 보호	본인에게 안전과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건강	본인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좋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	본인이 놓여 있는 교육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사생활	본인의 집안 환경, 안전과 보호, 건강, 학교의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좋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사 방법

제 III 장

3. 면담방법

면담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자의 구조화된 질문을 시작으로 자유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집단 면담으로 이루어졌고, 면담 내용의 순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였다.

제 IV 장

조사 결과 및 해석

- A. 설문조사 결과
- B. 면담조사 결과

제 IV 장 조사 결과 및 해석

A. 설문조사 결과

○ 연구대상

1) 초등학교 설문조사 대상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33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633명과 5학년 학생 689명 총 1,322명이다.

〈표 IV-1〉 초등학교 설문조사 대상

연번	행정동·읍·면	성 별			학 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1	개정동	13	10	23	11	12	23
2	경암동	12	13	25	6	19	25
3	구암동	12	16	28	11	17	28
4	나운1동	61	65	126	57	69	126
5	나운2동	73	110	183	83	100	183
6	나운3동	32	29	61	21	40	61
7	미성동	26	35	61	34	27	61
8	소룡동	56	72	128	61	67	128
9	수송동	209	257	466	256	210	466
10	신평동	10	4	14	4	10	14
11	오룡동	11	6	17	10	7	17
12	월명동	11	17	28	12	16	28
13	조촌동	31	39	70	25	45	70
14	중앙동	1	3	4	1	3	4
15	해신동	2	2	4	1	3	4

연번	행정동·읍·면	성별			학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16	홍남동	6	11	17	8	9	17
17	옥구읍	1	0	1	0	1	1
18	개정면	5	4	9	2	7	9
19	나포면	0	0	0	0	0	0
20	대야면	10	10	20	9	11	20
21	서수면	2	1	3	2	1	3
22	성산면	1	3	4	2	2	4
23	옥도면	0	0	0	0	0	0
24	옥산면	2	1	3	1	2	3
25	옥서면	0	0	0	0	0	0
26	임피면	4	3	7	3	4	7
27	회현면	7	13	20	13	7	20
전체		598	724	1,322	633	689	1,322

2) 중학교 설문조사 대상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2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864명이다.

<표 IV-2> 중학교 설문조사 대상

연번	행정동·읍·면	성별		
		남학생	여학생	전체
1	개정동	10	5	15
2	경암동	13	13	26
3	구암동	6	6	12
4	나운1동	27	24	51
5	나운2동	74	76	150
6	나운3동	38	48	86
7	미성동	22	21	43
8	소룡동	39	45	84
9	수송동	112	129	241
10	신평동	5	16	21

연번	행정동·읍·면	성별		
		남학생	여학생	전체
11	오룡동	9	4	13
12	월명동	9	6	15
13	조촌동	16	21	37
14	중앙동	0	2	2
15	해신동	2	2	4
16	홍남동	15	10	25
17	옥구읍	0	0	0
18	개정면	4	1	5
19	나포면	0	0	0
20	대야면	9	4	13
21	서수면	2	2	4
22	성산면	1	1	2
23	옥도면	0	0	0
24	옥산면	2	1	3
25	옥서면	0	1	1
26	임피면	3	4	7
27	회현면	3	1	4
전체		421	443	864



1. 전반적인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를 학생의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IV-3〉 초등학생이 평가한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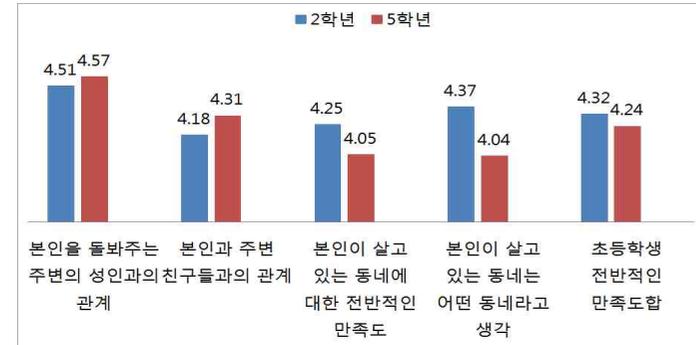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	2	633	4.51	.82	-1.40***
	5	689	4.57	.69	
본인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2	633	4.18	.90	-2.78**
	5	689	4.31	.80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	633	4.25	.92	4.15***
	5	689	4.05	.31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좋고, 나쁜 정도(친화도)	2	633	4.37	.77	7.92***
	5	689	4.04	.73	
초등학생 전반적인 만족도 합	2	633	4.32	.58	2.74*
	5	689	4.24	.57	

* p<.05, **p<.01, ***p<.001

※5점 만점

표 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합을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2학년은 평균 4.32(SD=.58), 5학년은 평균 4.24(SD=.57)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2.74$, $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40$, $p<.001$). ‘본인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8$, $p<.05$).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15$, $p<.001$).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좋고, 나쁜 정도(친화도)’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92$, $p<.001$).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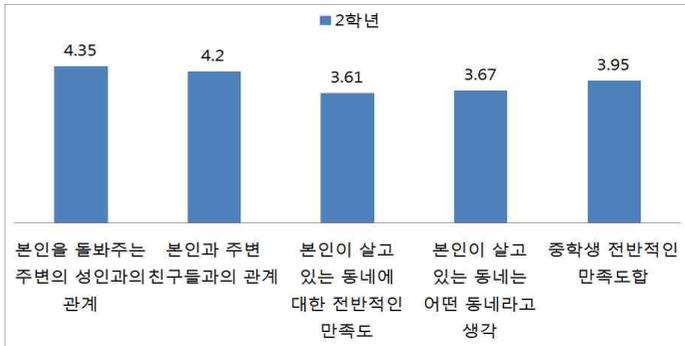
〈표 IV-4〉 중학생이 평가한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	2	864	4.35	.72
본인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2	864	4.20	.78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	864	3.61	.94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좋고, 나쁜 정도(친화도)	2	864	3.67	.80
중학생 전반적인 만족도 합	2	864	3.95	.60

※5점 만점

표 IV-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합을 살펴본 결과, 평균 3.95(SD=.6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는 평균 4.35(SD=.72), ‘본인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는 평균 4.20(SD=.78),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좋고, 나쁜 정도(친화도)’는 평균 3.67(SD=.80),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61(SD=.94)의 순으로 나타났다.





1)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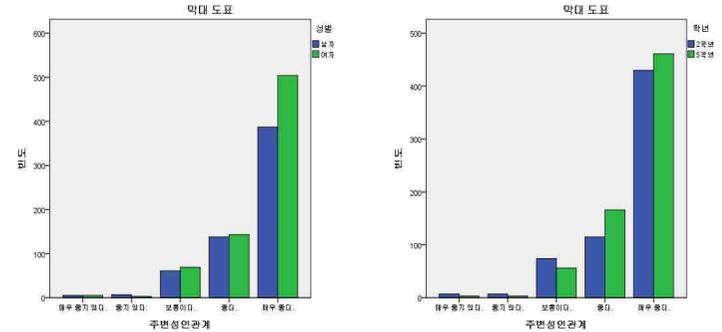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5> 초등학교 학생이 평가한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매우 좋지 않다	10(0.4)	5(0.4)	10(0.8)	7(0.5)	3(0.2)	10(0.8)
좋지 않다	7(0.5)	3(0.2)	10(0.8)	7(0.5)	3(0.2)	10(0.8)
보통이다	61(4.6)	69(5.2)	130(9.8)	74(5.6)	56(4.2)	130(9.8)
좋다	138(10.4)	143(10.8)	281(21.3)	115(8.7)	166(12.06)	281(21.3)
매우 좋다	387(29.3)	504(38.1)	891(67.4)	430(32.5)	461(34.9)	891(67.4)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이 평가한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학생 891명(67.4%)이 ‘매우 좋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

라서는 여학생 504명(38.1%)이 ‘매우 좋다’, 남학생 387명(29.3%)이 ‘매우 좋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461명(34.9%)이 ‘매우 좋다’, 2학년 430명(32.5%)이 ‘매우 좋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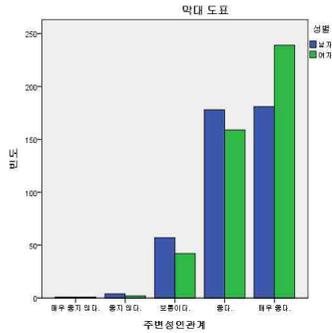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6> 중학교 학생이 평가한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매우 좋지 않다	1(0.1)	1(0.1)	2(0.2)
좋지 않다	4(0.5)	2(0.2)	6(0.7)
보통이다	57(6.6)	42(4.9)	99(11.5)
좋다	178(20.6)	159(18.4)	337(39.0)
매우 좋다	181(20.9)	239(27.7)	420(48.6)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 학생이 평가한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교 학생 420명(48.6%)이 ‘매우 좋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39명(27.7%)이 ‘매우 좋다’, 남학생 181명(20.9%)이 ‘매우 좋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본인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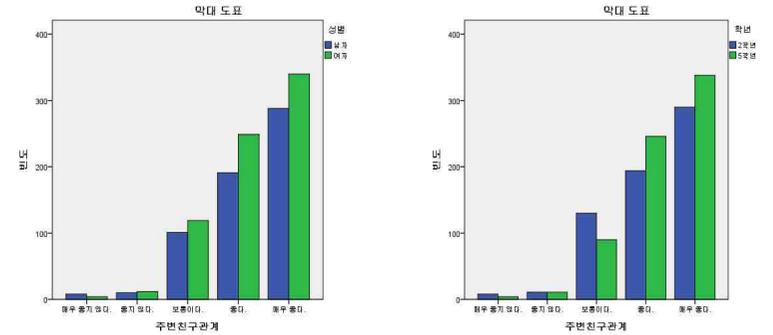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7> 초등학생이 평가한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매우 좋지 않다	8(0.6)	4(0.3)	12(0.9)	8(0.6)	4(0.3)	12(0.9)
좋지 않다	10(0.8)	12(0.9)	22(1.7)	11(0.80)	11(0.8)	22(1.7)
보통이다	101(7.6)	119(9.0)	220(16.6)	130(9.8)	90(6.8)	220(16.6)
좋다	191(14.4)	249(18.8)	440(33.3)	194(14.7)	246(18.6)	440(33.3)
매우 좋다	288(21.8)	340(25.7)	628(47.5)	290(21.9)	338(25.6)	628(47.5)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생 628명(47.5%)이 ‘매우 좋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40명(25.7%)이 ‘매우 좋다’, 남학생 288명(21.8%)이 ‘매우 좋

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338명(25.6%)이 ‘매우 좋다, 2학년 290명(21.9%)이 ‘매우 좋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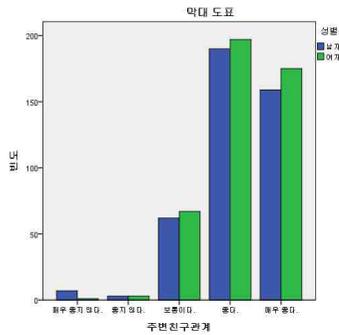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8> 중학생이 평가한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매우 좋지 않다	7(0.8)	1(0.1)	8(0.9)
좋지 않다	3(0.3)	3(0.3)	6(0.7)
보통이다	62(7.2)	67(7.8)	129(14.9)
좋다	190(22.0)	197(22.8)	387(44.8)
매우 좋다	159(18.4)	175(20.3)	334(38.7)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 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중학생 387명(44.8%)이 ‘좋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197명(22.8%)이 ‘좋다’, 남학생 159명(18.4%)이 ‘매우 좋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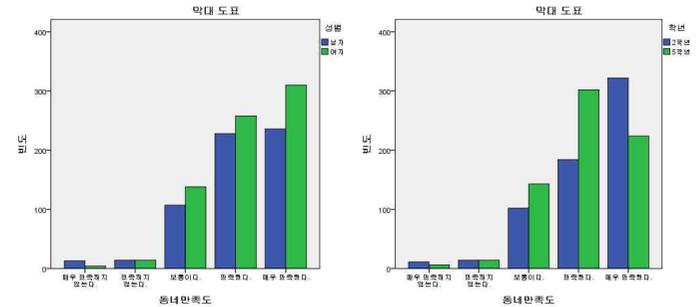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9〉 초등학생이 평가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

구분	단위: 명(%)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3(1.0)	4(0.3)	17(1.3)	11(0.8)	6(0.5)	17(1.3)
만족하지 않는다	14(1.1)	14(1.1)	28(2.1)	14(1.1)	14(1.1)	28(2.1)
보통이다	107(8.1)	138(10.4)	245(18.5)	102(7.7)	143(10.8)	245(18.5)
만족한다	228(17.2)	258(19.5)	486(36.8)	184(13.9)	302(22.8)	486(36.8)
매우 만족한다	236(17.9)	310(23.4)	546(41.3)	322(24.4)	224(32.5)	546(41.3)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24.4)	689(52.1)	1,322(100.0)

표 IV-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생 546명(41.3%)이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했다. 성

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10명(23.4%)이 ‘매우 만족한다’, 남학생 236명(17.9%)이 ‘매우 만족한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322명(24.4%)이 ‘매우 만족한다’, 5학년 302명(22.8%)이 ‘만족한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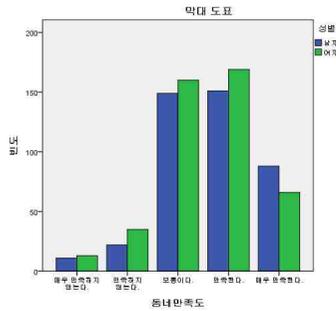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10〉 중학생이 평가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1(1.3)	13(1.5)	24(2.8)
만족하지 않는다	22(2.5)	35(4.1)	57(6.6)
보통이다	149(17.2)	160(18.5)	309(35.8)
만족한다	151(17.5)	169(19.6)	320(37.0)
매우 만족한다	88(10.2)	66(7.6)	154(17.8)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중학생 320명(37.0%)이 ‘만족한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169명(19.6%)이 ‘만족한다’, 남학생 151명(17.5%)이 ‘만족한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 생각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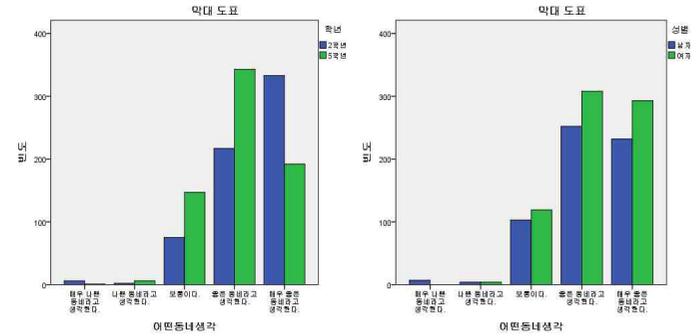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11〉 중학생이 평가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매우 나쁜 동네라고 생각한다	7(0.5)	0(0.0)	7(0.5)	6(0.5)	1(0.1)	7(0.5)
나쁜 동네라고 생각한다	4(0.3)	4(0.3)	8(0.6)	2(0.2)	6(0.5)	8(0.6)
보통이다	103(7.8)	119(9.0)	222(16.8)	75(5.7)	147(11.1)	222(16.8)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252(19.1)	308(23.3)	560(42.4)	217(16.4)	343(25.9)	560(42.4)
매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232(17.5)	293(22.2)	525(39.7)	333(25.2)	192(14.5)	525(39.7)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 생각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생 560명(42.4%)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08명(23.3%)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남학생 252명(19.1%)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343명(25.9%)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2학년 333명(25.2%)이 ‘매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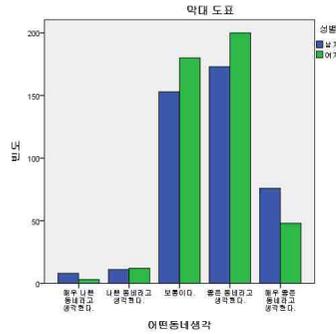
〈표 IV-12〉 중학생이 평가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매우 나쁜 동네라고 생각한다	8(0.9)	3(0.3)	11(1.3)
나쁜 동네라고 생각한다	11(1.3)	12(1.4)	23(2.7)
보통이다	153(17.7)	180(20.8)	333(38.5)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173(20.2)	200(23.1)	373(43.2)
매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76(8.8)	48(5.6)	124(14.4)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중학생 373명(43.2%)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00명(23.1%)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남학생 173명(20.2%)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및 해석

제 IV 장

조사결과 및 해석

2. 놀이와 여가 조사 결과

놀이와 여가 결과를 학생의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IV-13〉 초등학생이 평가한 놀이와 여가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
우리 동네에는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등).	2	633	2.72	.59	3.45***
	5	689	2.60	.69	
나는 놀고 쉴 시간이 있다.	2	633	2.40	.63	-3.80
	5	689	2.53	.62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	2	633	1.73	.94	3.80*
	5	689	1.53	1.02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 환경이 잘 가꾸어져 있다.	2	633	2.37	.77	1.67
	5	689	2.30	.78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2	633	1.91	.83	-3.94
	5	689	2.09	.84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	2	633	2.29	.89	3.07*
	5	689	2.14	.85	
놀이와 여가 합	2	633	2.23	.43	1.59
	5	689	2.19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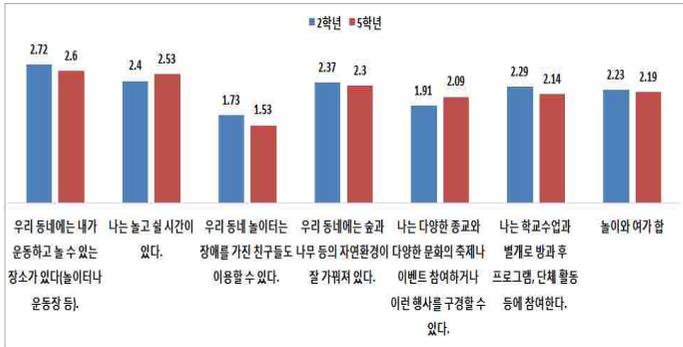
*p<.05, ***p<.001

※3점 만점

표 IV-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놀이와 여가 합을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2학년은 평균 2.23(SD=.43), 5학년은 평균 2.19(SD=.46)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t=1.59$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에는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등)’ 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45$, $p<.001$).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 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80$, $p<.05$).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 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07, p<.05$).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놀고 쉴 시간이 있다’,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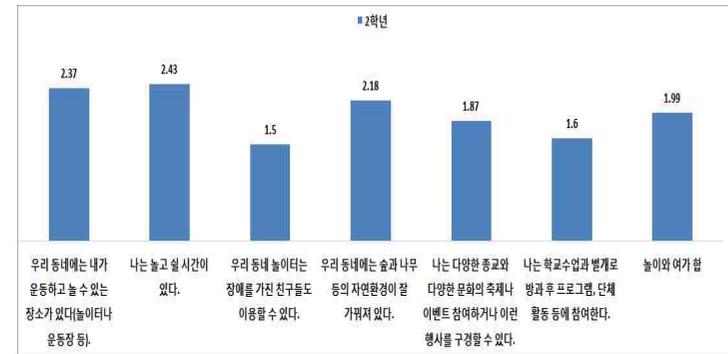


〈표 IV-14〉 중학생이 평가한 놀이와 여가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우리 동네에는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등).	2	864	2.37	.72
나는 놀고 쉴 시간이 있다.	2	864	2.43	.63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	2	864	1.50	.86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2	864	2.18	.74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2	864	1.87	.78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	2	864	1.60	.77
놀이와 여가 합	2	864	1.99	.45

※3점 만점

표 IV-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놀이와 여가 합을 살펴본 결과, 평균 1.99(SD=.45)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놀고 쉴 시간이 있다’는 평균 2.43(SD=.63), ‘우리 동네에는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등)’는 평균 2.37(SD=.72),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는 평균 2.18(SD=.74),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는 평균 1.87(SD=.78),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는 평균 1.60(SD=.77),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평균 1.50(SD=.86)의 순으로 나타났다.



1) 우리 동네에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우리 동네에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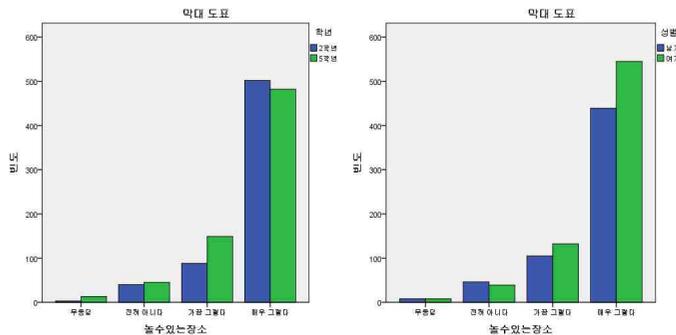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15〉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46(3.5)	39(3.0)	85(6.4)	40(3.0)	45(3.4)	85(6.4)
가끔 그렇다	105(7.9)	132(10.0)	237(17.9)	88(6.7)	149(11.3)	237(17.9)
매우 그렇다	439(33.2)	545(41.2)	984(74.4)	502(38.0)	482(36.5)	984(74.4)
무응답	8(0.6)	8(0.6)	16(1.2)	3(0.2)	13(1.0)	16(1.2)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생 984명(74.4%)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545명(41.2%)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439명(33.2%)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502명(38.0%)이 ‘매우 그렇다’, 5학년 482명(36.5%)이 ‘매우 좋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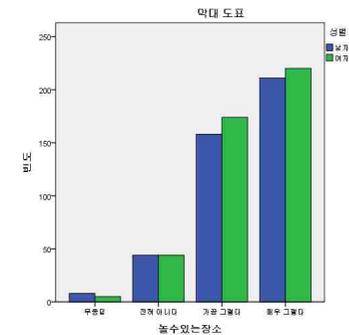
〈표 IV-16〉 중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44(5.1)	44(5.1)	88(10.2)
가끔 그렇다	158(18.3)	174(20.1)	332(38.4)
매우 그렇다	211(24.4)	220(25.5)	431(49.9)
무응답	8(0.9)	5(0.6)	13(1.5)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31명(49.9%)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20명(25.5%)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11명(24.4%)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및 해석



2) 나는 놀고 쉴 시간이 있다.

‘나는 놀고 쉴 시간이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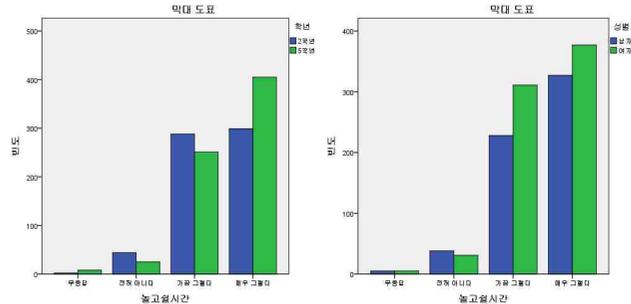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17> 초등학생이 ‘나는 놀고 쉴 시간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38(2.9)	31(2.3)	69(5.2)	44(3.3)	25(1.9)	69(5.2)
가끔 그렇다	228(17.2)	311(23.5)	539(40.8)	288(21.8)	251(19.0)	539(40.8)
매우 그렇다	327(24.7)	377(28.5)	704(53.3)	299(22.6)	405(30.6)	704(53.3)
무응답	5(0.4)	5(0.4)	10(0.8)	2(0.2)	8(0.6)	10(0.8)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놀고 쉴 시간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생 704명(53.3%)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77명(28.5%)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27명(24.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405명(30.6%)이 ‘매우 그렇다’, 2학년 299명(22.6%)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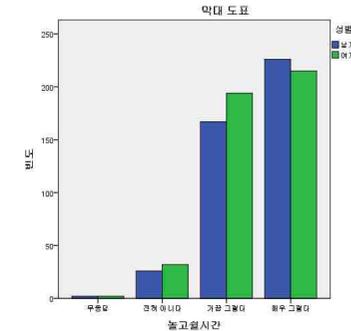
<표 IV-18> 중학생이 ‘나는 놀고 쉴 시간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26(3.0)	32(3.7)	58(6.7)
가끔 그렇다	167(19.3)	194(22.5)	361(41.8)
매우 그렇다	226(26.2)	215(24.9)	441(51.0)
무응답	2(0.2)	2(0.2)	4(0.5)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놀고 쉴 시간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41명(51.0%)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226명(26.2%)이 ‘매우 그렇다’, 여학생 215명(24.9%)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및 해석



3)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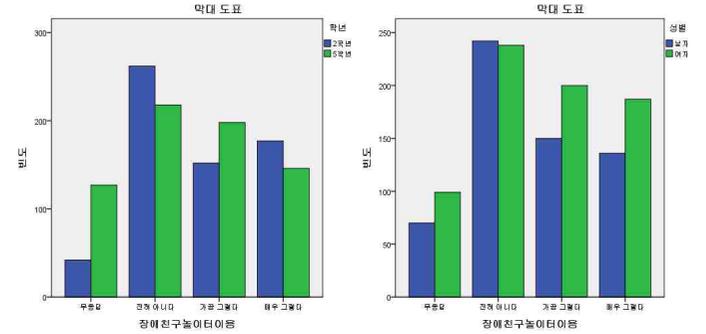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19〉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242(18.3)	238(18.0)	480(36.3)	262(19.8)	218(16.5)	480(36.3)
가끔 그렇다	150(11.3)	200(15.1)	350(26.5)	152(11.5)	198(15.0)	350(26.5)
매우 그렇다	136(10.3)	187(14.1)	323(24.4)	177(13.4)	146(11.0)	323(24.4)
무응답	70(5.3)	99(7.5)	169(12.8)	42(3.2)	127(9.6)	169(12.8)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생 480명(36.3%)이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242명(18.3%)이 ‘전혀 아니다’, 여학생 238명(18.0%)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262명(19.8%)이 ‘전혀 아니다’, 5학년 218명(16.5%)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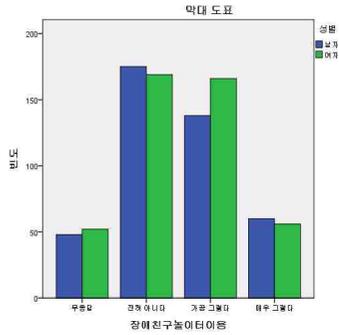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20〉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75(20.3)	169(19.6)	344(39.8)
가끔 그렇다	138(16.0)	166(19.2)	304(35.2)
매우 그렇다	60(6.9)	56(6.5)	116(13.4)
무응답	48(5.6)	52(6.0)	100(11.6)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중학생 344명(39.8%)이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175명(20.3%)이 ‘전혀 아니다’, 여학생 169명(19.6%)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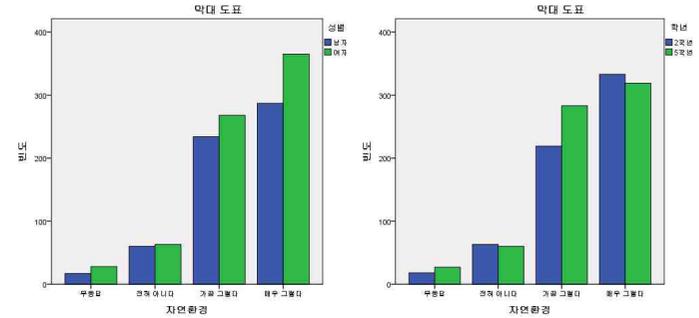
〈표 IV-21〉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60(4.5)	63(4.8)	123(9.3)	63(4.8)	60(4.5)	123(9.3)
가끔 그렇다	234(17.7)	268(20.3)	502(38.0)	219(16.6)	283(21.4)	502(38.0)
매우 그렇다	287(21.7)	365(27.6)	652(49.3)	333(25.2)	319(24.1)	652(49.3)
무응답	17(1.3)	28(2.1)	45(3.4)	18(1.4)	27(2.0)	45(3.4)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교생 652명(49.3%)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65명(27.6%)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87명(21.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333명(25.2%)이 ‘매우 그렇다’, 5학년 319명(24.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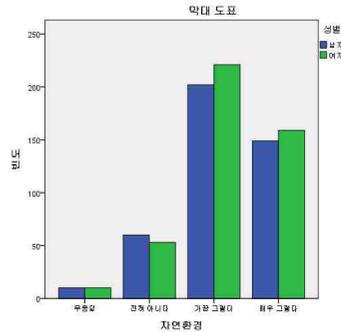
〈표 IV-22〉 중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60(6.9)	53(6.1)	113(13.1)
가끔 그렇다	202(23.4)	221(25.6)	423(49.0)
매우 그렇다	149(17.2)	159(18.4)	308(35.6)
무응답	10(1.2)	10(1.2)	20(2.3)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23명(49.0%)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

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21명(25.6%)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02명(23.4%)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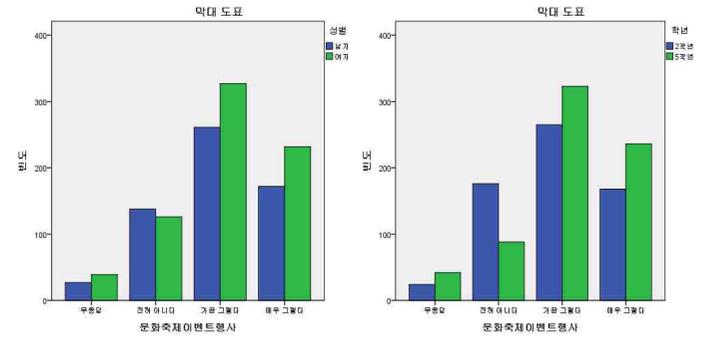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23〉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결과

단위: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38(10.4)	126(9.5)	264(20.0)	176(13.30)	88(6.7)	264(20.2)
가끔 그렇다	261(19.7)	327(24.7)	588(44.5)	265(20.0)	323(24.4)	588(44.5)
매우 그렇다	172(13.0)	232(17.5)	404(30.6)	168(12.7)	236(17.9)	404(30.6)
무응답	27(2.0)	39(3.0)	66(5.0)	24(1.8)	42(3.2)	66(5.0)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생 588명(44.5%)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27명(24.7%)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61명(19.7%)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323명(24.4%)이 ‘가끔 그렇다’, 2학년 265명(20.0%)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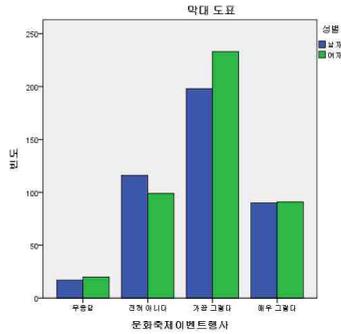
〈표 IV-24〉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16(13.4)	99(11.5)	215(24.9)
가끔 그렇다	198(22.9)	233(27.0)	431(49.9)
매우 그렇다	90(10.4)	91(10.5)	181(20.9)
무응답	17(2.0)	20(2.3)	37(4.3)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

화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31명(49.9%)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33명(27.0%)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198명(22.9%)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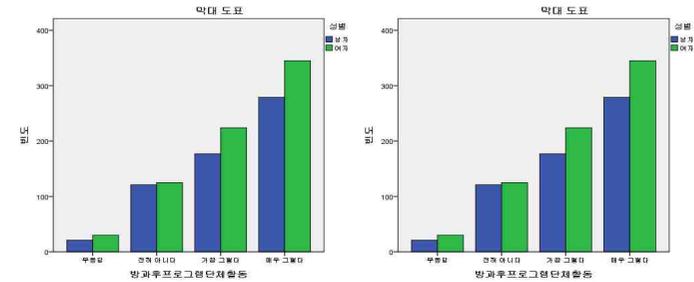
<표 IV-25> 초등학교가 평가한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21(9.2)	125(9.5)	246(18.6)	111(8.4)	135(10.2)	246(18.6)
가끔 그렇다	177(13.4)	224(16.9)	401(30.3)	155(11.7)	246(18.6)	401(30.3)
매우 그렇다	279(21.1)	345(26.1)	624(47.2)	342(25.9)	282(21.3)	624(47.2)
무응답	21(1.6)	30(2.3)	51(3.9)	25(1.9)	26(2.0)	51(3.9)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교 624명(47.2%)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45명(26.1%)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79명(21.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342명(25.9%)이 '매우 그렇다', 5학년 282명(21.3%)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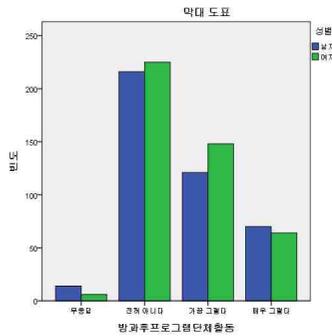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26> 중학교가 평가한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216(25.0)	225(26.0)	441(51.0)
가끔 그렇다	121(14.0)	148(17.1)	269(31.1)
매우 그렇다	70(8.1)	64(7.4)	134(15.5)
무응답	14(1.6)	6(0.7)	20(2.3)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41명(51.0%)이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25명(26.0%)이 ‘전혀 아니다’, 남학생 216명(25.0%)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참여와 시민권 조사 결과

참여와 시민권 결과를 학생의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IV-27〉 초등학생이 평가한 참여와 시민권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 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2	633	1.46	.73	-2.57**
	5	689	1.57	.80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	2	633	1.64	.82	4.29
	5	689	1.43	.87	
나는 TV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2	633	1.73	.78	-4.67**
	5	689	1.93	.81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	2	633	1.62	.79	-6.33
	5	689	1.91	.88	
참여와 시민권 합	2	633	1.63	.52	-1.55*
	5	689	1.68	.58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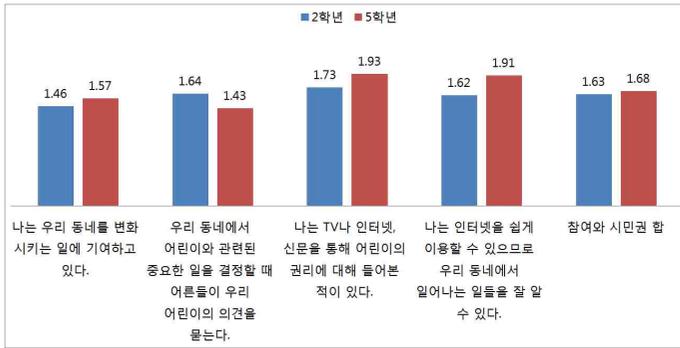
※3점 만점



표 IV-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참여와 시민권의 합을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2학년은 평균 1.63(SD=.52), 5학년은 평균 1.68(SD=.58)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1.55$, $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평가한 참여와 시민권 결과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 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7$, $p<.01$). ‘나는 TV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67$, $p<.01$).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의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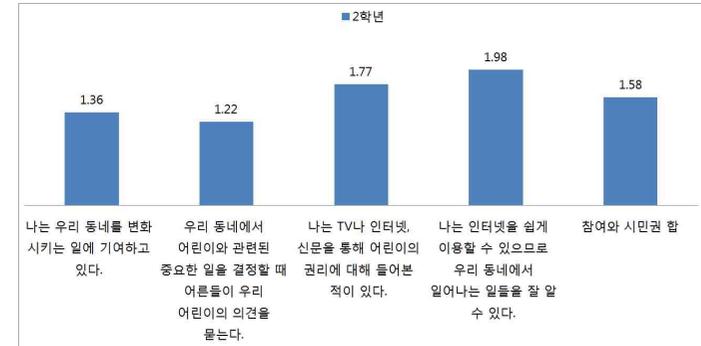
〈표 IV-28〉 중학생이 평가한 참여와 시민권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2	864	1.36	.66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	2	864	1.22	.74
나는 TV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2	864	1.77	.75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	2	864	1.98	.79
참여와 시민권 합	2	864	1.58	.51

※3점 만점

표 IV-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참여와 시민권의 합을 살펴본 결과, 평균 1.58(SD=.5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는 평균 1.98(SD=.79), '나는 TV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

이 있다'는 평균 1.77(SD=.75),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균 1.36(SD=.66),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는 1.22(SD=.74)의 순으로 나타났다.



1)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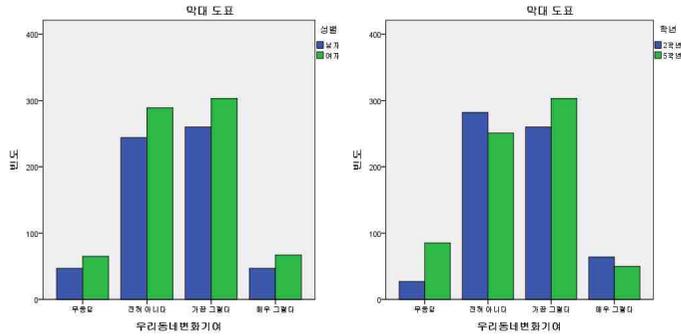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29〉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244(18.5)	289(21.9)	533(40.3)	282(21.3)	251(19.0)	533(40.3)
가끔 그렇다	260(19.7)	303(22.9)	563(42.6)	260(19.7)	303(22.9)	563(42.6)
매우 그렇다	47(3.6)	67(5.1)	114(8.6)	64(4.8)	50(3.8)	114(8.6)
무응답	47(3.6)	65(4.9)	112(8.5)	27(2.0)	85(52.1)	112(8.5)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 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생 563명(42.6%)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03명(22.9%)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60명(19.7%)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303명(22.9%)이 ‘가끔 그렇다’, 2학년 282명(21.3%)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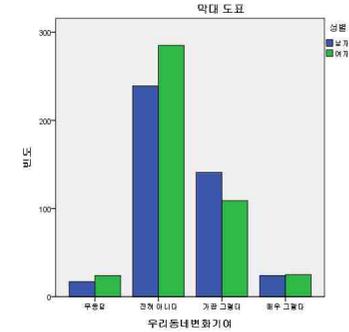
<표 IV-30>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 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239(27.7)	285(33.0)	524(60.6)
가끔 그렇다	141(16.3)	109(12.6)	250(28.9)
매우 그렇다	24(2.8)	25(2.9)	49(5.7)
무응답	17(2.0)	24(2.8)	41(4.7)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3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 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생 524명(60.6%)이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85명(33.0%)이 ‘전혀 아니다’, 남학생 239명(27.7%)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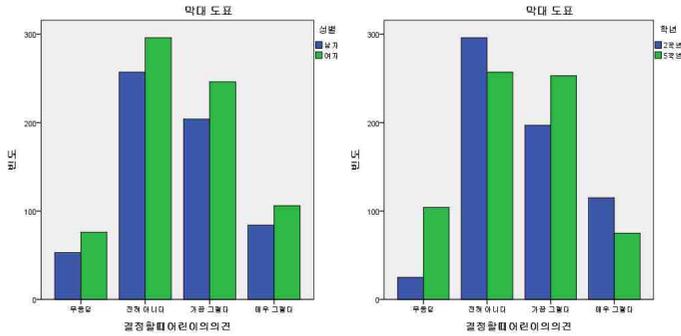
<표 IV-31>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257(19.4)	296(22.4)	553(41.8)	296(22.4)	257(19.4)	553(41.8)
가끔 그렇다	204(15.4)	246(18.6)	450(34.0)	197(14.9)	253(19.1)	450(34.0)
매우 그렇다	84(6.4)	106(8.0)	190(14.4)	115(8.7)	75(5.7)	190(14.4)
무응답	53(4.0)	76(5.7)	129(9.8)	25(1.9)	104(7.9)	129(9.8)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553명(41.8%)이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96명(22.4%)이 ‘전혀 아니다’, 남학생 257명(19.4%)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296명(22.4%)이 ‘전혀 아니다’, 5학년 257명(19.4%)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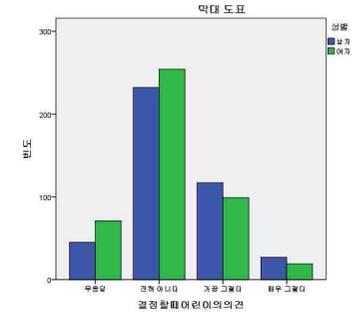
〈표 IV-32〉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232(26.9)	254(29.4)	486(56.3)
가끔 그렇다	117(13.5)	99(11.5)	216(25.0)
매우 그렇다	27(3.1)	19(2.2)	46(5.3)
무응답	45(5.2)	71(8.2)	116(13.4)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

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교 486명(56.3%)이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54명(29.4%)이 ‘전혀 아니다’, 남학생 232명(26.9%)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나는 TV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나는 TV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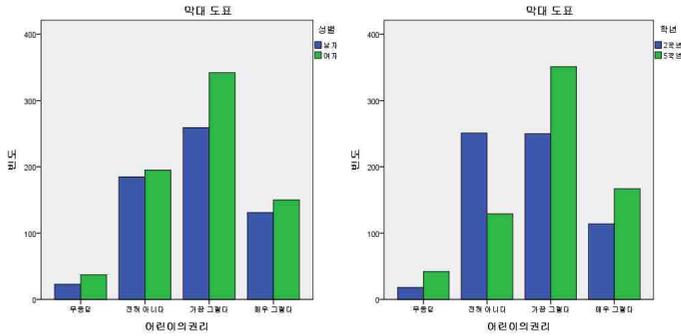
〈표 IV-33〉 초등학교가 평가한 ‘나는 TV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85(14.0)	195(14.8)	380(28.7)	251(19.0)	129(9.8)	380(28.7)
가끔 그렇다	259(19.6)	342(25.9)	601(45.5)	250(18.9)	351(26.6)	601(45.5)
매우 그렇다	131(9.9)	150(11.3)	281(21.3)	114(8.6)	167(12.6)	281(21.3)
무응답	23(1.7)	37(2.8)	60(4.5)	18(1.4)	42(3.2)	60(4.5)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TV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생 601명(45.5%)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42명(25.9%)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59명(19.6%)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351명(26.6%)이 ‘가끔 그렇다’, 2학년 251명(19.0%)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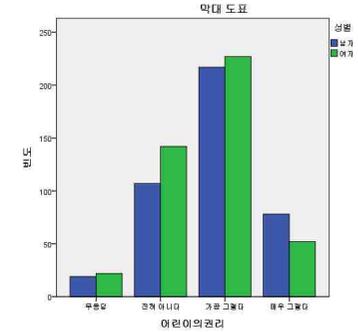
<표 IV-34>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TV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07(12.4)	142(16.4)	249(28.8)
가끔 그렇다	217(25.1)	227(26.3)	444(51.4)
매우 그렇다	78(9.0)	52(6.0)	130(15.0)
무응답	19(2.2)	22(2.5)	41(4.7)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TV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44명(51.4%)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27명(26.3%)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17명(25.1%)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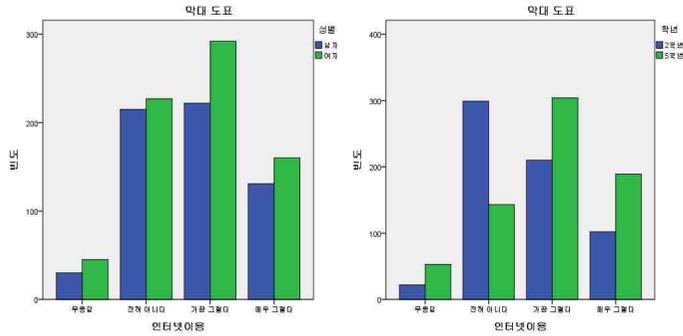
<표 IV-35>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215(16.3)	227(17.2)	442(33.4)	299(22.6)	143(10.8)	442(33.4)
가끔 그렇다	222(16.8)	292(22.1)	514(38.9)	210(15.9)	304(23.0)	514(38.9)
매우 그렇다	131(9.9)	160(12.1)	291(22.0)	102(7.7)	189(14.3)	291(22.0)
무응답	30(2.3)	45(3.4)	75(5.7)	22(1.7)	53(4.0)	75(5.7)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514명(38.9%)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92명(22.1%)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22명(16.8%)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304명(23.0%)이 ‘가끔 그렇다’, 2학년 299명(22.6%)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표 IV-36> 중학교가 평가한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84(9.7)	104(12.0)	188(21.8)
가끔 그렇다	204(23.6)	207(24.0)	411(47.6)
매우 그렇다	119(13.8)	115(13.3)	234(27.1)
무응답	14(1.6)	17(2.0)	31(3.6)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11명(47.6%)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07명(24.0%)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04명(23.6%)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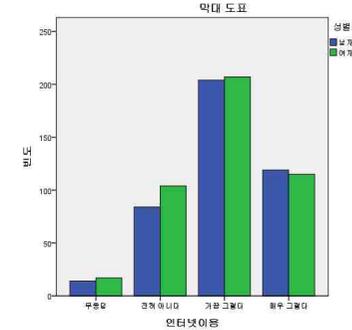


표 IV-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가 평가한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4. 안전과 보호 조사 결과

안전과 보호 결과를 학생의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IV-37〉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안전과 보호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2	633	2.15	.76	2.42*
	5	689	2.04	.78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2	633	2.22	.80	3.74**
	5	689	2.05	.81	
나는 위험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2	633	2.78	.55	1.92**
	5	689	2.71	.62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2	633	2.48	.76	2.31
	5	689	2.38	.81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2	633	2.27	.87	-5.45***
	5	689	2.52	.78	
안전과 보호 합	2	633	2.37	.46	1.40
	5	689	2.34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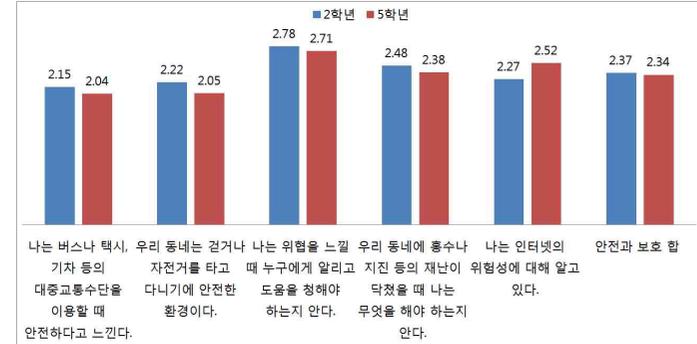
*p<.05, **p<.01, ***p<.001

※3점 만점

표 IV-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안전과 보호 합을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2학년은 평균 2.37(SD=.46), 5학년은 평균 2.34(SD=.49)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t=1.4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2$, $p<.05$).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74$, $p<.01$). ‘나는 위험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2$, $p<.01$).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45$, $p<.001$).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8〉 중학생이 평가한 안전과 보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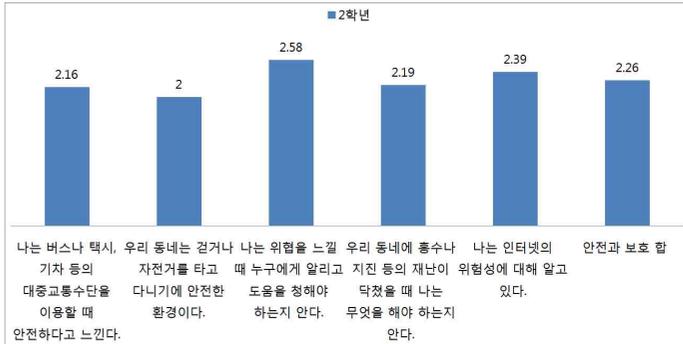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2	864	2.16	.66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2	864	2.00	.76
나는 위험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2	864	2.58	.60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2	864	2.19	.73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2	864	2.39	.70
안전과 보호 합	2	864	2.26	.46

※3점 만점

표 IV-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안전과 보호 합을 살펴본 결과, 평균 2.26(SD=.4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위험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는 평균 2.58(SD=.60),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는 평균 2.39(SD=.70),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는 평균 2.19(SD=.73),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는 평균 2.16(SD=.66),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는 평균 2.00(SD=.76)의 순으로 나타났다.



1)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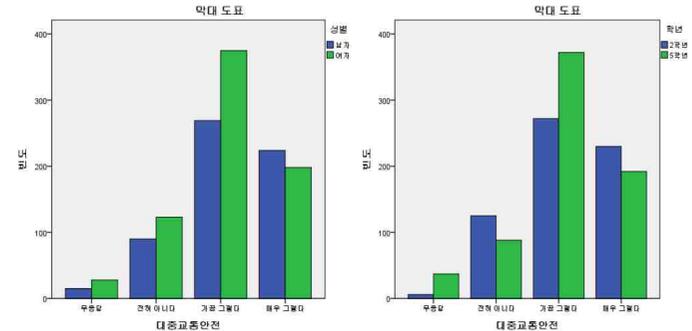
<표 IV-39> 초등학교가 평가한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90(6.8)	123(9.3)	213(16.1)	125(9.5)	88(6.7)	213(16.1)
가끔 그렇다	269(20.3)	375(28.4)	644(48.7)	272(20.6)	372(28.1)	644(48.7)
매우 그렇다	224(16.9)	198(15.0)	422(31.9)	230(17.4)	192(14.5)	422(31.9)
무응답	15(1.1)	28(2.1)	43(3.3)	6(0.5)	37(2.8)	43(3.3)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교 644명(48.7%)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75명(28.4%)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69명(20.3%)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372명(28.1%)이 '가끔 그렇다', 2학년 272명(20.6%)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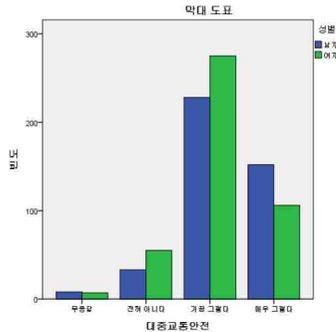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40> 중학교가 평가한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33(3.8)	55(6.4)	88(10.2)
가끔 그렇다	228(26.4)	275(31.8)	503(58.2)
매우 그렇다	152(17.6)	106(12.3)	258(29.9)
무응답	8(0.9)	7(0.8)	15(1.7)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4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생 503명(58.2%)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75명(31.8%)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28명(26.4%)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및 해석
제 IV 장
조사결과 및 해석

2)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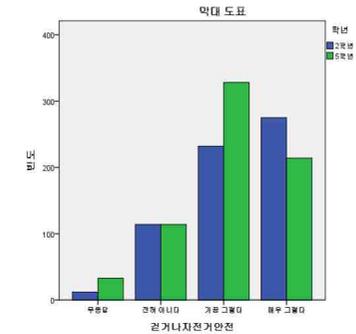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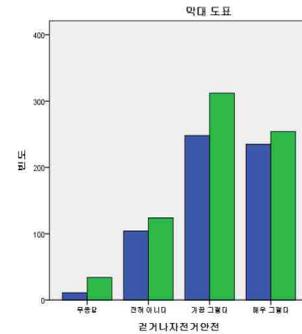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41〉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04(7.9)	124(9.4)	228(17.2)	114(8.6)	114(8.6)	228(17.2)
가끔 그렇다	248(18.8)	312(23.6)	560(42.4)	232(17.5)	328(24.8)	560(42.4)
매우 그렇다	235(17.8)	254(19.2)	489(37.0)	275(20.8)	214(16.2)	489(37.0)
무응답	11(0.8)	34(2.6)	45(3.4)	12(0.9)	33(2.5)	45(3.4)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생 560명(42.4%)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12명(23.6%)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48명(18.8%)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328명(24.8%)이 ‘가끔 그렇다’, 2학년 275명(20.8%)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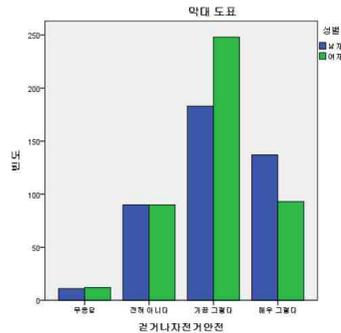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42>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90(10.4)	90(10.4)	180(20.8)
가끔 그렇다	183(21.2)	248(28.7)	431(49.9)
매우 그렇다	137(15.9)	93(10.8)	230(26.6)
무응답	11(1.3)	12(1.4)	23(2.7)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31명(49.9%)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48명(28.7%)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183명(21.2%)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나는 위협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나는 위협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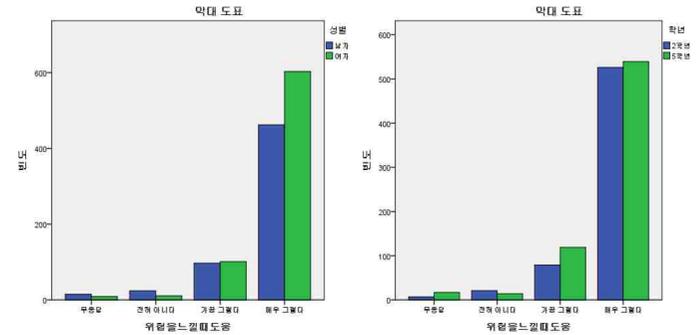
<표 IV-43>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나는 위협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24(1.8)	11(0.8)	35(2.6)	21(1.6)	14(1.1)	35(2.60)
가끔 그렇다	97(7.3)	101(7.6)	198(15.0)	79(6.0)	119(9.0)	198(15.0)
매우 그렇다	462(34.9)	603(45.6)	1,065(80.6)	526(39.8)	539(40.8)	1,065(80.6)
무응답	15(1.1)	9(0.7)	24(1.8)	7(0.5)	17(1.3)	24(1.8)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나는 위협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생 1,065명(80.6%)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603명(45.6%)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462명(34.9%)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539명(40.8%)이 ‘매우 그렇다’, 2학년 526명(39.8%)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및 해석
제 IV 장
조사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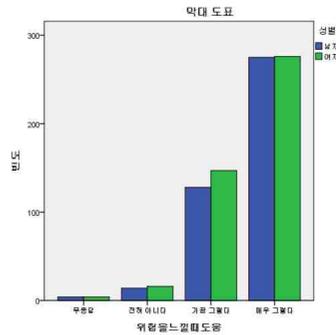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44>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위협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4(1.6)	16(1.9)	30(3.5)
가끔 그렇다	128(14.8)	147(17.0)	275(31.8)
매우 그렇다	275(31.8)	276(31.8)	551(63.8)
무응답	4(0.5)	4(0.9)	8(0.9)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위협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생 551명(63.8%)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76명(31.8%)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75명(31.8%)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

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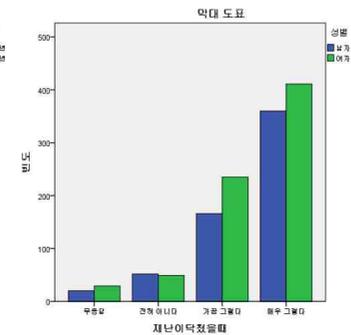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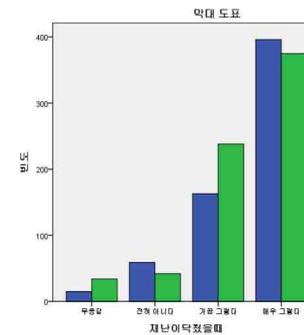
<표 IV-45>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52(3.9)	49(3.7)	101(7.6)	59(4.5)	42(3.2)	101(7.6)
가끔 그렇다	166(12.6)	235(17.8)	401(30.3)	163(12.3)	238(18.0)	401(30.3)
매우 그렇다	360(27.2)	411(31.1)	771(58.3)	396(30.0)	375(28.4)	771(58.3)
무응답	20(1.5)	29(2.2)	49(3.7)	15(1.1)	34(2.6)	49(3.7)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771명(58.3%)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11명(31.1%)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60명(27.2%)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396명(30.0%)이 ‘매우 그렇다’, 5학년 375명(28.4%)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및 해석
제 IV 장
조사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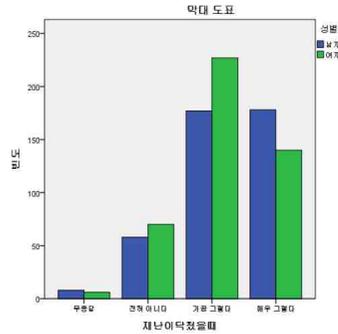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46>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58(6.7)	70(8.1)	128(14.8)
가끔 그렇다	177(20.5)	227(26.3)	404(46.8)
매우 그렇다	178(20.6)	140(16.2)	318(36.8)
무응답	8(0.9)	6(0.7)	14(1.6)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04명(46.8%)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27명(26.3%)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178명(20.6%)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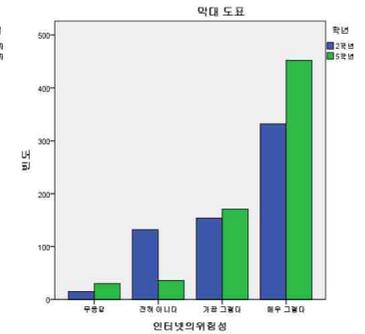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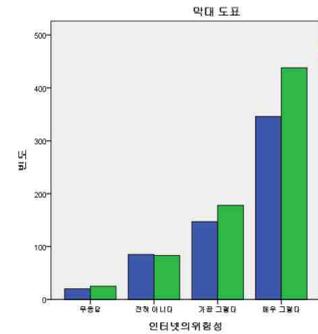
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표 IV-47>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85(6.4)	83(6.3)	168(12.7)	132(10.0)	36(2.7)	168(12.7)
가끔 그렇다	147(11.1)	178(13.5)	325(24.6)	154(11.6)	171(12.9)	325(24.6)
매우 그렇다	346(26.2)	438(33.1)	784(59.3)	332(25.1)	452(34.2)	784(59.3)
무응답	20(1.5)	25(1.9)	45(3.4)	15(1.1)	30(2.3)	45(3.4)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784명(59.3%)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38명(33.1%)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46명(26.2%)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452명(34.2%)이 ‘매우 그렇다’, 2학년 332명(25.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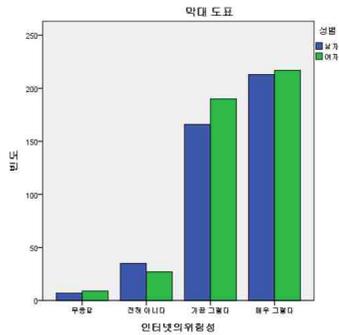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48>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35(4.1)	27(3.1)	62(7.2)
가끔 그렇다	166(19.2)	190(22.0)	356(41.2)
매우 그렇다	213(24.7)	217(25.1)	430(49.8)
무응답	7(0.8)	9(1.0)	16(1.9)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30명(49.8%)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17명(25.1%)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13명(24.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건강과 위생 및 나의 건강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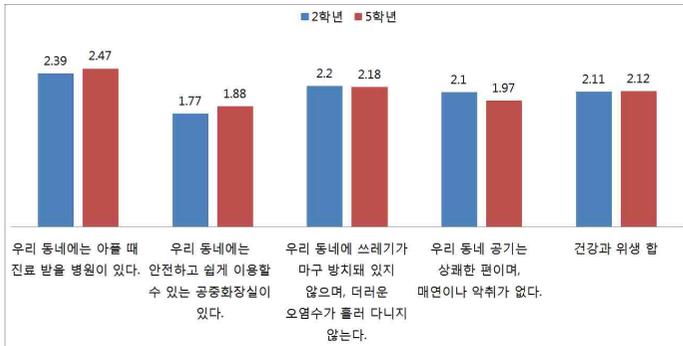
건강과 위생 및 나의 건강 결과를 학생의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IV-49> 초등학생이 평가한 건강과 위생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2	598	2.39	.87	-1.67
	5	724	2.47	.84	
우리 동네에는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2	598	1.77	.90	-2.28
	5	724	1.88	.92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	2	598	2.20	.84	.45
	5	724	2.18	.86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	2	598	2.10	.80	2.97
	5	724	1.97	.83	
건강과 위생 합	2	598	2.11	.54	-.31
	5	724	2.12	.55	

※3점 만점

표 IV-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건강과 위생 합을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2학년은 평균 2.11(SD=.54), 5학년은 평균 2.12(SD=.5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3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우리 동네에는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 전체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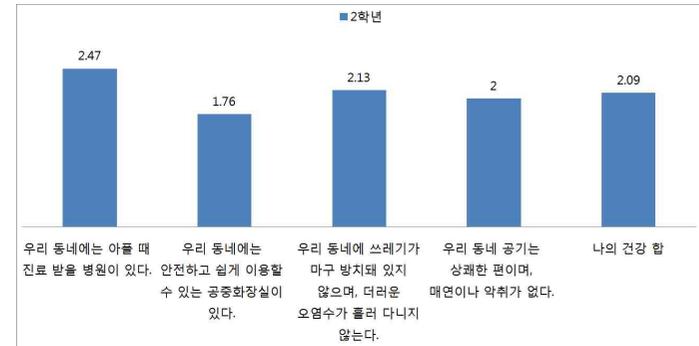


〈표 IV-50〉 중학생이 평가한 나의 건강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2	864	2.47	.77
우리 동네에는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2	864	1.76	.80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	2	864	2.13	.76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	2	864	2.00	.73
나의 건강 합	2	864	2.09	.51

※3점 만점

표 IV-5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의 건강 합을 살펴본 결과, 평균 2.09(SD=.5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는 평균 2.47(SD=.77),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는 평균 2.13(SD=.76),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는 평균 2.00(SD=.73), ‘우리 동네에는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평균 1.76(SD=.80)의 순으로 나타났다.



1)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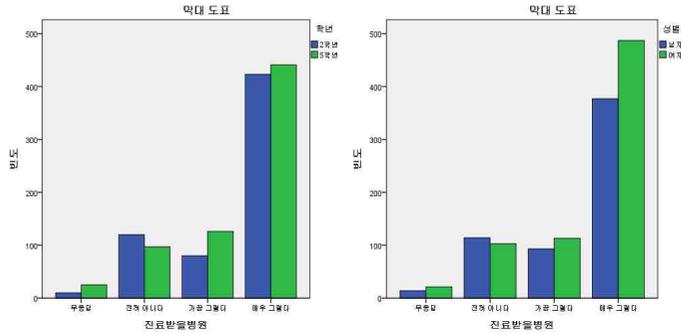
〈표 IV-51〉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14(8.6)	103(7.8)	217(16.4)	120(9.1)	97(7.3)	217(16.4)
가끔 그렇다	93(7.0)	113(8.5)	206(15.6)	80(6.1)	126(9.5)	206(15.6)
매우 그렇다	377(28.5)	487(36.8)	864(65.4)	423(32.0)	441(33.4)	864(65.4)
무응답	14(1.1)	21(1.6)	35(2.6)	10(0.8)	25(1.9)	35(2.6)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864명(65.4%)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87명(36.8%)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77명(28.5%)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441명(33.4%)이 ‘매우 그렇다’, 2학년 423명(32.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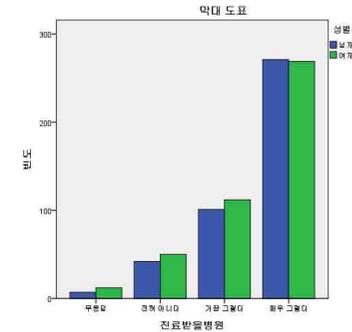
<표 IV-52>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42(4.9)	50(5.8)	92(10.6)
가끔 그렇다	101(11.7)	112(13.0)	213(24.7)
매우 그렇다	271(31.4)	269(31.1)	540(62.5)
무응답	7(0.8)	12(1.4)	19(2.2)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생 540명(62.5%)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

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271명(31.4%)이 ‘매우 그렇다’, 여학생 269명(31.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우리 동네에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우리 동네에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표 IV-53>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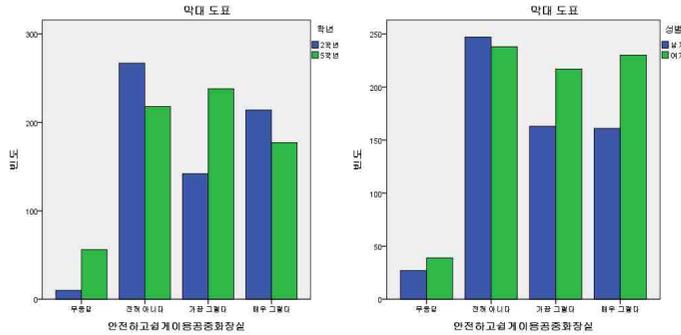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247(18.7)	238(18.0)	485(36.7)	267(20.2)	218(16.5)	485(36.7)
가끔 그렇다	163(12.3)	217(16.4)	380(28.7)	142(10.7)	238(18.0)	380(28.7)
매우 그렇다	161(12.2)	230(17.4)	391(29.6)	214(16.2)	177(13.4)	391(29.6)
무응답	27(2.0)	39(3.0)	66(5.0)	10(0.8)	56(4.2)	66(5.0)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생 485명(36.7%)이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247명(18.7%)이 '전혀 아니다', 여학생 238명(18.0%)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267명(20.2%)이 '전혀 아니다', 5학년 218명(16.5%)이 '전혀 아니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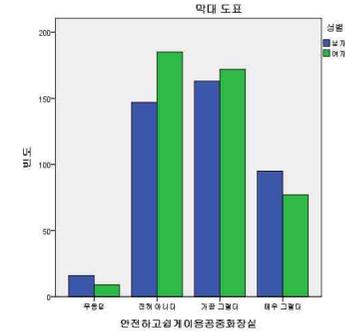
<표 IV-54>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47(17.0)	185(21.4)	332(38.4)
가끔 그렇다	163(18.9)	172(19.9)	335(38.8)
매우 그렇다	95(11.0)	77(8.9)	172(19.9)
무응답	16(1.9)	9(1.0)	25(2.9)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5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중학생 335명(38.8%)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185명(21.4%)이 '전혀 아니다', 남학생 163명(18.9%)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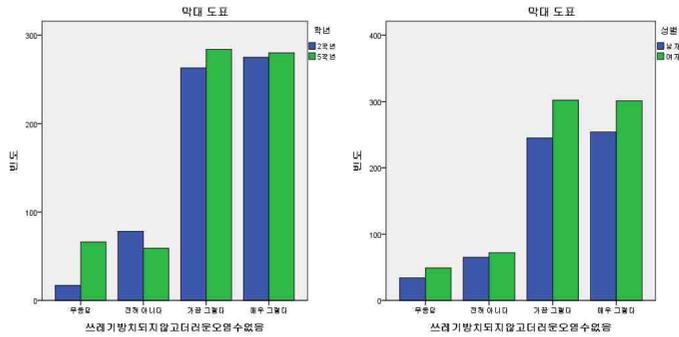
<표 IV-55>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65(4.9)	72(5.4)	137(10.4)	78(5.9)	59(4.5)	137(10.4)
가끔 그렇다	245(18.5)	302(22.8)	547(41.4)	263(19.9)	284(21.5)	547(41.4)
매우 그렇다	254(19.2)	301(22.8)	555(42.0)	275(20.8)	280(21.2)	555(42.0)
무응답	34(2.6)	49(3.7)	83(6.3)	17(1.3)	66(5.0)	83(6.3)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5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생 555명(42.0%)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01명(22.8%)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54명(19.2%)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280명(21.2%)이 ‘매우 그렇다’, 2학년 275명(20.8%)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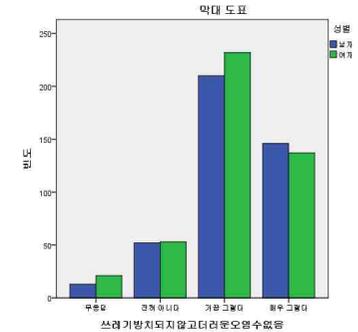
<표 IV-56>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52(6.0)	53(6.1)	105(12.2)
가끔 그렇다	210(24.3)	232(26.9)	442(51.2)
매우 그렇다	146(16.9)	137(15.9)	283(32.8)
무응답	13(1.5)	21(2.4)	34(3.9)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5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마구 방

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42명(51.2%)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32명(26.9%)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10명(24.3%)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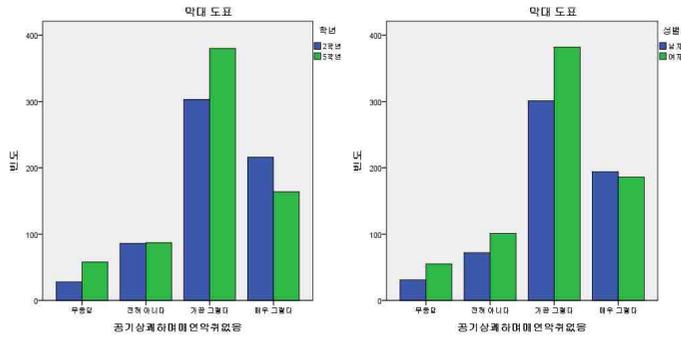
<표 IV-57>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72(5.4)	101(7.6)	173(13.1)	86(6.5)	87(6.6)	173(13.1)
가끔 그렇다	301(22.8)	382(28.9)	683(51.7)	303(22.9)	380(28.7)	683(51.7)
매우 그렇다	194(14.7)	186(14.1)	380(28.7)	216(16.3)	164(12.4)	380(28.7)
무응답	31(2.3)	55(4.2)	86(6.5)	28(2.1)	58(4.4)	86(6.5)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5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생 683명(51.7%)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82명(28.9%)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301명(22.8%)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380명(28.7%)이 ‘가끔 그렇다’, 2학년 303명(22.9%)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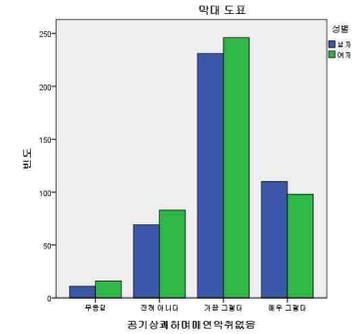
〈표 IV-58〉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69(8.0)	83(9.6)	152(17.6)
가끔 그렇다	231(26.7)	246(28.5)	477(55.2)
매우 그렇다	110(12.7)	98(11.3)	208(24.1)
무응답	11(1.3)	16(1.9)	27(3.1)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5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

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77명(55.2%)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46명(28.5%)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31명(26.7%)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교육 결과 조사 결과

교육 결과를 학생의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IV-59〉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교육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
1	나는 학교에 다니다.	2	633	2.97	.26	.87
		5	689	2.96	.27	
2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2	633	2.45	.77	3.50*
		5	689	2.38	.79	
3	나는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을 충분히 사용한다.	2	633	2.78	.50	-3.10***
		5	689	2.84	.44	
4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2	633	2.58	.67	1.54
		5	689	2.58	.72	
5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2	633	2.55	.65	-1.45*
		5	689	2.67	.60	
6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2	633	2.58	.67	2.80**
		5	689	2.57	.67	
7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2	633	1.85	.90	-1.14
		5	689	2.04	.94	
8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2	633	2.59	.68	-3.01***
		5	689	2.61	.66	
9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2	633	2.80	.53	.95
		5	689	2.75	.57	
10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	2	633	2.78	.58	-1.85***
		5	689	2.82	.52	
11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2	633	2.30	.78	1.61
		5	689	2.25	.78	
12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2	633	2.16	.90	1.44
		5	689	2.14	.89	
13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	2	633	2.50	.84	2.17**
		5	689	2.43	.92	

14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	633	2.35	.97	.00
		5	689	2.21	1.0	
15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2	633	2.77	.59	1.82***
		5	689	2.73	.66	
16	우리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633	2.23	.92	2.32
		5	689	2.11	.95	
17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 할 수 있다.	2	633	2.07	.83	.11
		5	689	2.04	.97	
18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2	633	2.56	.84	1.04
		5	689	2.43	.96	
초등 교육 합		2	633	2.49	.37	2.96
		5	689	2.47	.3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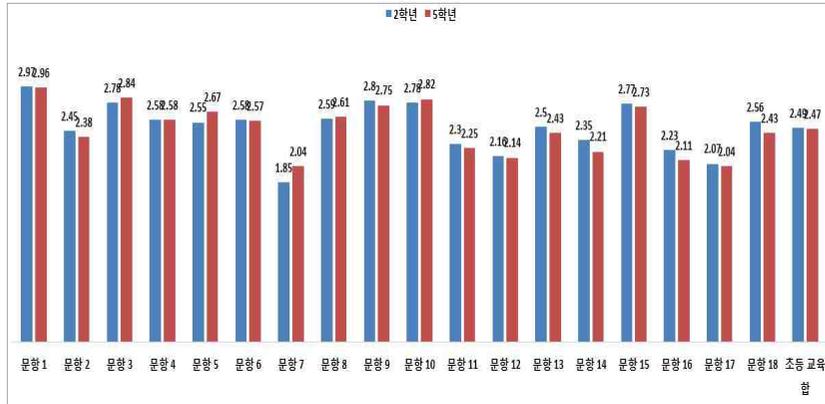
※3점 만점

표 IV-5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교육 합을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2학년은 평균 2.49(SD=.37), 5학년은 평균 2.47(SD=.3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2.9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50, p<.05$). ‘나는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 충분히 사용한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10, p<.001$).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45, p<.05$).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0, p<.01$).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1, p<.001$).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85, p<.001$).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두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7, p<.01$).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82, p<.001$).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학교에 다니다’,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



을 기울여 주신다’,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우리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 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0〉 중학생이 평가한 교육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학교에 다니다.	2	864	2.94	.31
2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2	864	2.32	.78
3 나는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이 충분히 사용한다.	2	864	2.65	.58
4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2	864	2.31	.75
5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2	864	2.35	.65
6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2	864	2.30	.68
7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	2	864	1.87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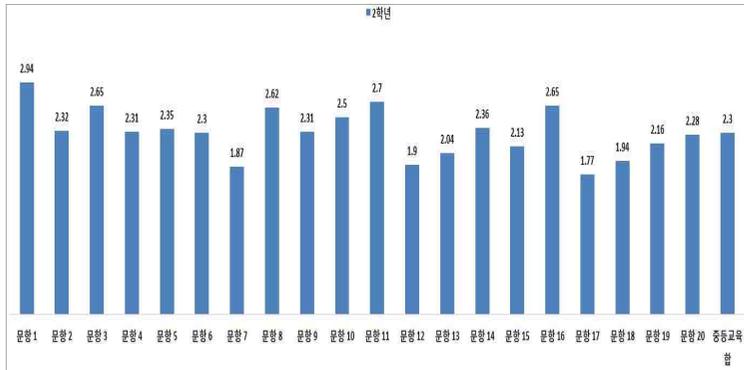
	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8	학교에서 나는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2	864	2.62	.59
9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2	864	2.31	.73
10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2	864	2.50	.66
11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	2	864	2.70	.56
12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2	864	1.90	.76
13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2	864	2.04	.85
14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	2	864	2.36	.83
15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	864	2.13	.88
16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2	864	2.65	.60
17	우리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864	1.77	.78
18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 할 수 있다.	2	864	1.94	.76
19	우리 학교와 동네에 청소년의 장래 직업에 관련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2	864	2.16	.80
20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2	864	2.28	.87
	중등 교육 합	2	864	2.30	.42

※3점 만점

조사결과 및 해석
제 IV 장
제 IV 장
조사결과 및 해석

표 IV-6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교육 합을 살펴본 결과, 평균 2.30(SD=.4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학교에 다니다’는 평균 2.94(SD=.31),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평균 2.70(SD=.56),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2.65(SD=.60), ‘나는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用品을 충분히 사용한

다' 는 평균 2.65(SD=.58), '학교에서 나는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는 평균 2.62(SD=.59),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는 평균 2.50(SD=.66),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 는 평균 2.36(SD=.83),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평균 2.35(SD=.65),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평균 2.32(SD=.78),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와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는 평균 2.31(SD=.73),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는 평균 2.30(SD=.68),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는 평균 2.28(SD=.87), '우리 학교와 동네에 청소년의 장애 직업에 관련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는 평균 2.16(SD=.80),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는 평균 2.13(SD=.88),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는 평균 2.04(SD=.85),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 할 수 있다' 는 평균 1.94(SD=.76),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는 평균 1.90(SD=.76),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는 평균 1.87(SD=.85), '우리 학교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 는 평균 1.77(SD=.78)의 순으로 나타났다.



1) 나는 학교에 다닌다.

'나는 학교에 다닌다' 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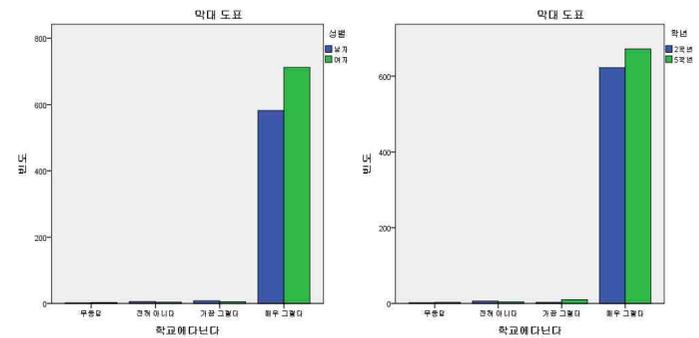
<표 IV-61> 초등학교 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 다닌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6(0.5)	4(0.3)	10(0.8)	6(0.5)	4(0.3)	10(0.8)
가끔 그렇다	8(0.6)	5(0.4)	13(1.0)	3(0.2)	10(0.8)	13(0.8)
매우 그렇다	582(44.0)	712(53.9)	1294(97.9)	622(47.0)	672(50.8)	1294(97.9)
무응답	2(0.2)	3(0.2)	5(0.4)	2(0.2)	3(0.2)	5(0.4)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6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 다닌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 1294명(97.9%)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712명(53.9%)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582명(44.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672명(50.8%)이 '매우 그렇다', 2학년 622명(47.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및 해석
제 IV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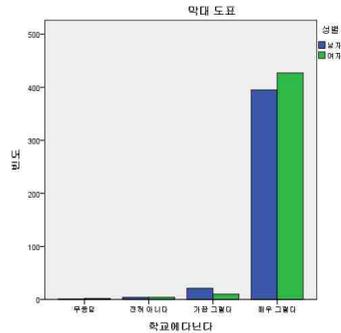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62>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 다닌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4(0.5)	4(0.5)	8(0.9)
가끔 그렇다	21(2.4)	10(1.2)	31(3.6)
매우 그렇다	395(45.7)	427(49.4)	822(95.1)
무응답	1(0.1)	2(0.2)	3(0.3)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6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 다닌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중학생 822명(95.1%)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27명(49.4%)이 ‘매우 그렇다’, 여학생 395명(45.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대우 받는다.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대우 받는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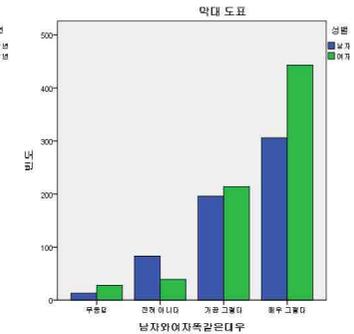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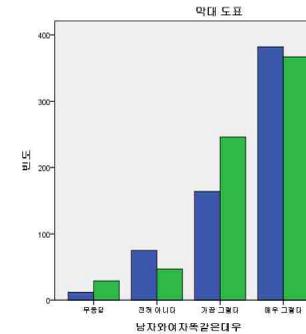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63> 초등학생이 평가한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대우 받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83(6.3)	39(3.0)	122(9.2)	75(5.7)	47(3.6)	122(9.2)
가끔 그렇다	196(14.8)	214(16.2)	410(31.0)	164(12.4)	246(18.6)	410(31.0)
매우 그렇다	306(23.1)	443(33.5)	749(56.7)	382(28.9)	367(27.8)	749(56.7)
무응답	13(1.0)	28(2.1)	41(3.1)	12(0.9)	29(2.2)	41(3.1)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6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대우 받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749명(56.7%)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43명(33.5%)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06명(23.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382명(28.9%)이 ‘매우 그렇다’, 5학년 367명(27.8%)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및 해석
제 IV 장
조사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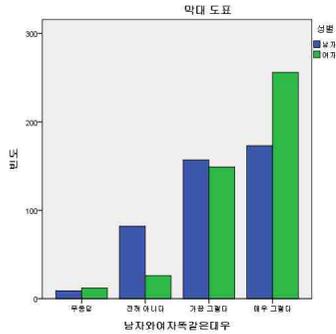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64〉 중학생이 평가한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대우 받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82(9.5)	26(3.0)	108(12.5)
가끔 그렇다	157(18.2)	149(17.2)	306(35.4)
매우 그렇다	173(20.0)	256(29.6)	429(49.7)
무응답	9(1.0)	12(1.4)	21(2.4)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6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대우 받는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29명(49.7%)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56명(29.6%)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173명(20.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을 충분히 사용한다.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用品을 충분히 사용한다’의 결과를 학

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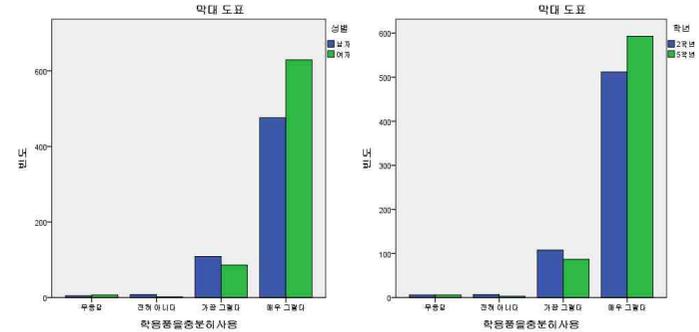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65〉 초등학생이 평가한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用品을 충분히 사용한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8(0.6)	2(0.2)	10(0.8)	7(0.5)	3(0.2)	10(0.8)
가끔 그렇다	109(8.2)	86(6.5)	195(14.8)	108(8.2)	87(6.6)	195(14.8)
매우 그렇다	476(36.0)	629(47.6)	1105(83.6)	512(38.7)	593(44.9)	1105(83.6)
무응답	5(0.4)	7(0.5)	12(0.9)	6(0.5)	6(0.5)	12(0.9)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6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用品을 충분히 사용한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생 1105명(83.6%)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629명(47.6%)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476명(36.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593명(44.9%)이 ‘매우 그렇다’, 2학년 512명(38.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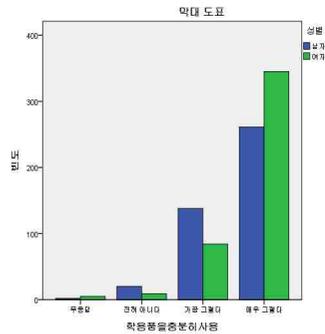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66> 중학생이 평가한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을 충분히 사용한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20(2.3)	9(1.0)	29(3.4)
가끔 그렇다	138(16.0)	84(9.7)	222(25.7)
매우 그렇다	261(30.2)	345(33.9)	606(70.1)
무응답	2(0.2)	5(0.6)	7(0.8)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6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用品을 충분히 사용한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생 606명(70.1%)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45명(33.9%)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61명(30.2%)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의 결과를 학

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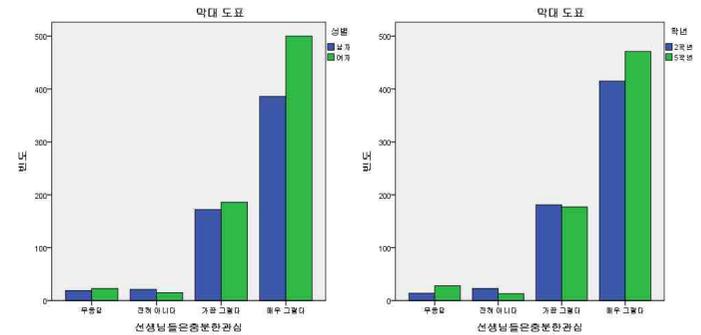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67> 초등학생이 평가한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21(1.6)	15(1.1)	36(2.7)	23(1.7)	13(1.0)	36(2.7)
가끔 그렇다	172(13.0)	186(14.1)	358(27.1)	181(13.7)	177(13.4)	358(27.1)
매우 그렇다	386(29.2)	500(37.8)	886(67.0)	415(31.4)	471(35.6)	886(67.0)
무응답	19(1.4)	23(1.7)	42(3.2)	14(1.1)	28(2.1)	42(3.2)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6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886명(67.0%)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500명(37.8%)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86명(29.2%)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471명(35.6%)이 ‘매우 그렇다’, 2학년 415명(31.4%)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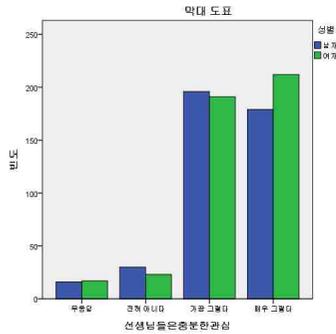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68> 중학생이 평가한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30(3.5)	23(2.7)	53(6.1)
가끔 그렇다	196(22.7)	191(22.1)	387(44.8)
매우 그렇다	179(20.7)	212(24.5)	391(45.3)
무응답	16(1.9)	17(2.0)	33(3.8)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6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391명(45.3%)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12명(24.5%)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196명(22.7%)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

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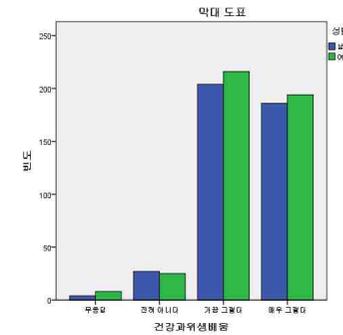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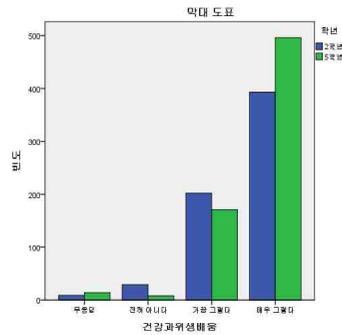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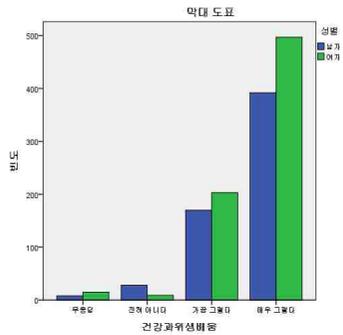
<표 IV-69>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28(2.1)	9(0.7)	37(2.8)	29(2.2)	8(0.6)	37(2.8)
가끔 그렇다	170(12.9)	203(15.4)	373(28.2)	202(15.3)	171(12.9)	373(28.2)
매우 그렇다	392(29.7)	497(37.6)	889(67.2)	393(29.7)	496(37.5)	889(67.2)
무응답	8(0.6)	15(1.1)	23(1.7)	9(0.7)	14(1.1)	23(1.7)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6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889명(67.2%)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97명(37.6%)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92명(29.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496명(37.5%)이 ‘매우 그렇다’, 2학년 393명(29.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표 IV-70>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27(3.1)	25(2.9)	52(6.0)
가끔 그렇다	204(23.6)	216(25.0)	420(48.6)
매우 그렇다	186(21.5)	194(22.5)	380(44.0)
무응답	4(0.5)	8(0.9)	12(1.4)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7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20명(48.6%)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16명(25.0%)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04명(23.6%)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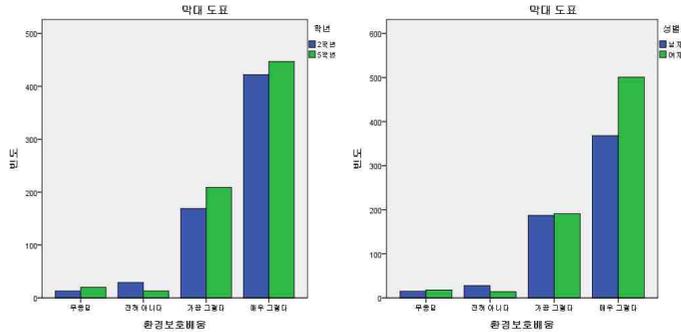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71>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28(2.1)	14(1.1)	42(3.2)	29(2.2)	13(1.0)	42(3.2)
가끔 그렇다	187(14.1)	191(14.4)	378(28.6)	169(12.8)	209(15.8)	378(28.6)
매우 그렇다	368(27.8)	501(37.9)	869(65.7)	422(31.9)	447(33.8)	869(65.7)
무응답	15(1.1)	18(1.4)	33(2.5)	13(1.0)	20(1.5)	33(2.5)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7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869명(65.7%)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501명(37.9%)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68명(27.8%)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447명(33.8%)이 ‘매우 그렇다’, 2학년 422명(31.9%)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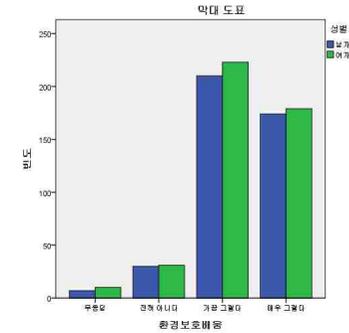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72>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30(3.5)	31(3.6)	61(7.1)
가끔 그렇다	210(24.3)	223(25.8)	433(50.1)
매우 그렇다	174(20.1)	179(20.7)	353(40.9)
무응답	7(0.8)	10(1.2)	17(2.0)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7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의 중학생 433명(50.1%)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23명(25.8%)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10명(24.3%)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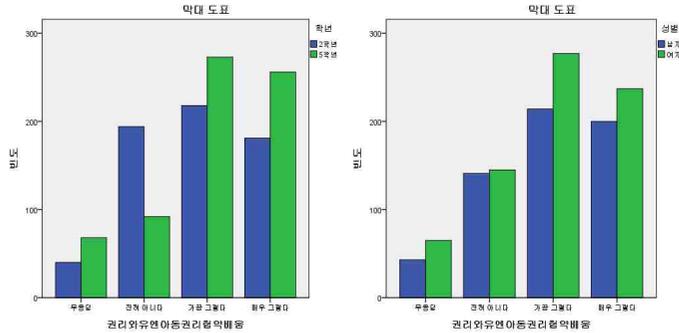
<표 IV-73>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41(10.7)	145(11.0)	286(21.6)	194(14.7)	92(7.0)	286(21.6)
가끔 그렇다	214(16.2)	277(21.0)	491(37.1)	218(16.5)	273(20.7)	491(37.1)
매우 그렇다	200(15.1)	237(17.9)	437(33.1)	181(13.7)	256(19.4)	437(33.1)
무응답	43(3.3)	65(4.9)	108(8.2)	40(3.0)	68(5.1)	108(8.2)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7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생 491명(37.1%)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77명(21.0%)이 ‘가끔 그

렇다’, 남학생 214명(16.2%)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273명(20.7%)이 ‘가끔 그렇다’, 2학년 218명(16.5%)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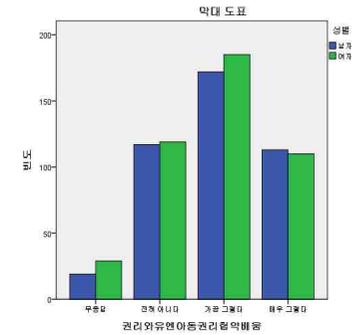
〈표 IV-74〉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17(13.5)	119(13.8)	236(27.3)
가끔 그렇다	172(19.9)	185(21.4)	357(41.3)
매우 그렇다	113(13.1)	110(12.7)	223(25.8)
무응답	19(2.2)	29(3.4)	48(5.6)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7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중학생 357명(41.3%)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185명(21.4%)이 ‘가끔 그렇다’, 남

학생 172명(19.9%)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8) 학교에서 나는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학교에서 나는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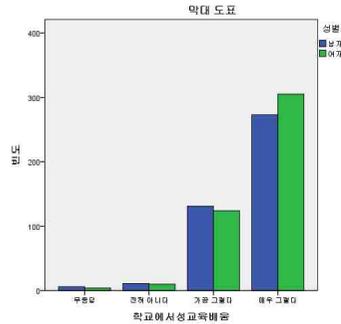
〈표 IV-75〉 중학생이 평가한 ‘학교에서 나는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1(1.3)	10(1.2)	21(2.4)
가끔 그렇다	131(15.2)	124(14.4)	255(29.5)
매우 그렇다	273(31.6)	305(35.3)	578(66.9)
무응답	6(0.7)	4(0.5)	10(1.2)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7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학교에서 나는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생 578명(66.9%)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05명(35.3%)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73명(31.6%)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9)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의 결과를 성별과 학생의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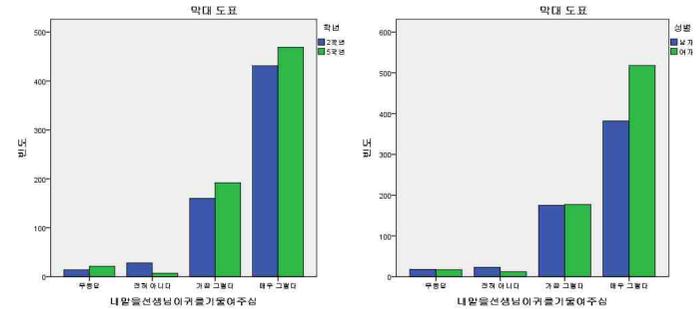
<표 IV-76> 초등학교 학생이 평가한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23(1.7)	12(0.9)	35(2.6)	28(2.1)	7(0.5)	35(2.6)
가끔 그렇다	175(13.2)	177(13.4)	352(26.6)	160(12.1)	192(14.5)	352(26.6)
매우 그렇다	382(28.9)	518(39.2)	900(68.1)	431(32.6)	469(35.5)	900(68.1)
무응답	18(1.4)	17(1.3)	35(2.6)	14(1.1)	21(1.6)	35(2.6)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7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이 평가한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학생 900명(68.1%)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518명(39.2%)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82명(28.9%)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469명(35.5%)이 ‘매우 그렇다’, 2학년 431명(32.6%)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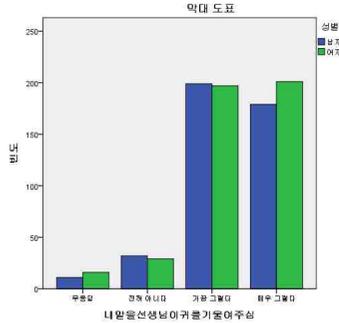
<표 IV-77> 초등학교 학생이 평가한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32(3.7)	29(3.4)	61(7.1)
가끔 그렇다	199(23.0)	197(22.8)	396(45.8)
매우 그렇다	179(20.7)	201(23.3)	380(44.0)
무응답	11(1.3)	16(1.9)	27(3.1)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7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 학생이 평가한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396명(45.8%)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01명(23.3%)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199명(23.0%)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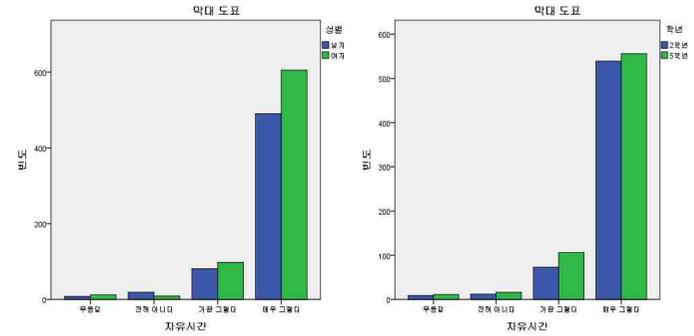
〈표 IV-78〉 초등학교가 평가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9(1.4)	9(0.7)	28(2.1)	12(0.9)	16(1.2)	28(2.1)
가끔 그렇다	81(6.1)	98(7.4)	179(13.5)	73(5.5)	106(8.0)	179(13.5)
매우 그렇다	490(37.1)	605(45.8)	1,095(82.8)	539(40.8)	556(42.1)	1,095(82.8)
무응답	8(0.6)	12(0.9)	20(1.5)	9(0.7)	11(0.8)	20(1.5)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7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1095명(82.8%)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605명(45.8%)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490명(37.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556명(42.1%)이 ‘매우 그렇다’, 2학년 539명(40.8%)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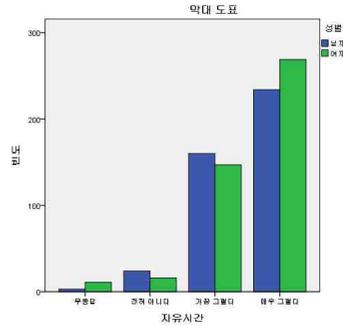
〈표 IV-79〉 중학교가 평가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24(2.8)	16(1.9)	40(4.6)
가끔 그렇다	160(18.5)	147(17.0)	307(35.5)
매우 그렇다	234(27.1)	269(31.1)	503(58.2)
무응답	3(0.3)	11(1.3)	14(1.6)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7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가 평가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생 503명(58.2%)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69명(31.1%)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34명(27.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1)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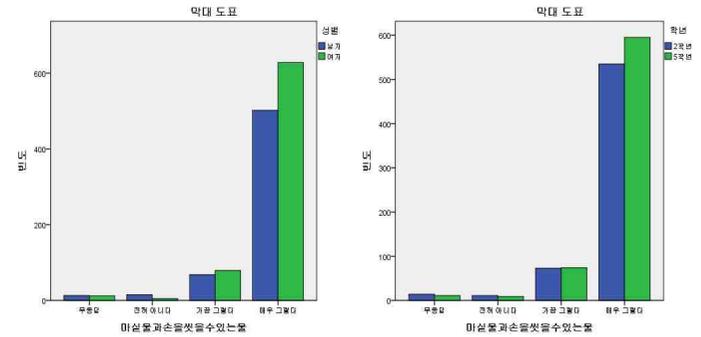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80>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5(1.1)	5(0.4)	20(1.5)	11(0.8)	9(0.7)	20(1.5)
가끔 그렇다	68(5.1)	79(6.0)	147(11.1)	73(5.5)	74(5.6)	147(11.1)
매우 그렇다	502(38.0)	628(47.5)	1,130(85.5)	535(40.5)	595(45.0)	1,130(85.5)
무응답	13(1.0)	12(0.9)	25(1.9)	14(1.1)	11(0.8)	25(1.9)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8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생 1,130명(85.5%)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628명(47.5%)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502명(38.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595명(45.0%)이 '매우 그렇다', 2학년 535명(40.5%)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표 IV-81>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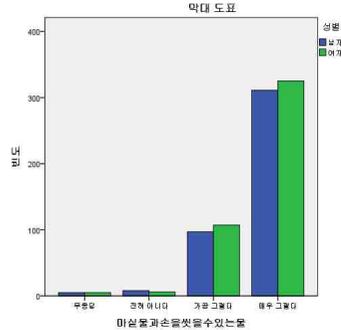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8(0.9)	6(0.7)	14(1.6)
가끔 그렇다	97(11.2)	107(12.4)	204(23.6)
매우 그렇다	311(36.0)	325(37.6)	636(73.6)
무응답	5(0.6)	5(0.6)	10(1.2)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8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생 636명(73.6%)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25명(37.6%)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11명(36.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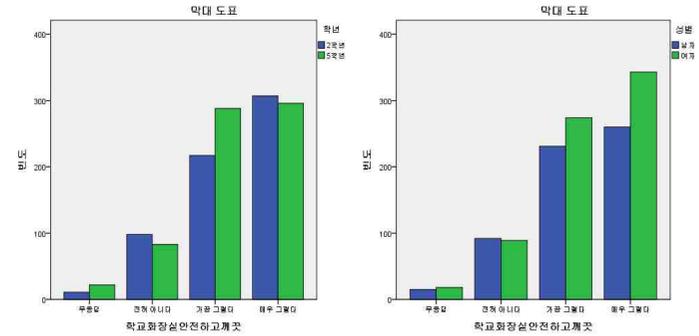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표 IV-82>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92(7.0)	89(6.7)	181(13.7)	98(7.4)	83(6.3)	181(13.7)
가끔 그렇다	231(17.5)	274(20.7)	505(38.2)	217(16.4)	288(21.8)	505(38.2)
매우 그렇다	260(19.7)	343(25.9)	603(45.6)	307(23.2)	296(22.4)	603(45.6)
무응답	15(1.1)	18(1.4)	33(2.5)	11(0.8)	22(1.7)	33(2.5)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8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교생 603명(45.6%)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43명(25.9%)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60명(19.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307명(23.2%)이 '매우 그렇다', 5학년 296명(22.4%)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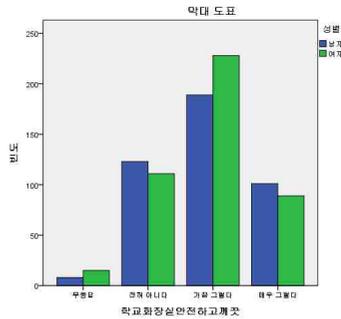
<표 IV-83> 중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23(14.2)	111(12.8)	234(27.1)
가끔 그렇다	189(21.9)	228(26.4)	417(48.3)
매우 그렇다	101(11.7)	89(10.3)	190(22.0)
무응답	8(0.9)	15(1.7)	23(2.7)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8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



수 정도의 중학생 417명(48.3%)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28명(26.4%)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189명(21.9%)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3)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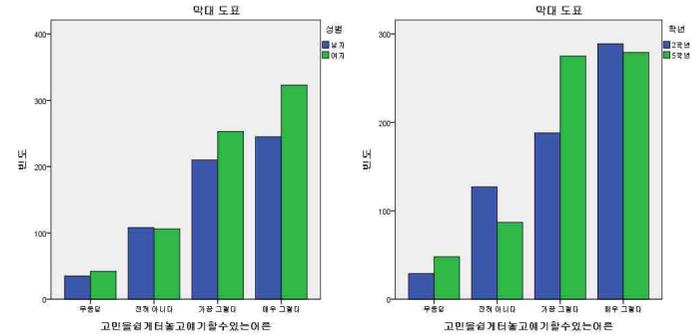
〈표 IV-84〉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08(8.2)	106(8.0)	214(16.2)	127(9.6)	87(6.6)	214(16.2)
가끔 그렇다	210(15.9)	253(19.1)	463(35.0)	188(14.2)	275(20.8)	463(35.0)
매우 그렇다	245(18.5)	323(24.4)	568(43.0)	289(21.9)	279(21.1)	568(43.0)
무응답	35(2.6)	42(3.2)	77(5.8)	29(2.2)	48(3.6)	77(5.8)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8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568명(43.0%)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23명(24.4%)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45명(18.5%)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289명(21.9%)이 ‘매우 그렇다’, 5학년 279명(21.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표 IV-85〉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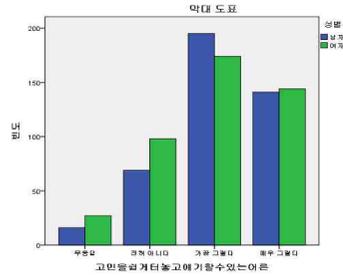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69(8.0)	98(11.3)	167(19.3)
가끔 그렇다	195(22.6)	174(20.1)	369(42.7)
매우 그렇다	141(16.3)	144(16.7)	285(33.0)
무응답	16(1.9)	27(3.1)	43(5.0)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8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



피부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중학생 369명(42.7%)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195명(22.6%)이 ‘가끔 그렇다’, 여학생 174명(20.1%)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4)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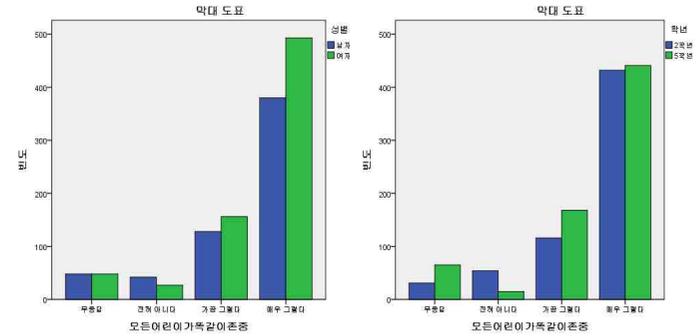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86>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42(3.2)	27(2.0)	69(5.2)	54(4.1)	15(1.1)	69(5.2)
가끔 그렇다	128(9.7)	156(11.8)	284(21.5)	116(8.8)	168(12.7)	284(21.5)
매우 그렇다	380(28.7)	493(37.3)	873(66.0)	432(32.7)	441(33.4)	873(66.0)
무응답	48(3.5)	48(3.6)	96(7.3)	31(2.3)	65(4.9)	96(7.3)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8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873명(66.0%)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93명(37.3%)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80명(28.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441명(33.4%)이 ‘매우 그렇다’, 2학년 432명(32.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표 IV-87>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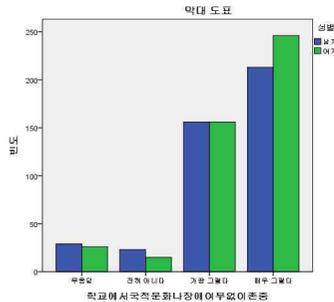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23(2.7)	15(1.7)	38(4.4)
가끔 그렇다	156(18.1)	156(18.1)	312(36.1)
매우 그렇다	213(24.7)	246(28.5)	459(53.1)
무응답	29(3.4)	26(3.0)	55(6.4)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8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59명(53.1%)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46명(28.5%)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13명(24.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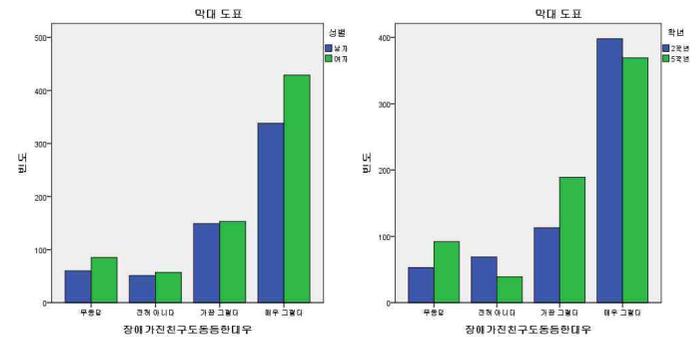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88>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51(3.9)	57(4.3)	108(8.2)	69(5.2)	39(3.0)	108(8.2)
가끔 그렇다	149(11.3)	153(11.6)	302(22.8)	113(8.5)	189(14.3)	302(22.8)
매우 그렇다	338(25.6)	429(32.5)	767(58.0)	398(30.1)	369(27.9)	767(58.0)
무응답	60(4.5)	85(6.4)	145(11.0)	53(4.0)	92(7.0)	145(11.0)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8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767명(58.0%)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29명(32.5%)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38명(25.6%)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398명(30.1%)이 ‘매우 그렇다’, 5학년 369명(27.9%)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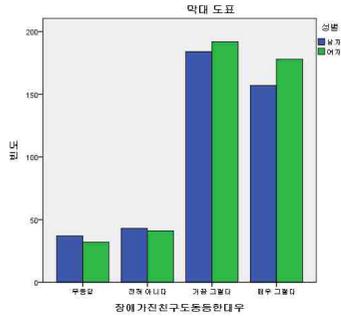
<표 IV-89>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43(5.0)	41(4.7)	84(9.7)
가끔 그렇다	184(21.3)	192(22.2)	376(43.5)
매우 그렇다	157(18.2)	178(20.6)	335(38.8)
무응답	37(4.3)	32(3.7)	69(8.0)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8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중학생 376명(43.5%)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192명(22.2%)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184명(21.3%)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6)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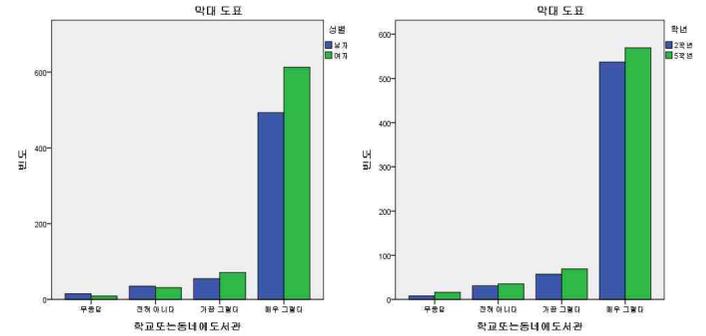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90>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35(2.6)	31(2.3)	66(5.0)	31(2.3)	35(2.6)	66(5.0)
가끔 그렇다	55(4.2)	71(5.4)	126(9.5)	57(4.3)	69(5.2)	126(9.5)
매우 그렇다	493(37.3)	613(46.4)	1,106(83.7)	537(40.6)	569(43.0)	1,106(83.7)
무응답	15(1.1)	9(0.7)	24(1.8)	8(0.6)	16(1.2)	24(1.8)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9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생 1106명(83.7%)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613명(46.4%)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493명(37.3%)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569명(43.0%)이 ‘매우 그렇다’, 2학년 537명(40.6%)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표 IV-91> 중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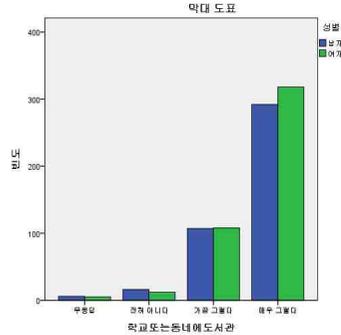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6(1.9)	12(1.4)	28(3.2)
가끔 그렇다	107(12.4)	108(12.5)	215(24.9)
매우 그렇다	292(33.8)	318(36.8)	610(70.6)
무응답	6(0.7)	5(0.6)	11(1.3)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9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생 610명(70.6%)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18명(36.8%)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92명(33.8%)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7) 우리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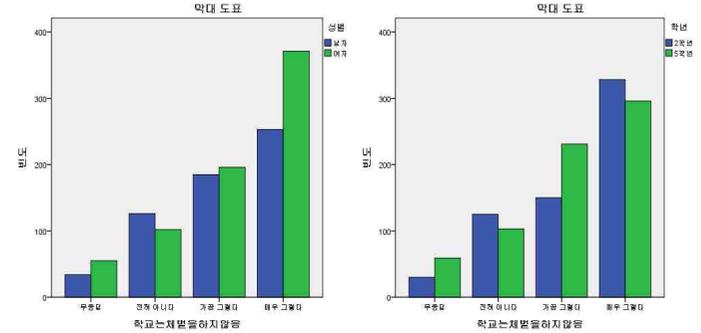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92>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26(9.5)	102(7.7)	228(17.2)	125(9.5)	103(7.8)	228(17.2)
가끔 그렇다	185(14.0)	196(14.8)	381(28.8)	150(11.3)	231(17.5)	381(28.8)
매우 그렇다	253(19.1)	371(28.1)	624(47.2)	328(24.8)	296(22.4)	624(47.2)
무응답	34(2.6)	55(4.2)	89(6.7)	30(2.3)	59(4.5)	89(6.7)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9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교 624명(47.2%)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71명(28.1%)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53명(19.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328명(24.8%)이 '매우 그렇다', 5학년 296명(22.4%)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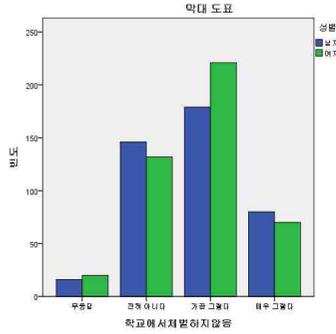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93>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46(16.9)	132(15.3)	278(32.2)
가끔 그렇다	179(20.7)	221(25.6)	400(46.3)
매우 그렇다	80(9.3)	70(8.1)	150(17.4)
무응답	16(1.9)	20(2.3)	36(4.2)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9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교 400명(46.3%)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생 221명(25.6%)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179명(20.7%)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8)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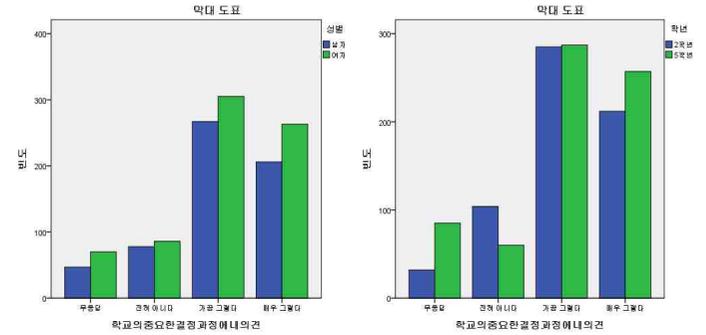
<표 IV-94>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78(5.9)	86(6.5)	164(12.4)	104(7.9)	60(4.5)	164(12.4)
가끔 그렇다	267(20.2)	305(23.1)	572(43.3)	285(21.6)	287(21.7)	572(43.3)
매우 그렇다	206(15.6)	263(19.9)	469(35.5)	212(16.0)	257(19.4)	469(35.5)
무응답	47(3.6)	70(5.3)	117(8.9)	32(2.4)	85(6.4)	117(8.9)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9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생 572명(43.3%)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05명(23.1%)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67명(20.2%)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287명(21.7%)이 ‘가끔 그렇다’, 2학년 285명(21.6%)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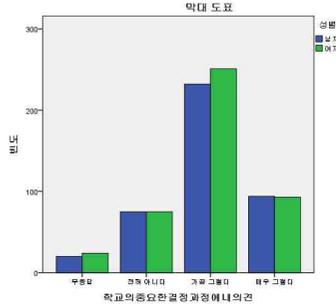
<표 IV-95> 중학교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75(8.7)	75(8.7)	150(17.4)
가끔 그렇다	232(26.9)	251(29.1)	483(55.9)
매우 그렇다	94(10.9)	93(10.8)	187(21.6)
무응답	20(2.3)	24(2.8)	44(5.1)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9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생이 평가한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의 중학생 483명(55.9%)이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

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51명(29.1%)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232명(26.9%)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 우리 학교와 동네에는 청소년의 장래 직업에 관련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학교와 동네에는 청소년의 장래 직업에 관련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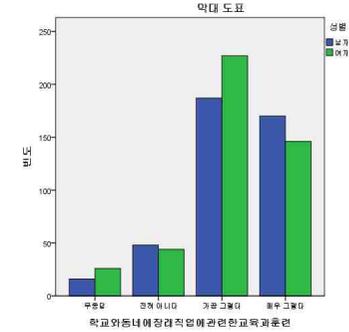
<표 IV-96>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와 동네에는 청소년의 장래 직업에 관련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48(5.6)	44(5.1)	92(10.6)
가끔 그렇다	187(21.6)	227(26.3)	414(47.9)
매우 그렇다	170(19.7)	146(16.9)	316(36.6)
무응답	16(1.9)	26(3.0)	42(4.9)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9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와 동네에는 청소년

의 장래 직업에 관련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14명(47.9%)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27명(26.3%)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187명(21.6%)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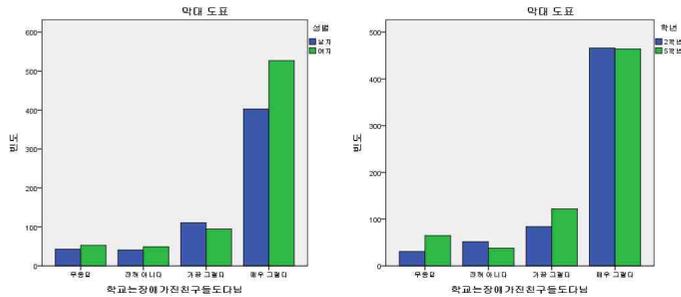
<표 IV-97>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41(3.1)	49(3.7)	90(6.8)	52(3.9)	38(2.9)	90(6.8)
가끔 그렇다	111(8.4)	95(7.2)	206(15.6)	84(6.4)	122(9.2)	206(15.6)
매우 그렇다	403(30.5)	527(39.9)	930(70.3)	466(35.2)	464(35.1)	930(70.3)
무응답	43(3.3)	53(4.0)	96(7.3)	31(2.3)	65(4.9)	96(7.3)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9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930명(70.3%)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527명(39.9%)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403명(30.5%)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466명(35.2%)이 ‘매우 그렇다’, 5학년 464명(35.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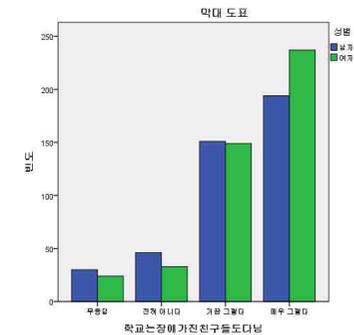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98> 초등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46(5.3)	33(3.8)	79(9.1)
가끔 그렇다	151(17.5)	149(17.2)	300(34.7)
매우 그렇다	194(22.5)	237(27.4)	431(49.9)
무응답	30(3.5)	24(2.8)	54(6.3)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9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가 평가한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정도의 중학생 431명(49.9%)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37명(27.4%)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194명(22.5%)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및 해석
제 IV 장
조사결과 및 해석

7. 나의 사생활 조사 결과

나의 사생활 결과를 학생의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IV-99〉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나의 사생활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2	633	2.89	.43	.03
	5	689	2.89	.47	
나는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	2	633	2.61	.71	-.49
	5	689	2.63	.73	
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2	633	2.81	.49	-1.28*
	5	689	2.85	.51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2	633	2.81	.52	-1.82**
	5	689	2.86	.50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2	633	2.57	.74	-4.01***
	5	689	2.73	.67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다.	2	633	2.64	.72	-1.56*
	5	689	2.70	.72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2	633	2.07	.85	-1.55
	5	689	2.14	.85	
나는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다.	2	633	2.57	.78	-5.46***
	5	689	2.79	.63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2	633	2.34	.88	-2.41*
	5	689	2.46	.88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	2	633	2.52	.83	2.29***
	5	689	2.40	.98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	2	633	2.48	.82	5.80**
	5	689	2.19	.96	
초등 나의 사생활 합	2	633	2.54	.43	-1.10
	5	689	2.57	.46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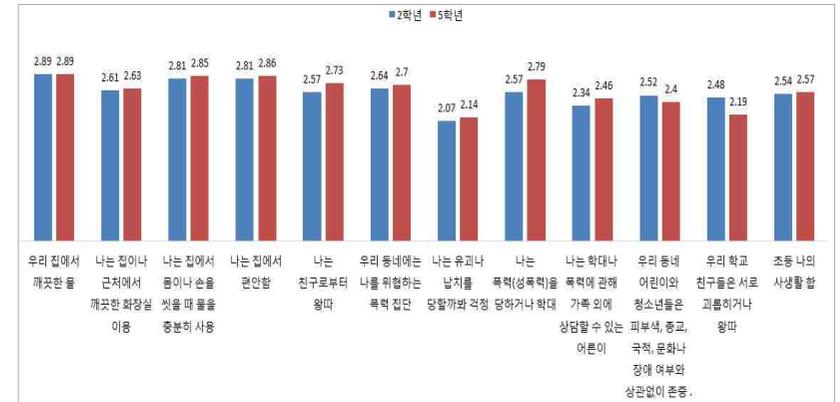
※3점 만점

표 IV-9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나의 사생활 합을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2학년은 평균 2.54(SD=.43), 5학년은 평균 2.57(SD=.46)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1.1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28, p<.05$).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82, p<.01$).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01, p<.001$).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56, p<.05$). ‘나는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46, p<.001$).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5학년이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1, p<.05$).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9, p<.001$).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는 2학년이 5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80, p<.01$).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나는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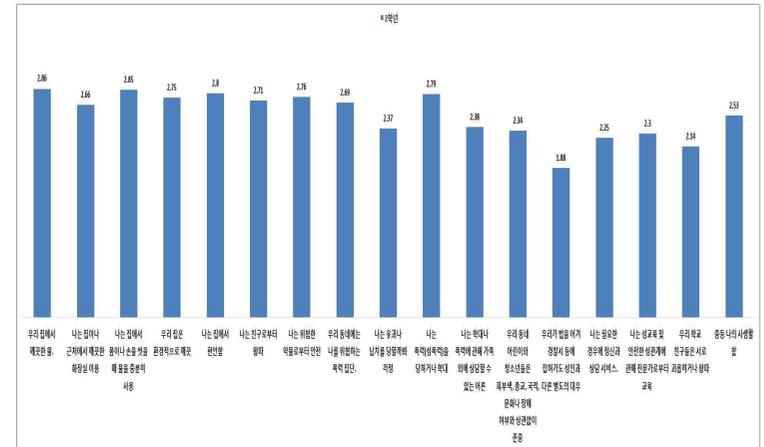
<표 IV-100> 중학생이 평가한 나의 사생활 결과

구분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2	864	2.86	.45
나는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	2	864	2.66	.66
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2	864	2.85	.46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깨끗하다.	2	864	2.75	.54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2	864	2.80	.54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2	864	2.71	.62
나는 위험한 약물로부터 안전하다.	2	864	2.76	.60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다.	2	864	2.69	.67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2	864	2.37	.76
나는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다.	2	864	2.79	.56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2	864	2.38	.79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	2	864	2.34	.84
우리가 법을 어겨 경찰서 등에 잡혀가도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864	1.88	.96
나는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864	2.25	.89
나는 성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을 수 있다.	2	864	2.30	.87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	2	864	2.14	.88
중등 나의 사생활 합	2	864	2.53	.41

※3점 만점

표 IV-10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의 사생활 합을 살펴본 결과, 평균 2.53(SD=.4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평균 2.86(SD=.45), ‘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평균 2.85(SD=.46),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평균 2.80(SD=.54), ‘나는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다’는 평균 2.79(SD=.56), ‘나는 위험한 약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균 2.76(SD=.60),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깨끗하다’는 평균 2.75(SD=.54),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는 평균 2.71(SD=.62),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다’는 평균 2.69(SD=.67), ‘나는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는 평균 2.66(SD=.66),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평균 2.38(SD=.79),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는 평균 2.37(SD=.76),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는 평균 2.34(SD=.84), ‘나는 성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을 수 있다’는 평균 2.30(SD=.87), ‘나는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평균 2.25(SD=.89),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는 평균 2.14(SD=.88), ‘우리가 법을 어겨 경찰서 등에 잡혀가도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평균 1.88(SD=.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및 해석
제 IV 장
조사결과 및 해석



○ 우리집

1) 우리 집에서 나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우리 집에서 나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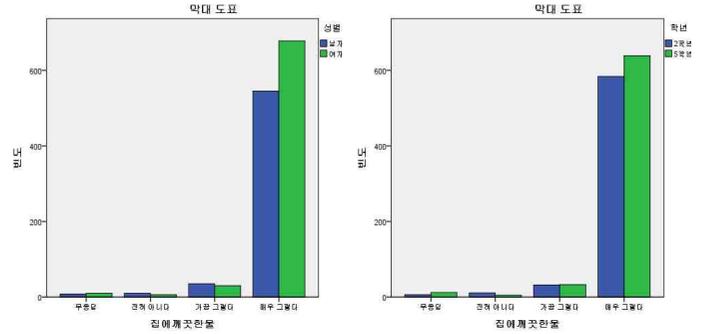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101>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집에서 나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0(0.8)	6(0.5)	16(1.2)	11(0.8)	5(0.4)	16(1.2)
가끔 그렇다	35(2.6)	30(2.3)	65(4.9)	32(2.4)	33(2.5)	65(4.9)
매우 그렇다	545(41.2)	678(51.3)	1,223(92.5)	584(44.2)	639(48.3)	1,223(92.5)
무응답	8(0.6)	10(0.8)	18(1.4)	6(0.5)	12(0.9)	18(1.4)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10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집에서 나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생 1,223명(92.5%)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678명(51.3%)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545명(41.2%)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639명(48.3%)이 ‘매우 그렇다’, 2학년 584명(44.2%)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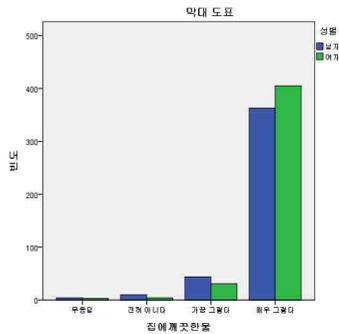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102>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집에서 나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0(1.2)	4(0.5)	14(1.6)
가끔 그렇다	44(5.1)	31(3.6)	75(8.7)
매우 그렇다	363(42.0)	405(46.9)	768(88.9)
무응답	4(0.5)	3(0.3)	7(0.8)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0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집에서 나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중학생 768명(88.9%)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05명(46.9%)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63명(42.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나는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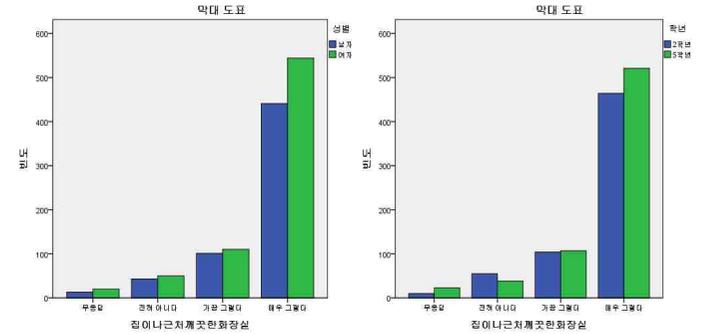
<표 IV-103>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43(3.3)	50(3.8)	93(7.0)	55(4.2)	38(2.9)	93(7.0)
가끔 그렇다	101(7.6)	110(8.3)	211(16.0)	104(7.9)	107(8.1)	211(16.0)
매우 그렇다	441(33.4)	544(41.1)	985(74.5)	464(35.1)	521(39.4)	985(74.5)
무응답	13(1.0)	20(1.5)	33(2.5)	10(0.8)	23(1.7)	33(2.5)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10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985명(74.5%)이 ‘매우 그

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544명(41.1%)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441명(33.4%)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521명(39.4%)이 ‘매우 그렇다’, 2학년 464명(35.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표 IV-104>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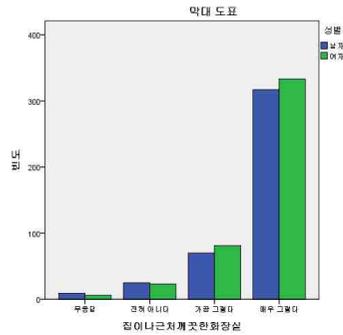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25(2.90)	23(2.7)	48(5.6)
가끔 그렇다	70(8.1)	81(9.4)	151(17.5)
매우 그렇다	317(36.7)	333(38.5)	650(75.2)
무응답	9(1.0)	6(0.7)	15(1.7)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0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생 650명(75.2%)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33명(38.5%)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17명



(36.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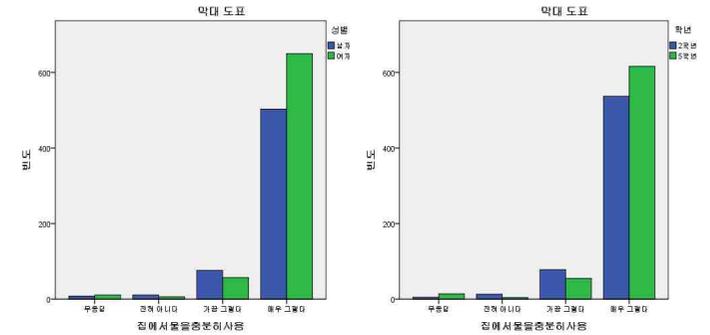
〈표 IV-105〉 초등학교가 평가한 ‘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1(0.8)	6(0.5)	17(1.3)	13(1.0)	4(0.3)	17(1.3)
가끔 그렇다	76(5.7)	57(4.3)	133(10.1)	78(5.9)	55(4.2)	133(10.1)
매우 그렇다	503(38.0)	650(49.2)	1,153(87.2)	537(40.6)	616(46.6)	1,153(87.2)
무응답	8(0.6)	11(0.8)	19(1.4)	5(0.4)	14(1.1)	19(1.4)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10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

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1153명(87.2%)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650명(49.2%)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503명(38.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616명(46.6%)이 ‘매우 그렇다’, 2학년 537명(40.6%)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표 IV-106〉 중학교가 평가한 ‘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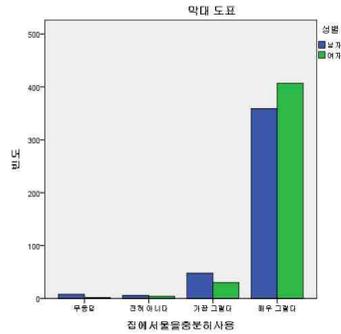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6(0.7)	4(0.5)	10(1.2)
가끔 그렇다	48(5.6)	30(3.5)	78(9.0)
매우 그렇다	359(41.6)	407(47.1)	766(88.7)
무응답	8(0.9)	2(0.8)	10(1.2)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0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가 평가한 ‘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중학교 766명(88.7%)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



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07명(47.1%)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59명(41.6%)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깨끗하다.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깨끗하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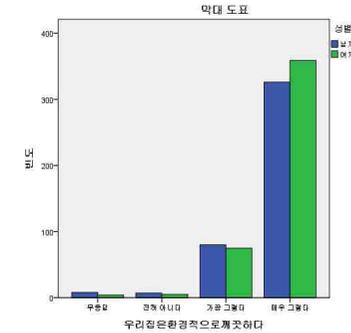
<표 IV-107>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깨끗하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7(0.8)	5(0.6)	12(1.4)
가끔 그렇다	80(9.3)	75(8.7)	155(17.9)
매우 그렇다	326(37.7)	359(41.6)	685(79.3)
무응답	8(0.9)	4(0.5)	12(1.4)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0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깨끗하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중학생 685명(79.3%)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59명(41.6%)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26명(37.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표 IV-108>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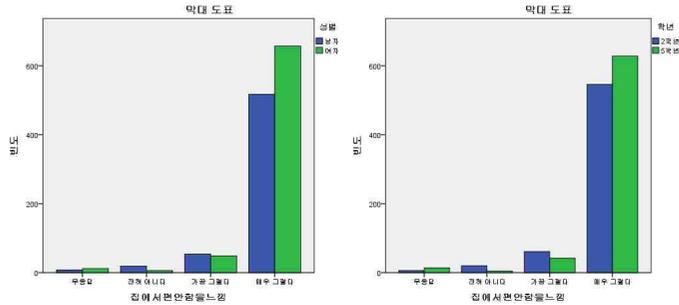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9(1.4)	6(0.5)	25(1.9)	20(1.5)	5(0.4)	25(1.9)
가끔 그렇다	54(4.1)	49(3.7)	103(7.8)	61(4.6)	42(3.2)	103(7.8)
매우 그렇다	517(39.1)	657(49.7)	1,174(88.8)	546(41.3)	628(47.5)	1,174(88.8)
무응답	8(0.6)	12(0.9)	20(1.5)	6(0.5)	14(1.1)	20(1.5)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10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



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생 1174명(88.8%)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657명(49.7%)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517명(39.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628명(47.5%)이 '매우 그렇다', 2학년 546명(41.3%)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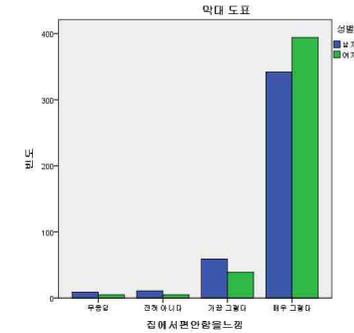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109>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1(1.3)	5(0.6)	16(1.9)
가끔 그렇다	59(6.8)	39(4.5)	98(11.3)
매우 그렇다	342(39.6)	394(45.6)	736(85.2)
무응답	9(1.0)	5(0.6)	14(1.6)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0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중학생 736명(85.2%)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94명(45.6%) '매우 그렇다', 남학생 342명(39.6%)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나의 안전과 보호

6)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과 학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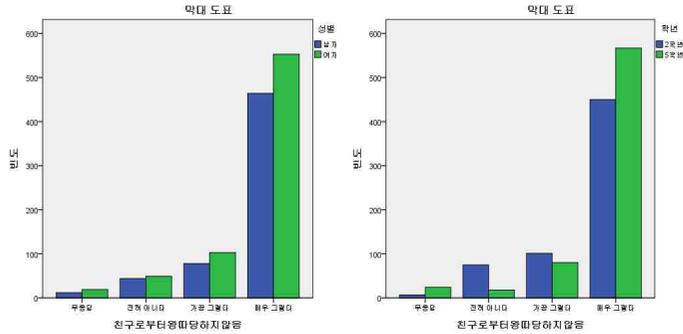
<표 IV-110>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44(3.3)	49(3.7)	93(7.0)	75(5.7)	18(1.4)	93(7.0)
가끔 그렇다	78(5.9)	103(7.8)	181(13.7)	101(7.6)	80(6.1)	181(13.7)
매우 그렇다	464(35.1)	553(41.8)	1,017(76.9)	450(34.0)	567(42.9)	1,017(76.9)
무응답	12(0.9)	19(1.4)	31(2.3)	7(0.5)	24(1.8)	31(2.3)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1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생이 평가한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생 1017명(76.9%)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



에 따라서는 여학생 553명(41.8%)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464명(35.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567명(42.9%)이 ‘매우 그렇다’, 2학년 450명(34.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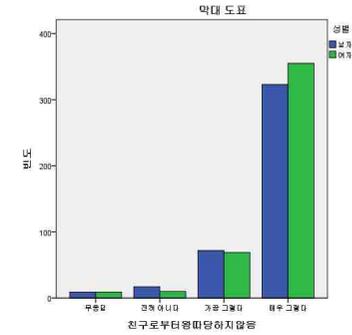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111〉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7(2.0)	10(1.2)	27(3.1)
가끔 그렇다	72(8.3)	69(8.0)	141(16.3)
매우 그렇다	323(37.4)	355(41.1)	678(78.5)
무응답	9(1.0)	9(1.0)	18(2.1)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중학생 678명(78.5%)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55명(41.1%)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23명(37.4%)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나는 위험한 약물로부터 안전하다.

‘나는 위험한 약물로부터 안전하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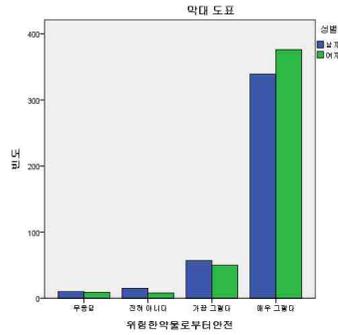
〈표 IV-112〉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위험한 약물로부터 안전하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5(1.7)	8(0.9)	23(2.7)
가끔 그렇다	57(6.6)	50(5.8)	107(12.4)
매우 그렇다	339(39.2)	376(43.5)	715(82.8)
무응답	10(1.2)	9(1.0)	19(2.2)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위험한 약물로부터 안전하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중학생 715명(82.8%)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76명(43.5%)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39명(39.2%)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8)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다.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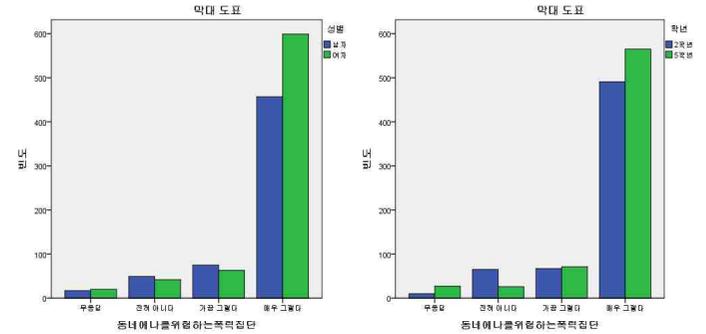
<표 IV-113>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49(3.7)	42(3.2)	91(6.9)	65(4.9)	26(2.0)	91(6.9)
가끔 그렇다	75(5.7)	63(4.8)	138(10.4)	67(5.1)	71(5.4)	138(10.4)
매우 그렇다	457(34.6)	599(45.3)	1,056(79.9)	491(37.1)	565(42.7)	1,056(79.9)
무응답	17(1.3)	20(1.5)	37(2.8)	10(0.8)	27(2.0)	37(2.8)
전체	598(45.2)	724(54.8)	1,322(100.0)	633(47.9)	689(52.1)	1,322(100.0)

표 IV-1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생 1056명(79.9%)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599명(45.3%)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457명(34.6%)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565명(42.7%)이 ‘매우 그렇다’, 2학년 491명(37.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표 IV-114>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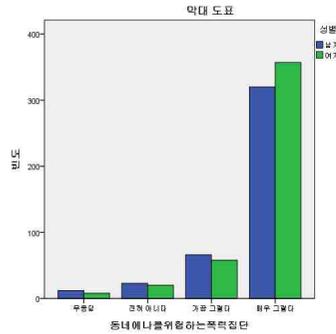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23(2.7)	20(2.3)	43(5.0)
가끔 그렇다	66(7.6)	58(6.7)	124(14.4)
매우 그렇다	320(37.0)	357(41.3)	677(78.4)
무응답	12(1.4)	8(0.9)	20(2.3)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중학생 677명(78.4%)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



서는 여학생 357명(41.3%)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20명(37.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9)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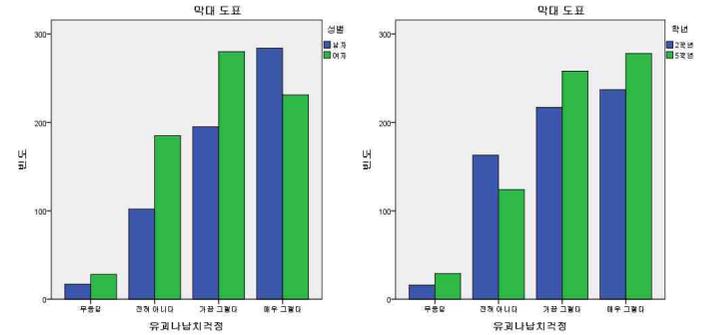
<표 IV-115>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102(7.7)	185(14.0)	287(21.7)	163(12.3)	124(9.4)	287(21.7)
가끔 그렇다	195(14.8)	280(21.2)	475(35.9)	217(16.4)	258(19.5)	475(35.9)
매우 그렇다	284(21.5)	231(17.5)	515(39.0)	237(17.9)	278(21.0)	515(39.0)
무응답	17(1.3)	28(2.1)	45(3.4)	16(1.2)	29(2.2)	45(3.4)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1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초등학생 515명(39.0%)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284명(21.5%)이 ‘매우 그렇다’, 여학생 280명(21.2%)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278명(21.0%)이 ‘매우 그렇다’, 2학년 237명(17.9%)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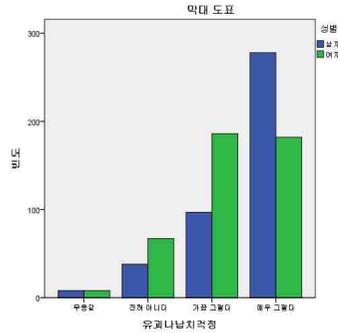
<표 IV-116>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38(4.4)	67(7.8)	105(12.2)
가끔 그렇다	97(11.2)	186(21.5)	283(32.8)
매우 그렇다	278(32.2)	182(21.1)	460(53.2)
무응답	8(0.9)	8(0.9)	16(1.9)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의 중학생 460명(53.2%)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278명(32.2%)이 ‘매우 그렇다’, 여학생 186명(21.5%)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 나는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다.

‘나는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다’ 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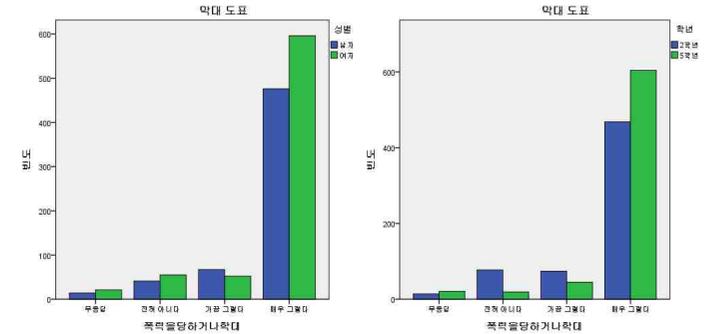
<표 IV-117>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41(3.1)	55(4.2)	96(7.3)	77(5.8)	19(1.4)	96(7.3)
가끔 그렇다	67(5.1)	52(3.9)	119(9.0)	74(5.6)	45(3.4)	119(9.0)
매우 그렇다	476(36.0)	596(45.1)	1,072(81.1)	468(35.4)	604(45.7)	1,072(81.1)
무응답	14(1.1)	21(1.6)	35(2.6)	14(1.1)	21(1.6)	35(2.6)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1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나는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나 학대받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초등학생 1072명(81.1%)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596명(45.1%)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476명(36.0%)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604명(45.7%)이 ‘매우 그렇다’, 2학년 468명(35.4%)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표 IV-118>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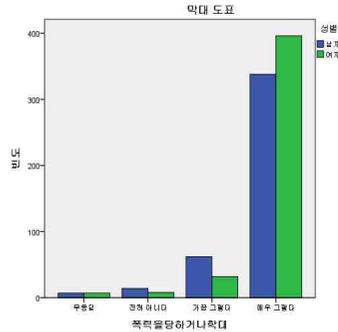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4(1.6)	8(0.9)	22(2.5)
가끔 그렇다	62(7.2)	32(3.7)	94(10.9)
매우 그렇다	338(39.1)	396(45.8)	734(85.0)
무응답	7(0.8)	7(0.8)	14(1.6)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다’ 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중학생 734명(85.0%)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96명(45.8%)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38명(39.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1)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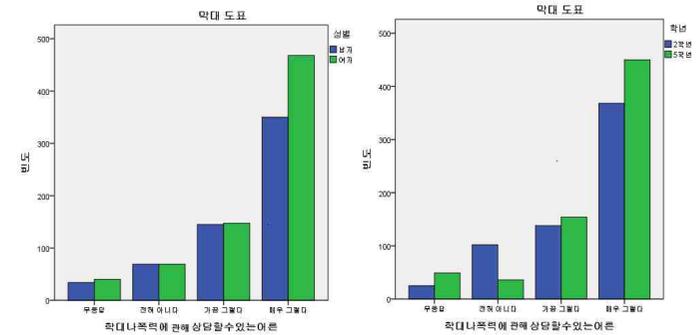
<표 IV-119> 초등학교가 평가한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69(5.2)	69(5.2)	138(10.4)	102(7.7)	36(2.7)	138(10.4)
가끔 그렇다	145(11.0)	147(11.1)	292(22.1)	138(10.4)	154(11.6)	292(22.1)
매우 그렇다	350(26.5)	468(35.4)	818(61.9)	368(27.8)	450(34.0)	818(61.9)
무응답	34(2.6)	40(3.0)	74(5.6)	25(1.9)	49(3.7)	74(5.6)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1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평가한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

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생 818명(61.9%)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68명(35.4%)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50명(26.5%)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450명(34.0%)이 ‘매우 그렇다’, 2학년 368명(27.8%)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중학교

<표 IV-120> 중학교가 평가한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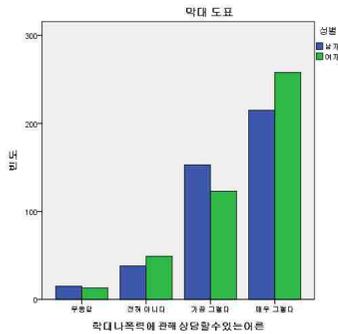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38(4.4)	49(5.7)	87(10.1)
가끔 그렇다	153(17.7)	123(14.2)	276(31.9)
매우 그렇다	215(24.9)	258(29.9)	473(54.7)
무응답	15(1.7)	13(1.5)	28(3.2)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교가 평가한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의 중학생 473명(54.7%)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58명(29.9%)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15명(24.9%)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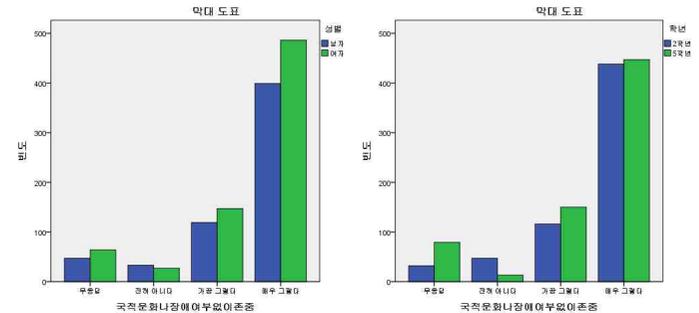
<표 IV-121> 초등학교 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33(2.5)	27(2.0)	60(4.5)	47(3.6)	13(1.0)	60(4.5)
가끔 그렇다	119(9.0)	147(11.1)	266(20.1)	116(8.8)	150(11.3)	266(20.1)
매우 그렇다	399(30.2)	486(36.8)	885(66.9)	438(33.1)	447(33.8)	885(66.9)
무응답	47(3.6)	64(4.8)	111(8.4)	32(2.4)	79(6.0)	111(8.4)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1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학생 885명(66.9%)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486명(36.8%)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99명(30.2%)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5학년 447명(33.8%)이 ‘매우 그렇다’, 2학년 438명(33.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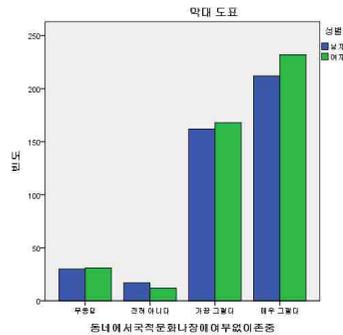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122> 중학교 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17(2.0)	12(1.4)	29(3.4)
가끔 그렇다	162(18.8)	168(19.4)	330(38.2)
매우 그렇다	212(24.5)	232(26.9)	444(51.4)
무응답	30(3.5)	31(3.6)	61(7.1)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의 중학생 444명(51.4%)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32명(26.9%)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12명(24.5%)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3) 우리가 법을 어겨 경찰서 등에 잡혀가도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법을 어겨 경찰서 등에 잡혀가도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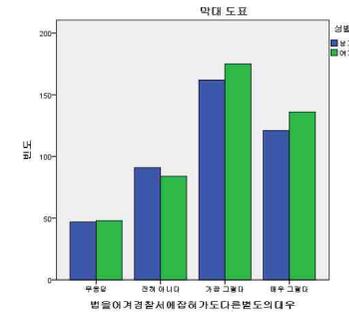
(1) 중학교

<표 IV-123>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가 법을 어겨 경찰서 등에 잡혀가도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91(10.5)	84(9.7)	175(20.3)
가끔 그렇다	162(18.8)	175(20.3)	337(39.0)
매우 그렇다	121(14.0)	136(15.7)	257(29.7)
무응답	47(5.4)	48(5.6)	95(11.0)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가 법을 어겨 경찰서 등에 잡혀가도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중학생 337명(39.0%)이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175명(20.3%)이 ‘가끔 그렇다’, 남학생 162명(18.8%)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나의 건강

14) 나는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는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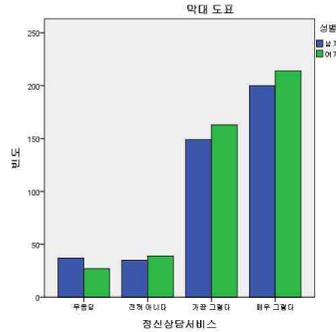
(1) 중학교

<표 IV-124>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35(4.1)	39(4.5)	74(8.6)
가끔 그렇다	149(17.2)	163(18.9)	312(36.1)
매우 그렇다	200(23.1)	214(24.8)	414(47.9)
무응답	37(4.3)	27(3.1)	64(7.4)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의 중학생 414명(47.9%)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14명(24.8%)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00명(23.1%)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 나는 성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을 수 있다.

‘나는 성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을 수 있다’의 결과를 학생의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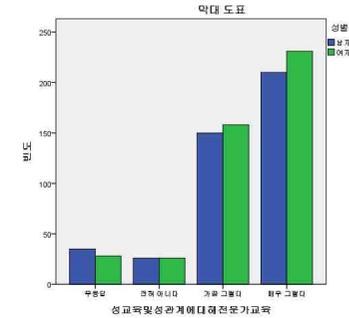
(1) 중학교

<표 IV-125>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성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을 수 있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26(3.0)	26(3.0)	52(6.0)
가끔 그렇다	150(17.4)	158(18.3)	308(35.6)
매우 그렇다	210(24.3)	231(26.7)	441(51.0)
무응답	35(4.1)	28(3.2)	63(7.3)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나는 성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을 수 있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의 중학생 441명(51.0%)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231명(26.7%)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210명(24.3%)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우리 학교

16)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의 결과를 학생의 학년과 성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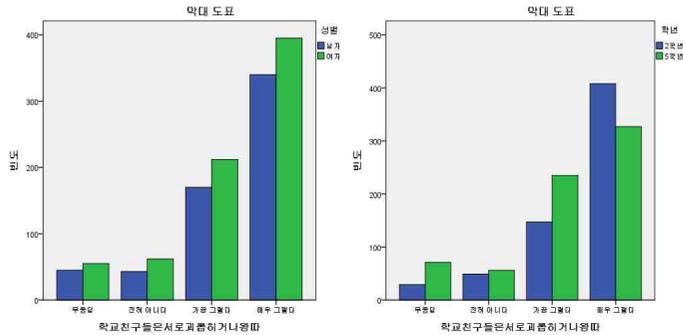
(1) 초등학교

<표 IV-126>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5학년	전체
전혀 아니다	43(3.3)	62(4.7)	105(7.9)	49(3.7)	56(4.2)	105(7.9)
가끔 그렇다	170(12.9)	212(16.0)	382(28.9)	147(11.1)	235(17.8)	382(28.9)
매우 그렇다	340(25.7)	395(29.9)	735(55.6)	408(30.9)	327(24.7)	735(55.6)
무응답	45(3.4)	55(4.2)	100(7.6)	29(2.2)	71(5.4)	100(7.6)
전체	598(45.2)	724(54.8)	1,322(100)	633(47.9)	689(52.1)	1,322(100)

표 IV-1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의 초등학생 735명(55.6%)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 395명(29.9%)이 ‘매우 그렇다’, 남학생 340명(25.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 408명(30.9%)이 ‘매우 그렇다’, 5학년 327명(24.7%)이 ‘매우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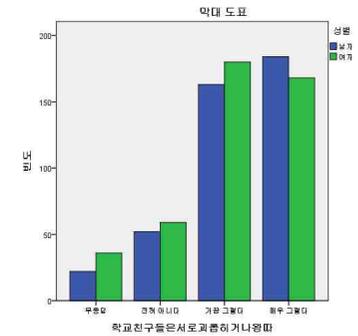
(2) 중학교

<표 IV-127>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 결과

단위: 명(%)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아니다	52(6.0)	59(6.8)	111(12.8)
가끔 그렇다	163(18.9)	180(20.8)	343(39.7)
매우 그렇다	184(21.3)	168(19.4)	352(40.7)
무응답	22(2.5)	36(4.2)	58(6.7)
전체	421(48.7)	443(51.3)	864(100.0)

표 IV-1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이 평가한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에 대한 인식을 학생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당히 많은 중학생 352명(40.7%)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 184명(21.3%)이 ‘매우 그렇다’, 여학생 180명(20.8%)이 ‘가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및 해석
제 IV 장

B. 면담조사 결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아동의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2학년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용으로 사용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자가 평가지의 설문 내용을 기초로 하되, 면담 상황 및 맥락을 고려하여 자유 질문과 토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놀이와 여가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본인에게 놀이와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동네에는 시립도서관 쪽에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한데, 우리들은 잘 이용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운동기구들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쉴 시간은 별로 없어요. 집에 오면 저녁 8시나 9시가 되는데, 씻고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것이 전부일 때가 많아요.”

“장애아들이 다니는 놀이터는……, 글썄요, 신경을 써 본적이 없기는 한데, 우리들이 노는 곳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지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숲과 나무요? 저희 동네에는 화력발전소가 있는데요……,”

“은파공원에서 여러 축제를 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들도 종종 하더라고요. 반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가끔 대학교 축제도 다니고요. 연예인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래도 우리들만을 위한 축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학교 수업 이외에 방과 후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희망자에게만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몇 명 이상이어야 방과 후 수업이 개설되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을 받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수업의 내용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준 것을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구요.”

“단체 활동이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2. 참여와 시민권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본인에게 참여와 시민권이 충분히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잘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봉사 동아리에서 봉사 활동하는 것도 있었고,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학교 주변에서 쓰레기도 줍는 활동도 하고 그래요. 바자회 같은 것도 변화시키는 것인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했던 바자회요. 학교 축제때 전교생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판매하고 사고 그랬는데, 수익금은 어디에 기부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안 팔린 물건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고요.”

“의견을 어떻게 들려줘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요. 할 수도 없었고요. 물어보면 말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TV에서 학교폭력예방에 관련된 내용이나 청소년들의 꿈,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광고를 보기는 하는데……, 자주 볼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영상이 있으면 친구들과 UCC로 공유하기는 하는데,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학생이잖아요. 그냥 신나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이용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인데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어요. 동네에 걸린 현수막이나 TV를 보기는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니?) 동네에서 공사한다는 현수막이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봤고요, 경포천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새들이 와서 오염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3. 안전과 보호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본인에게 안전과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 갈 때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고장 나 있기도 하고요. 횡단보도에서 차가 급하게 지나가서 위험한 상황도 있었어요.”

“금강호 가는 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요. 길이 하나인데, 오는 길과 가는 길 사이가 좁으니까 서로 충돌을 해서 다치는 것을 봤어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좁아서 그런가 봐요.”

“당연히 경찰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해야지요!”

“어른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어제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눈 녹이는 작업부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걸어가다가 넘어졌거든요.”

“반 친구 이야기인데요, 쉬는 시간 10분 내내 휴대폰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봐도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나쁜 이야기들을 sns에 올려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말로 했으면 안 싸웠을 텐데…….”

4. 나의 건강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본인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좋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럼요, 언제든지 아프면 병원에 가죠.”

“공중화장실은 별로……, 앞 사람이 깨끗이 사용하지 않으니깐 저도 깨끗하게 사용해지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수송동에 사는데 동네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기는 하겠는데,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어떤 사람이 차안에 있는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서 경포천에 버리는 것을 봤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경고문이 원래 있었는데, 공사한다고 공사 안내문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우리 집은 항상 큰 트럭이 다니는 길목에 있어서 매연이나 먼지가 많아요. 어쩔 수 없죠, 뭐.”

5. 교육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본인이 놓여 있는 교육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는 당연히 다니고 있죠.”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관심은 주시는데 바쁘시면 신경을 잘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 전문 상담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기는 해요.”



“수업시간에 배워요. 보건 시간이 있거든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뭐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은 쉬는 시간하고 점심 시간밖에 없어요. 점심시간도 빨리 점심 먹고 그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별로요.”

“마실 물도 있고, 손 씻을 물도 있어요.”

“화장실은 청소해주는 분들이 오시니까……, 깨끗해요.”

“(고민을 쉽게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는지) 없어요.”

“도움반이라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 교실인데, 오전에는 도움반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와 합반을 해서 공부를 같이 해요. 그런데 친구들도 그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조촌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기는 하는데, 별로 가지는 않아요. 시험 기간에 시립 도서관으로 시험 공부하러 가요. (교양서적을 읽거나 다른 책을 보러 가지는 않는지?)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러 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체벌이 있지는 않아요.”

“학교에 학생회가 있기는 한데, 거의 학생회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니까요. 반대 의견을 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인천 송도로 직업체험박람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전체 친구들이 간 것은 아니고요, 반에서 몇 명만 뽑아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군산에서 직업체험박람회를 다녀온 적은 없었어요.”

6. 나의 사생활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본인의 집안 환경, 안전과 보호, 건강, 학교의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좋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엄마, 아빠 다 좋아요, 집도 편안하고요. 그런데 간섭 받기는 싫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지요. 어리다고 해서 벌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잘못된 것은 소년원에 가서 정신을 차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신과요? 기록에 남겨진다고 하던데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제 V 장

결론 및 제언

- A. 전반적인 지역사회 만족도 결과
- B. 평가항목에 따른 만족도 결과

제 V 장 결론 및 제언

○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견 및 요구,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아동 친화적 환경의 기본 이념이 실현되어야 하고, 아동의 편안함과 행복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과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은 사회·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특성이 고려된 종합적인 도시 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미시 체계만을 소극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도시 전체에서 모든 아동을 위해 조직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Horelli, 1998)¹⁷⁾. 도시 계획 방향은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활기차고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동·청소년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아동친화도 조사연구는 아동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서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나의 사생활들을 평가하게 한 것으로 아동권리 보호·증진에 필요한 아동의 의견을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17) Horelli, L. (1998). Creating child-friendly environments: case studies on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ree European countries. *Childhood*, 5, 225-239

A. 전반적인 지역사회 만족도 결과

군산시의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평가한 우리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는 5점 만점 중, 초등학교 2학년(4.32점), 5학년(4.24점), 중학교 2학년(3.95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 ‘본인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높게 응답했고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좋고, 나쁜 정도(친화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높게 응답했으며, 중학교 2학년은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보다 만족도에서 낮은 수치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67.4%가 ‘매우 좋다’라고 응답했고, 중학교 2학년은 과반수 정도인 48.6%가 ‘매우 좋다’라고 응답.

○ ‘본인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47.5%가 ‘매우 좋다’라고 응답했고, 중학교 2학년에서는 상당히 많은 44.8%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남학생의 18.4%는 ‘매우 좋다’라고 응답.

○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41.3%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이 중 초등학교 5학년의 22.8%는 ‘만족한다.’라고 응답. 중학교 2학년에서는 상당히 많은 37%가 ‘만족한다.’라고 응답.

○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좋고, 나쁜 정도(친화도)’에서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42.4%가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그 중 초등학교 2학년의 25.2%는 ‘매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 중학교 2학년에서는 상당히 많은 43.2%가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고 응답.

B. 평가항목에 따른 만족도 결과

유니세프 공식 아동친화도 평가 항목인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및 나의 건강’, ‘교육’, ‘나의 사생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놀이와 여가

○ 설문조사 결과

놀이와 여가에 대한 조사결과, 3점 만점 중 초등학교 2학년(2.23점), 5학년(2.19점), 중학교 2학년(1.99점) 순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운동 및 놀이 위한 공간의 충분도’, ‘우리 동네 놀이터의 장애를 가진 친구들 이용도’, ‘동네의 숲과 나무 등 자연환경 정도’,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단체 활동 참여정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높게 응답하였음. 이와 달리 중학교 2학년에서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단체 활동 참여정도’에서 ‘전혀 아니다’의 낮은 의견을 보임.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 참여 및 행사 구경 정도’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운동 및 놀이 위한 공간의 충분도’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74.4%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중학교 2학년의 절반 가까운 49.9%도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에서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53.3%, 중학교 2학년 51%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 ‘우리 동네 놀이터의 장애를 가진 친구들 이용도’에서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36.6%와 중학교 2학년 39.8%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



- ‘동네의 숲과 나무 등 자연환경 정도’에서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49.3%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 2학년 과반수 정도인 49%는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
-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 참여 및 행사 구경 정도’에서 과반수 정도의 중학교 2학년 49.9%,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44.5%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
-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단체 활동 참여정도’에서 중학교 2학년 과반수 정도인 51%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반면,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47.2%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 면담조사 결과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아를 위한 놀이터 및 놀이공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공간의 정도에서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을 위한 축제나 행사,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부족하며 이러한 축제나 행사,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1’에 따르면, 「놀이 및 여가 영역에 대한 청소년 평가의 시도별 비교」에서 전북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¹⁸⁾ 하위영역에서 살펴보면, ‘동네의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은 신체적 장애가 이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와 ‘학교이외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취미나 여가를 위한 그룹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에서 전국 최하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조사결과와 일치했다. 이는 지역사회 놀이 환경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과와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단체활동, 다양한 종교와 문화 등의 축제나 이벤트 참여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8) 장근영, 이해연, 배상률, 성은도, 이용교, 홍승애(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1: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3-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지역사회 놀이 환경에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제의 활성화 및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결과로 나타났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 등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 생활에 대한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1997년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으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거론하였다.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다문화 역량 및 인성 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 복지 예산과 지역사회 시설의 활성화로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서적·연령별 차별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기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양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놀 기회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즐겁게 놀고 배울 수 있는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여가를 위해 안전한 거리와 공간을 확보하며 친환경적 생태적 요구를 반영한 녹색 공간을 제공하고 오염과 교통을 통제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동 친화적 성장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¹⁹⁾

<표 V-1> 참고: 군산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 현황자료²⁰⁾

연번	내 용	구 분	기 관 명	총계 (개소)
1	영유아 보육·교육	어린이집	개야도어린이집 외	237
		유치원	군산우리별 외	62
2	영유아복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1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센터	1
3	아동복지	양육시설	구세군군산후생원 외	4
		공동생활가정	평안한집 외	11

19) 박주현(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 전략.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 군산시(2014). 보건복지코디북 길라잡이: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 현황자료. 군산: 군산시청.

		지역아동센터	1318HappyZone 행복스케치 지역아동센터 외	52		
		관련단체	월드비전전북지부 군산가정개발센터	1		
4	청소년 복지	청소년시설	군산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		
			군산시청소년 수련관	1		
			군산시청소년 문화의집	1		
			군산시청소년 성문화센터	1		
			Wee 센터	1		
			가온누리대안학교	1		
5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1		
		학교	명화학교	1		
			발달장애대안학교 산돌학교	1		
6	지역복지	사회복지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1		
		자원봉사기관	군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1		
			여성자원봉사회	1		
		관련단체	군산YMCA	1		
			군산YWCA	1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모임	1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도서관	군산시립도서관 외	12
		보건소	군산시 보건소 외	33		
7	학교 교육	기관	군산교육지원청(교육복지투자지원)	1		
총 계				435		



2. 참여와 시민권

○ 설문조사 결과

참여와 시민권에 대한 조사결과, 3점 만점 중 초등학교 5학년(1.68점), 2학년(1.63점), 중학교 2학년(1.58점) 순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계획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남.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기여도’, ‘매체(TV, 인터넷, 신문)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들은 정도’는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낮으나, ‘인터넷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기여도’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전혀 아니다’라는 의견이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전체 60.6%의 비율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의 경우도 전체의 42.6%가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
-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계획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에서도 중학교 2학년의 56.3%,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의 41.8%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
- ‘매체(TV, 인터넷, 신문)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들은 정도’에서 중학교 2학년이 51.4%,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45.5%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
- ‘인터넷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에서는 과반수 정도의 중학교 2학년 47.6%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38.9%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



○ 면담조사 결과

참여와 시민권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하나 참여권에서는 그 방법에 대한 절차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아동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인식면에서 다소 낮았으며 정책 반영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기회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접근성은 높았으나 동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이 아닌, 현수막이나 TV등의 정보를 통해 인식하는 내용이었음.

○ 2002년 아동에 관한 UN 특별 섹션에서 지방 정부와 자치 단체장들이 개발과 관련한 아젠다(agenda)를 논의하는 데 있어 아동·청소년을 반드시 그 중심에 두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정책, 법, 사업과 예산에 현실적으로 모두 반영되어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²¹⁾

○ 아동 친화적 환경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정책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아동의 참여가 다른 어떠한 여건들보다도 우선시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그리 수월하지 않은 않다. 청소년 위원회 등의 공식적인 참여 기구가 있으나 아동·청소년이 직접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²²⁾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의 사례 중, 노르웨이(Norway)의 ‘아이들의 풍경(Children’s Landscape)’이라는 웹사이트 구축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의 풍경을 계획하는 전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웹사이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학교의 운

21) UNICEF(2009). *Child Friendly Cities promoted by UNICEF National Committees and Country Offices: Fact sheet, September 2009*. <http://www.childfriendlycities.org>.

22)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지역사회 진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장과 기관 등 지역의 공간을 수정하기에 앞서 아이디어 공유 공간으로서 ‘아이들의 풍경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²³⁾

○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아동인권 및 권리에 대한 인식 및 교육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참여권의 기회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아동인권 및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아동인권교육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어린이 의회 등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의결기구를 조직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23)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지역사회 진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 참고: 서울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²⁴⁾ 주요 내용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1. 어린이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친화도시 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제5조(어린이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1. 모든 어린이는 동등 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는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제6조(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1. 어린이 보행 편의, 2.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등을 고려
- 제7조(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 구청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 1. 어린이 환경안전망,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
- 제8조(어린이 건강증진) :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
- 제9조(위원회 설치) :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24) 성북구청(2015).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정착 벤치마킹 교육자료(2014). (<http://www.seongbuk.go.kr>에서 인출)

3. 안전과 보호

○ 설문조사 결과

안전과 보호에 대한 조사결과, 3점 만점 중 초등학교 2학년(2.37점), 5학년(2.34점), 중학교 2학년(2.26점) 순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느끼는 안전정도’ 에서 약간의 차이로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아는 정도’ 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높게 나타났음. ‘동네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느끼는 안전정도’, ‘위험을 느낄 때 그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아는 정도’,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정도’ 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느끼는 안전정도’ 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가끔 그렇다’ 라는 의견이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전체 58.2%의 비율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의 경우도 전체의 48.7%가 ‘가끔 그렇다’ 라는 응답.
- ‘동네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느끼는 안전정도’ 에서는 중학교 2학년의 절반 가까운 49.9%가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의 42.4%도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
- ‘위험을 느낄 때 그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아는 정도’ 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의 80.6%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중학교 2학년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63.8%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정도’ 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의 과반수가 넘는 58.3%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중학교 2학년에서도 과반수 정도의 46.8%가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 함. 그러나 중학교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 26.3%가 ‘가끔 그렇다’, 남학생 20.6%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아는 정도’ 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의 과반수

가 훨씬 넘는 59.3%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중학교 2학년의 과반수 정도 되는 49.8%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면담조사 결과

안전과 보호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대중교통 수단 및 동네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느끼는 안전정도에 대해 인식과 방법적 측면에서 인지하고 있었음. 인터넷의 위험정도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이미 인터넷 중독에 노출된 환경에 대한 방안은 인지하지 못 함.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권리 중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생존권 및 보호권, 발달권까지 위협받게 된다. 청소년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²⁵⁾

○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 및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동과 지역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스로 안전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역 내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표 V-3> 참고: 아동친화적 환경 및 공간조성의 원리²⁶⁾

구분	아동친화환경 계획원리
이동성	주거단지에서 아동은 외부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	학교, 도서관, 학원, 공원, 놀이시설, 운동장 등 아동 이용시설이 집 주변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걸어서 갈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희성	아동의 다양한 신체적 활동요구를 수용하며 놀이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안전성	아동이 물리적 위험(범죄,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성	아동이 주거지 근처에서 또래 아동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넓은 공용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환경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주거지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5)김영환, 임영식, 김민(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 참고: '안전성'에 관한 아동친화환경 전략²⁷⁾

아동친화환경에서 '안전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원리임. 이는 아동이 주거단지의 어느 곳이든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함. 이에 관한 계획전략은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 '교통안전을 위한 장치', '놀이공간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계획'으로 구분 됨.

전략	계획요소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계획	단지 출입구 및 주동 출입구, 놀이공간에 외부인 침입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인접 주거 환경과 명확하게 분리되도록 계획하여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 예방
	주거단지 내 모든 공간과 길에 아동이 야간에 활동하기 적합한 조명 설치
교통안전을 위한 장치	출입구, 차도와 인접한 보행로에는 과속방지턱, 볼라드, 속도제한 표지판 등 차량의 통과속도 감소 장치 설치
놀이공간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계획	놀이기구 주변은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 설치
	놀이공간은 차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
	놀이공간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아동을 보호



차량속도 저감 유도장치



야간 활동 조명 설치



충격 흡수 가능한 바닥표면

결론 및 제언
제 V 장
제 V 장
결론 및 제언

<표 V-5> 참고: '환경성'에 관한 아동친화환경 전략²⁸⁾

아동친화환경에서 '환경성'은 안전성과 함께 우선적 개선이 필요한 부문임. 이는 아동의 생활 터전인 주거단지가 쾌적하게 유지되고 시설물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함. 이에 관한 전략은 '아동 이용시설의 쾌적하고 환경친화적 조성'과 '단지 내 공간의 위생적인 유지와 관리'로 구분 됨.

전략	계획요소
아동이용시설의 쾌적하고 환경친화적 조성	아동이 차량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오픈스페이스는 그늘막을 조성하여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함
	아동이 직접 접촉하는 놀이기구는 나무 등의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
단지 내 공간의 위생 관리와 유지	아동이 사용하는 화장실, 놀이공간은 우선적으로 청결하게 관리
	단지 내 공용공간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단지 환경을 유지



자연친화적 놀이기구



깨끗한 수질 유지



풍부한 녹지공간

26)김숙하(2014). 아동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외부공간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동네를 걷고,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정도는 초·중등학생 모두 ‘가끔이라’고 응답하여 지역사회 안전정도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위험을 느낄 때 그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아는 정도’나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정도’에서 초등학생 보다 중학생의 인식이 다소 낮았으며, 특히 재난안전에 대해 중학교 2학년에서도 과반수 정도의 46.8%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 26.3%가 ‘가끔 그렇다’, 남학생 20.5%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보여 중학교에서의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안전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학교 내,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겠다.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모 역할 또한 중요하다. 부모들은 하교 이후의 자녀의 동선을 파악하고 비상연락망을 확인해야 하며, 부모들이 아동안전에 대한 학교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조가 필요하다. 자녀 안전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부모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큰아빠, 삼촌 등의 잘못된 호칭을 써서 아이들이 성추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도 고려되고 있다.²⁹⁾

<표 V-6> 참고: 어린이집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³⁰⁾

구분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27) · 28) 김숙하(2014). 아동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외부공간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이미정, 장미혜, 윤덕경, 박기남, 주유선(2011).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구분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 내용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2.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 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 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표 V-7> 참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7.21.] [교육부령 제69호, 2015.7.21., 일부개정] 31)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3.30., 2014.1.3., 2015.7.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 <2015.7.21.>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 2013.3.23.>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7.21.>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1.>

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31)법제처(20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7.21.)

<표 V-8> 참고: 청소년 안전교육 이수제 예시³²⁾

구분	회기	교육방법
교통	적정회기 구성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교육
화재(재해)		
학교폭력		
학대		
소비자(식품)		
물놀이		

※ 학교 교육에서도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적 조항에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에도 온라인 매체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온라인 매체들은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소통의 주요도구로 사용되면서 매체에 대한 인터넷 중독 등의 역기능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27%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고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의 욕구 조절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정서불안, 공격성 증가, 뇌기능 성장 저하, 척추 어깨, 시력 등의 신체적 이상, 인내력 부재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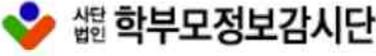
○ 이러한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나타난 중독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인터넷 역기능 예방·피해 치료 및 건전한 매체환경 등의 유익한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체계를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 시설을 기반으로 연계·구축하고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청소년의 경우 치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등 인터넷 중독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여 청소년 시설 중심의 상담·치료연계 및 인터넷 중독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http://www.law.go.kr>에서 인출)

32)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미디어는 오늘날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가고 있다(Kaiser Family Foundation, 2010).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정규 교육기관에서 받는 수업 이수 시간보다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아동기 미디어 잠식력은 놀라운 수준이다(김영실, 윤진주, 김정주, 2013).³³⁾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인터넷 노출 환경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순기능을 이해하고 올바른 사용법과 활용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로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정착 시키고, 정보와 소통 등의 스마트폰의 장점을 활용한 학습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표 V-9> 참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사이트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그린 i-NET] http://www.greeninet.or.kr/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http://www.kocsc.or.kr/
	[학부모정보 감시단] http://www.cyberparents.or.kr/

33) 김영실, 윤진주, 김정주(2013). 영유아 안전관리. 경기: 공동체.

<표 V-10> 참고: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³⁴⁾

구분	내용
①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받기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우연히 충격적인 유해 정보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은 필터링 기능이 있어서 사이트 제한 및 허가된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웹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부모 정보감시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다.
②상담센터 찾아가기	인터넷 사용 때문에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거나 자기 고집만 내세우려 한다면 전문 기관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소아심경정신과 등 방문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③적절한 콘텐츠 선정하기	아이들은 사이트에 선별에 대한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콘텐츠를 성인이 골라주는 것이 좋다. 교육 사이트라면 학습 내용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것 외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학습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④꼭 필요할 때만 인터넷 접속하기	인터넷 중독은 단순히 이용 시간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보다 습관적으로 늘 켜두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이 문제이다.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켜 온 라인에 접속하거나 수시로 전자메일을 열어보는 행동도 중독으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이다.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고 전원을 끄게 하는 것이 좋다.
⑤몸을 움직이는 게임 유도하기	신체적·정서적 자극을 직접 줄 수 있는 놀이로 유도하여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한다.
⑥부모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무조건 못하게 하기 보다는 함께 놀아달라고 아이들에게 청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콘텐츠를 공유하여 게임 전후 대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좋다. 부모나 교사가 편하자고 인터넷을 접속해 주는 일은 없도록 한다.



34) 김영실, 윤진주, 김정주(2013). 영유아 안전관리. 경기: 공동체.

4. 건강과 위생 및 나의 건강

○ 설문조사 결과

건강과 위생 및 나의 건강에 대한 조사결과, 3점 만점 중 초등학교 2학년(2.11점), 5학년(2.12점), 중학교 2학년(2.09점) 순으로 근소한 차이이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플 때 진료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 여부’에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에서 동일하게 높게 응답했으며,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중화장실의 여부’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높게 응답했음. ‘쓰레기 더미와 더러운 오염수의 동네 방치 여부’, ‘동네의 공기가 쾌적하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는 정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높게 응답 함.

- ‘아플 때 진료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 여부’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이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의 경우 전체의 65.4%,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전체 62.5%로 응답.
-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중화장실의 여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36.7%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 2학년 38.8%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학년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 ‘쓰레기 더미와 더러운 오염수의 동네 방치 여부’에서 과반수 정도의 중학교 2학년 51.2%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의 42%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학년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 ‘동네의 공기가 쾌적하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는 정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51.7%와 중학교 2학년 55.2% 과반수 정도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

○ 면담조사 결과

건강과 위생 및 나의 건강 결과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아플 때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여부에서 손쉽게 병원을 이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변 환경의 쓰레기 및 오염수, 매연, 악취 정도에서 오염정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방관자적 입장에 있었음.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중화장실의 여부에서는 공중화장실은 있으나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잘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건강 및 위생영역은 전문가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역의 중요성이 낮아 거의 추진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경제적 수준에서 기초적인 건강영역이 해결되어 있다는 견해와 다수의 인식에서 건강문제가 핵심이슈로는 낮게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아플 때 진료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 여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하여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밖에 정신건강관리 측면에서 청소년의 우울증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만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병원이나 상담센터가 지역사회 내 잘 구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자 35.8%, 여자 49.0%였고, 고등학생 45.0%, 중학생 39.0% 등으로 학교급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해 우울감 경험율은 남자 28.0%, 여자 38.2% 등이었고, 고등학생(35.5%)이 중학생(30.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살 생각률은 남자 15.4%, 여자 24.3%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고, 고등학생 19.3%, 중학생 19.9%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 스스로 느끼는 정신건강 위협요인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지난 일주일간의 우울상태에 대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우울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고, 고급별로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학교급 및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상태가 더 높다고 보고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⁵⁾

35) 김영한, 임영식, 김민(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러한 실태로 보았을 때,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위생영역에서는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거나, 가끔 있는 정도’의 인식과 쓰레기 더미와 더러운 오염수, 공기가 쾌적하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는 정도에서 ‘가끔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로 지역사회의 아동 친화적이고 위생적인 환경으로서의 관리가 필요하겠다.

5. 교육

○ 설문조사 결과

교육 결과에 대한 조사결과 3점 만점 중, 초등학교 2학년(2.49점), 5학년(2.47점), 중학교 2학년(2.30점) 순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주요내용 대부분인 ‘학교 취학률’, ‘학교에서 남·여 평등한 대우 정도’,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정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 정도’, ‘학교 화장실의 안전하고 깨끗한 정도’, ‘학교에 나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의 여부’, ‘학교에서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받는 정도’,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정도’, ‘학교 또는 동네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여부’, ‘학교에서 차별하지 않는 정도’,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 할 수 있는 정도’, ‘장애 아동청소년의 학교 취학률’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높게 나타남. ‘필요할 때, 선생님의 충분한 관심 정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모두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고,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의 충분한 사용정도’, ‘학교에서 배우는 건강과 위생에 대한 교육정도’, ‘학교에서 배우는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정도’,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학교의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의 여부’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높게 나타남. 중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영역은 없었으며, 반대로 ‘학교에서 차별하지 않는 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 초등학교에서 조사하지 않는 별도의 영역인 ‘학교와 동네에 청소년의 장래 직업에 관련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여부’에서는 2.16점으로 평균보다 낮았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서도 2.62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음.

- ‘학교 취학률’에 대해 거의 모든 초등교 2학년 5학년 97.9%, 중학교 2학년 95.1%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 ‘학교에서 남·여 평등한 대우 정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의 과반수가 넘는 56.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과반수 정도의 중학교 2학년 49.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의 충분한 사용정도’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83.6%, 중학교 2학년 70.1%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 ‘필요할 때, 선생님의 충분한 관심 정도’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67.0%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전체 과반수 정도의 45.3%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남학생의 경우는 ‘가끔 그렇다’가 22.7%를 차지.
- ‘학교에서 배우는 건강과 위생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67.2%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함. 중학교 2학년은 48.6%의 과반정도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
-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65.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함. 중학교 2학년에서는 과반수 정도의 50.1%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
- ‘학교에서 배우는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37.1%, 중학교 2학년 41.3%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

-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68.1%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함. 중학교 2학년에서는 과반수 정도의 45.8%가 ‘가끔 그렇다’ 라고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매우 그렇다(23.3%)’ 라고 응답.
-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쉴 수 있는 자유시간 정도’ 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의 82.8%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생 503명(58.2%)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학교의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의 여부’ 에서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85.5%,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교 2학년 73.6%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함.
- ‘학교 화장실의 안전하고 깨끗한 정도’ 에서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45.6%가 ‘매우 그렇다’ , 중학교 2학년 48.3%가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
- ‘학교에 나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의 여부’ 에 대해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43%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나, 중학교 2학년 42.7%가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
- ‘학교에서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받는 정도’ 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66%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과반수 정도의 중학교 2학년 53.1%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정도’ 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58%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상당히 많은 중학교 2학년 43.5%가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
- ‘학교 또는 동네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여부’ 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83.7%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가 훨씬 넘는 중학교 2학년 70.6%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학교에서 차별하지 않는 정도’ 에서 과반수 정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47.2%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 2학년에서는 46.3%가 ‘가



끔 그렇다’ 라고 응답.

-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정도’ 에서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43.3%가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 정도의 중학교 2학년 55.9%가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
- ‘장애 아동청소년의 학교 취학률’ 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70.3%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 정도의 중학교 2학년 49.9%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중학생만 해당) ‘학교와 동네에 청소년의 장래 직업에 관련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여부’ 에서 과반수 정도의 중학교 2학년 47.9%가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
- (중학생만 해당)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 에서 66.9%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면담조사 결과

교육 결과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학교에 대한 취학률은 높으나 학교생활 중 교사와의 관계에서 교사가 바쁘면 신경을 잘 안 써주거나 긴밀한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고 학교 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학교에서 놀이 하거나 쉴 수 있는 자유시간은 거의 없었고 고민을 쉽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한 어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 내 환경적인 면에서는 마실 물과 손 씻을 물이 모두 마련되어 있으며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됨을 알 수 있음. 학교 내 체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애아들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동등한 대우 보다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정도로 나타남. 학교에 의견을 전 할 수 있는 학생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참여해 본 경우는 드문 실정임. ‘학교와 동네에 청소년의 장래 직업에 관련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여부’ 에서는 관내에는 없었으나, 인천지역의 직업체험박람회를 다녀 온 경험이 있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학교 또는 동네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여부에서는 시험 기간 이외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기본 틀이 다양할 수 없으며, 주어진 교육과정에 한정되어 교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학교급, 개인 등의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정용교, 백승대, 2010).³⁶⁾

○ ‘학교 취학률’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95%이상의 높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 아동청소년의 학교 취학률’에서는 초등생 70.3%, 중학생 49.9%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취학률에 따른 편차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

○ ‘학교에서 남·여 평등한 대우 정도’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과반수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정도’에서는 초·중등학생 약 절반이 못 미치는 40% 수준에서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 ‘학교에서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 정도’에서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66%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53.1%의 중학생도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정도’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상당히 많은 중학생 43.5%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식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의 충분한 사용정도’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83.6%, 중학교 70.1%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약 26% 내지~3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소외받지 않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 ‘학교에서 배우는 건강과 위생에 대한 교육정도’와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정도’에 대해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6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의 과반정도의 48.6%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학년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중학교에서의 건강과 위생,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다.

○ 학교의 안전과 위생에서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의 여부’에서는 초·중등학생 모두 과반수가 훨씬 넘게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화장실의 안전하고 깨끗한 정도’ 대해서는 과반수 정도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물과 화장실의 위생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또는 동네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여부’에서 초·중등학생 모두 과반수가 훨씬 넘게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학교에서의 체벌정도는 초등학교에서는 과반수 정도가 ‘체벌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지만 중학생은 체벌하지 않는 정도에서 과반수 정도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일반적으로 체벌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학교생활의 참여도에서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초·중등학생 모두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 참여도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 될 수 있는 학교 내, 분위기 조성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별도의 중학생에 대한 설문항목으로 ‘학교와 동네에 청소년의 장애 직업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여부’에서 과반수 정도의 중학교 2학년 47.9%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진로와 직업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린이 행복도시 건립을 위한 행복 만족도 조사」³⁷⁾에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과 가장 필요한 이용시설에서 ‘놀이시설(공원, 체험관)’의 응답률이

37) 윤진주, 서영미(2015). 어린이 행복도시 건립을 위한 행복 만족도 조사. 아이들이 행복해야 대한 민국의 미래가 밝다. 2015 한국아동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전북대 진수당. 한국아동교육학회(2015.11.14.)

36) 정용교, 백승대(2010). 사회과 행복교육의 요청과 실천. 교과교육학연구. 14(2), 335-356

가장 높았던 만큼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교육 분야에 꼭 필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기 핵심역량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과정에서 직업의 기초능력이 강조되는 바,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³⁸⁾와 관련하여 많은 준비와 다채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알려 준다. 자기 미래에 대한 설계와 체험을 가능케 하는 진로직업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꿈과 진로, 직업 등의 실천개념을 활용해 청소년의 자아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표 V-11> 참고: 자유학기제

※ **【자유학기제 개념】**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³⁹⁾

○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 에서 중학생 66.9%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나,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 저연령의 시기부터 학령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성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 전문화와 학교 내 내실화 있는 성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올바른 성문화는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바람직한 성의식 형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교육 대상을 아이들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부모대상의 성교육이 우선 이루어져 가정 내에서 자녀와의 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겠다.

6. 나의 사생활

○ 설문조사 결과

나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결과, 초등학교 5학년(2.57점), 2학년(2.54점), 중학교

39) 교육부(2015). 11-25(수) 중간보도자료.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발표자료.

2학년(2.53점) 순으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집에서의 깨끗한 물 음용 정도’ 에서는 초등학교 2학 5학년 모두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집에서의 편안함’, ‘다른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정도’,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음’,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음’,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음’ 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이 높게 나타남.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음’, ‘학교 친구들이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따돌리지 않는 정도’ 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높게 나타남.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 사용의 충분성’ 과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음’ 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서 동일 점수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 이용 정도’,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음’ 에서 중학교 2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의 평균 및 항목별 점수에서 거의 근사치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중학생만 해당하는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깨끗함’, ‘위험한 약물로부터 안전정도’ 는 평균보다 약간 높고 ‘우리가 법을 어겨 경찰서 등에 잡혀가도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함’ 은 가장 낮으며,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성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을 수 있음’ 은 평균보다 약간 낮았음.

- ‘집에서의 깨끗한 물 사용 정도’ 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92.5%, 중학교 2학년 88.9% 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집이나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 이용 정도’ 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74.5%, 중학교 2학년 75.2%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 사용의 충분성’ 에서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대부분의 87.2%, 중학교 2학년 88.7%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함.
- ‘집에서의 편안함’ 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88.8%, 중학교 2학년 85.2%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다른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정도’ 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76.9%, 중학교 2학년 78.5%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음’ 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79.9%, 중학교 2학년 78.4%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음’ 에서 상당히 많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39%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21.2%는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 함. 과반수의 중학교 2학년 53.2%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그 중 여학생의 21.5%가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
-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음’ 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81.1%, 중학교 2학년 가 85%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음’ 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생 61.9%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의 중학교 2학년 54.7%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음’ 에 대해 과반수가 훨씬 넘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66.9%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과반수의 중학교 2학년 51.4%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학교 친구들이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따돌리지 않는 정도’ 에서 과반수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55.6%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 40.7%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여학생의 20.8%가 ‘가끔 그렇다’ 고 응답.
- (중학생만 해당)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깨끗함’ 에서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79.3%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중학생만 해당) ‘위험한 약물로부터 안전정도’ 에서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82.8%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중학생만 해당) ‘우리가 법을 어겨 경찰서 등에 잡혀가도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함’ 에서 상당히 많은 중학교 2학년 39%가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
- (중학생만 해당)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에서 과반수의 중학교 2학년 47.9%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중학생만 해당) ‘성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을

수 있음’ 에서 과반수의 중학교 2학년 51%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

○ 면담조사 결과

나의 사생활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집에서의 편안함과 엄마, 아빠 모두 좋으나 간섭 받기를 싫어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 잘 안되는 것으로 응답함. 법을 어기면 법을 받아야하며 진짜 잘못된 것은 성인과 같은 수준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응답 함. 정신과는 기록에 남겨 질 것을 두려워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 함.

○ 나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집에서의 ‘물 사용’, ‘화장실 이용정도’, ‘집에서의 편안함’ 에 대해 초·중등학생 모두 ‘매우 그렇다’ 라는 의견이 높아 집에서의 기본적인 물 사용과 생리적인 욕구 해결,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른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정도’,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음’,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음’, ‘폭력(성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음’,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음’, ‘학교 친구들이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따돌리지 않는 정도’ 에서 초·중학생 모두 ‘매우 그렇다’ 가 높게 응답한 반면,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음’ 에서 여학생의 경우 ‘가끔 그렇다’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남·녀의 인식차이 있었다.

○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음’ 에 대해 초·중등학생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여학생의 20.8%가 ‘가끔 그렇다’ 고 응답하여 남·녀의 인식차이 있었다. 나의 사생활 영역은 다른 영역과 달리 남·녀의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항목들이 있었으며, 여자아이의 경우 유괴나 납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만 별도로 질문한 항목에서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깨끗함’, ‘위험한 약물로부터 안전정도’,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성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을 수 있음’ 의 내용에서 ‘매우 그렇다’ 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우리가 법을 어겨 경찰서 등에 잡혀가도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함’ 에서는 ‘가끔 그렇다’ 라는 응답을 보였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항목 중 폭력이나 따돌림, 정신과 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누구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항목에서는 절반 가까운 수준의 긍정적인 응답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면담결과 정신과상담은 기록에 남겨 질 것을 두려워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하여 학생의 사생활 보호와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아동권리협약 제16조 1항에 따르면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3·4차 보고서를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관리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서 사생활보호에 관한 사항에 더욱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이러한 아동 인권 및 권리에 근거 해 아동 청소년들이 개인의 사생활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조례와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을 인정해 주는 사회 분위기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어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어른까지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이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아동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폭력과 학대, 안전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친구를 만나 놀이하고 쉴 수 있는 권리, 오염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문화·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모든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권리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 아동을 위한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지녀야 한다. 아동의 욕구와 관점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며, 일관된 원칙과 방향 아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전체 아동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아동의 권리는 모든 아동의 관점에서 긴급 구호 성격의 보호와 위기 아동 중심의 우선 배려되어야 할 대상은 물론이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도 정책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아동 청소년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예산의 중복지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연계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겠다.

○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아동친화도시 실천을 위해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친화도시 실천을 위해 아동이 직접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문제점과 대안을 가지고 참여하고, 아동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놀이 환경에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시설개선 필요
2.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필요
3.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과 참여권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구성: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의 과정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제안이 반영되는 공식적인 참여기구 조직
4.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아동권리에 대한 조례 제정
5. 지역사회 내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 필요
6. 어린이의회 등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의결기구 조직
7.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담 기구 마련
8.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체계 구축
9. 인터넷 역기능 예방·피해 치료 및 건전한 매체환경 등의 유익한 환경 마련
10. 정신건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필요
11. 지역사회의 아동친화적이고 위생적인 환경으로서의 관리 필요
12.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대상별 맞춤 교육
13.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정책 모니터링(책무성, 영향평가, 정책 효율성 점검)
14.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홍보 및 활성화
15. 아동 정책 관련 예산 확보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교육부(2015). 11-25(수) 조건보도자료.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발표자료.
- 군산시(2014). 보건복지코디북 길라잡이: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 현황자료. 군산: 군산시청.
- 김선숙(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E Start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숙하(2014). 아동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외부공간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실, 윤진주, 김정주(2013). 영유아 안전관리. 경기: 공동체.
- 김영지(2005).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개발을 위한 아홉 가지 원칙.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환, 임영식, 김민(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젤나(2014).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논문집, 38(1), 57-66.
-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지역사회 진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주현(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 전략.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제처(20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7.21.] (<http://www.law.go.kr>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5).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서울: 보건복지부.
- 성북구청(2015).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정착 벤치마킹 교육자료(2014).

(<http://www.seonbuk.go.k>에서 인출)

윤진주, 서영미(2015). 어린이 행복도시 건립을 위한 행복 만족도 조사. 아이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2015 한국아동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전북대 진수당. 한국아동교육학회(2015.11.14.)

이미정, 장미혜, 윤덕경, 박기남, 주유선(2011).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근영, 이해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3-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경숙(2009). 아동친화적인 주거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환경 디자인지침 개발.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용교, 백승대(2010). 사회과 행복교육의 요청과 실천. 교과교육학연구. 14(2), 335-356

홍승애(201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orelli, L.(1998). Creating child-friendly environments: case studies on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ree European countries. *Childhood*, 5, 225-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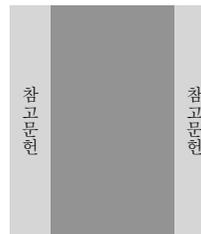
Leventhal, T., & Brooks-Gunn, J.(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309-337.

UNICEF(2004).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a framework for Action.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UNICEF(2005). Cities with children-child friendly cities in Italy,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Florence.

UNICEF(2009). *Child Friendly Cities promoted by UNICEF National Committees and Country Offices: Fact sheet, September 2009.* (<http://www.childfriendlycities.org>.에서 인출)

UNICEF(2015). What is a Child Friendly City? (<http://childfriendlycities.org/overview/what-is-a-child-friendly-city/>에서 인출)



부록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어린이용)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청소년용)
3.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초등학생용)
4.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중학생용)

부 록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어린이용)

For children

아동친화도시 - 어린이용 자가평가지

조사수행원(지도자)를 위한 안내

본 평가지는 만 8~12세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의 아동 친화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평가지의 질문들은 어린이의 경험을 기반으로 아동권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평가결과는 어린이 관련 통계와 지역사회 생활 환경을 파악하는 보충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지역사회가 평가한 자료를 보완해 줌으로써 지방 자치단체 관계당국이 정책과 활동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질문 중 '사생활'에 관한 평가부문은 매우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그룹 등에서 논의하지 말고 해당 어린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언급할 내용이나 토론에 관련된 만한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개요

일시	
설문진행자	
설문장소	
참가자 수	남자(명) 여자(명) 합계(명)

답변 설명

<input type="radio"/>	전혀 아니다 Never True
<input type="radio"/>	가끔 그렇다 Sometimes True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Mostly True

해설 각 응답에 대해 따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교란에 적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응답하기 어려움 또는 모든 어린이가 평등하게 대우받지 않음 등)

1

For children

아동친화도시 - 어린이용 자가평가지

(평가 시작)

본 평가지는 어린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어린이가 살기 좋은 곳인가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지의 질문들은 가정과 학교, 동네 등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스스로 느낀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이 답해준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부와 의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활동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질문 중 '사생활'에 관한 평가부문은 매우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그룹 등에서 논의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만의 판단으로 작성해 주세요. 각 항목별로 도표에 제시된 보기 외에 따로 쓰고 싶은 내용(예: 질문에 응답하기 어려움 또는 모든 어린이가 평등하게 대우받지 않음 등)이 있으면 비교란을 이용하되 여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써 주시면 됩니다.

답변 설명

<input type="radio"/>	전혀 아니다 Never True
<input type="radio"/>	가끔 그렇다 Sometimes True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Mostly True

모의질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 답	비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					
 2. 나는 집안일을 잘 돕는다.					
 3. 나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한다.					

2

For children

놀이와 여가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1. 우리 동네에는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등).					
 2. 나는 놀고 일 시간이 있다.					
 3.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다.					
 4.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꾸어져 있다.					
 5.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6.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제활동 등에 참여한 다.					

참여와 시민권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1.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2.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					

3

부
록

부
록

For children

참여와 시민권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3. 나는 TV 나 라디오를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4.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					

안전과 보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1. 나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2. 우리 동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3. 나는 위험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4. 우리 동네가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5.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4

For children

건강과 위생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1.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2. 우리 동네에는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3.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					
	4.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					

교육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1. 나는 학교에 다닌다.					
	2.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대우 받는다.					
	3. 나는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 등을 충분히 사용한다.					
	4.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5

부
록

부
록

For children

교육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5.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6. 나는 학교에서 환경 보호에 대해 배운다.					
	7.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8.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준다.					
	9.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있다.					
	10.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					
	11.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12.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13.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					
	14.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6

For children

교과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15.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16. 우리 학교는 제벌을 하지 않는다.					
17.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18.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나의 사생활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본 설문은 그룹별이 아닌 개인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집						
1. 우리 집에서 나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2. 나는 집이나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3. 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4.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7

부
록

For children

나의 사생활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본 설문은 그룹별이 아닌 개인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나의 안전과 보호						
5.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6.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없다.						
7.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8. 나는 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다.						
9.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10. 우리 동네(지역) 어린이들은 피부식, 광고, 극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						
우리 학교						
11.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2.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청소년용)

For adolescents

아동친화도시 - 청소년용 자가평가지

조사수행원(지도자)를 위한 안내

본 평가지는 만 13세~18세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평가지는 청소년의 경험에 기반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결과는 청소년 관련 통계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파악하는 보충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지역사회가 평가한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당국이 정책과 활동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중 '사생활'에 관한 평가부문은 매우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그룹 등에서 논의하지 말고 해당 청소년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언급할 내용이나 토론에 관련된 만한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기 원하면 여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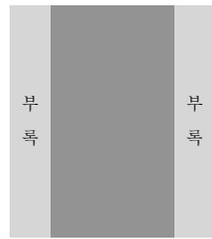
일시	
설문진행자	
설문장소	
참가자 수	남자(명) 여자(명) 합계(명)

답변 설명

<input type="radio"/>	전혀 아니다 Never True
<input type="radio"/>	가끔 그렇다 Sometimes True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Mostly True

해설 각 응답에 대한 중요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비교란에 추가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응답자는 해당 질문에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음" 등)

1



For adolescents

아동친화도시 - 청소년용 자가평가지

(평가 시작)

본 평가지는 청소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청소년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한 곳인가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지의 질문들은 가정과 학교, 동네 등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스스로 느낀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이 답해준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부와 의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활동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질문 중 '사생활'에 관한 평가부문은 매우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그룹 등에서 논의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만의 판단으로 작성해 주세요. 각 항목별로 도표에 제시된 보기 외에 따로 쓰고 싶은 내용(예: 질문에 응답하기 어려움 또는 모든 청소년이 평등하게 대우받지 않음 등)이 있으면 비교란을 이용하되 여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써 주시면 됩니다.

답변 설명

<input type="radio"/>	전혀 아니다 Never True
<input type="radio"/>	가끔 그렇다 Sometimes True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Mostly True

모의질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 나는 사탕을 좋아한다.					
2. 나는 집안일을 잘 돕는다.					
3. 나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한다.					

2

For adolescents

놀이와 여가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1. 우리 동네에는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운동장이나 놀이를 위한 공간 등).					
	2. 나는 놀고 싶 시간이 있다.					
	3. 우리 동네 놀이하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다.					
	4. 우리 동네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5.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6.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활동 등에 참여한다.					

참여와 시민권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1.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For adolescents

참여와 시민권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2. 우리 지역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 때 우리의 의견을 묻는다.					
	3. 나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4.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					

안전과 보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1. 나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함을 느낀다.					
	2. 우리 동네는 건너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3. 나는 위험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4. 우리 동네에 흡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5.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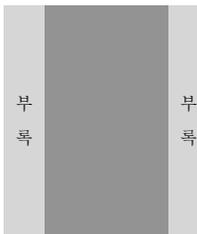
나의 건강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1.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2. 우리 동네에는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					
	3.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					
	4.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하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					

교육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1. 나는 학교에 다닌다.					
	2. 학교에서 남자나 여자가 똑같이 대우 받는다.					
	3. 나는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 등을 충분히 사용한다.					

교육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4.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5.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6.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운다.					
	7.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8. 학교에서 나는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9.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준다.					
	10.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는 자유시간이 있다.					
	11.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다.					
	12.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13.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For adolescents

교육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14.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					
15.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16.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17.우리 학교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					
18.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19.우리 학교와 동네에 청소년의 경력 직업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20.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For adolescents

나의 사생활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본 설문은 그룹별이 아닌 개인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집						
WATER	1.우리 집에서 나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2.나는 집이나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3.나는 집에서 몸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4.우리 집 공기는 오염되지 않았다.					
	5.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나의 안전과 보호						
	6.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7.나는 마약이나 약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8.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없다.					
	9.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10.나는 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하거나 확대받지 않는다.					

3.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초등학생용)

For adolesc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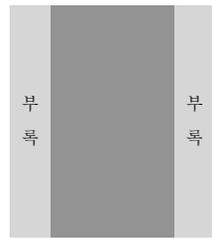
나의 사생활 본 설문은 그룹별이 아닌 개인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비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 할 수 있는 어른이 있 다.					
	12.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 에 여부와 상관 없이 존중 받는다.					
	13. 우리가 법률 어거 경 찰서 등에 잡혀가면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					
나의 건강						
	14. 나는 필요할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5. 나는 에이즈 및 안전 한 성관계에 관해 전 문가로부터 교육받을 수 있다.					
우리 학교						
	16. 우리 학교 친구들 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 를 시키지 않는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아동친화도시- 『초등학생용 자가평가지』
<p>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p> <p>군산시에서는 어린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 가 평가하기 위해 초등학교 2,5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p> <p>평가지의 질문들은 가정과 학교, 동네 등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과 관련 된 내용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은 향후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p> <p>본 설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 되지 않으며, 어린이들이 대답한 내용에 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p> <p>1쪽부터 7쪽까지의 질문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답변 칸(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세요!</p> <p>※ 질문 중 '사생활' 에 관한 평가부문은 매우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친구 들과 논의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만의 판단으로 작성해 주세요.</p> <p>※ 각 항목별로 표에 제시된 보기 외에 따로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비고 란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써 주시면 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년 10월 군산시청 주민복지국 어린이행복과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450-7371</p>

- 1 -



일반적 특성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의 학년은?(_____초등학교_____학년)

3. 거주하는 동네는?

- ① 개정동, 사정동 ② 경암동 ③ 구암동, 내룡동 ④ 나운1동 ⑤ 나운2동
 ⑥ 나운3동, 개사동, 미룡동, 신관동 ⑦ 내초동, 산북동, 신관동
 ⑧ 비룡도동, 소룡동, 오식도동 ⑨ 미장동, 수송동, 지곡동
 ⑩ 문화동, 송풍동, 신장동 ⑪ 금광동, 삼학동, 오룡동
 ⑫ 개복동, 둔율동, 명산동, 신양동, 송창동, 신창동, 영화동, 월명동,
 장미동, 중앙로1가, 창성동 ⑬ 경장동, 조촌동
 ⑭ 금암동, 신영동, 영동, 죽성동, 중동, 중앙로2가, 평화동
 ⑮ 금동, 신흥동, 해방동 ⑯ 대명동, 동흥남동, 미원동, 시흥남동, 장재동, 중앙로3가
 ⑰ 옥구읍 ⑱ 개정면 ⑲ 나포면 ⑳ 대야면 ㉑ 서수면 ㉒ 성산면 ㉓ 옥도면
 ㉔ 옥산면 ㉕ 옥서면 ㉖ 임피면 ㉗ 회현면

4.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예를 들어, 부모, 조부모, 친척 등)과의 관계는?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5. 본인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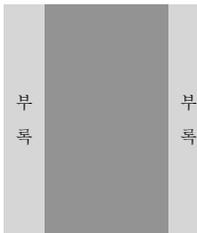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6.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7.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나쁜 동네라고 생각한다. ② 나쁜 동네라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⑤ 매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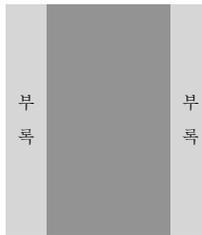
For children

놀이와 여가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	◐	◑		
 1. 우리 동네에는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등).					
 2. 나는 놀고 싶 시간 이 있다.					
 3. 우리 동네 놀이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					
 4.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5.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6.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					

참여와 시민권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	◐	◑		
 1.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 시키는 일에 기여 하고 있다.					
 2.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					

For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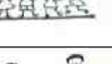
참여와 시민권		전혀	가끔	매우	무응답	비고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3. 나는 TV나 인터넷, 신문 등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안전과 보호		전혀	가끔	매우	무응답	비고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1.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우리 동네는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나는 위험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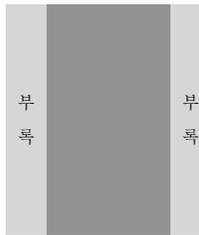


For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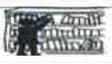
건강과 위생		전혀	가끔	매우	무응답	비고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1.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우리 동네에는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염수가 흘러 다니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나 악취가 없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육		전혀	가끔	매우	무응답	비고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1. 나는 학교에 다닌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대우 받는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나는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 등을 충분히 사용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For children

비고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답	비고
 5.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6. 나는 학교에서 환경 보호에 대해 배운다.					
 7.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해 배운 적이 있다.					
 8.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9.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있다.					
 10.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					
 11.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12.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터놓고 얘기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13.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 받는다.					
 14.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행동할 때움을 받는다.					



For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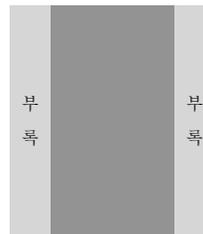
교육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답	비고
 15.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16. 우리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17.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내 의견을 전할 수 있다.					
 18.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나의 사생활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답	비고
우리집					
 1. 우리 집에서 나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2. 나는 집이나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3. 나는 집에서 물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4.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4.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자가 평가지(중학생용)

나의 사생활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	◐	◑		
나의 안전과 보호					
	5.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6.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없다.				
	7. 나는 유괴나 납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8. 나는 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는다.				
	9. 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해 가족 외에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10. 우리 동네 어린이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				
우리 학교					
	11.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중학생용 자가평가지』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산시에서는 청소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평가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지의 질문들은 가정과 학교, 동네 등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은 향후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 되지 않으며, 어린이들이 대답한 내용에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1쪽부터 8쪽까지의 질문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답변 칸(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 질문 중 '사생활'에 관한 평가부분은 매우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친구들과 논의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만의 판단으로 작성해 주세요.

※ 각 항목별로 표에 제시된 보기 외에 따로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비고란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써 주시면 됩니다.

2015년 10월
군산시청 주민복지국 어린이행복과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450-7371

일반적 특성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의 학년은?(_____ 중학교 _____ 학년)

3. 거주하는 동네는?

- ① 개령동, 사정동 ② 경암동 ③ 구암동, 내흥동 ④ 나운1동 ⑤ 나운2동
 ⑥ 나운3동, 개사동, 미룡동, 신관동 ⑦ 내조동, 산북동, 신관동
 ⑧ 비룡도동, 소룡동, 오식도동 ⑨ 미장동, 수송동, 지곡동
 ⑩ 문화동, 송풍동, 신풍동 ⑪ 금광동, 삼학동, 오룡동
 ⑫ 개북동, 둔율동, 명산동, 선양동, 송창동, 신창동, 영화동, 월명동,
 장미동, 중앙로1가, 창성동 ⑬ 경장동, 조촌동
 ⑭ 금암동, 신영동, 영동, 죽성동, 중동, 중앙로2가, 평화동
 ⑮ 금동, 신흥동, 해방동 ⑯ 대명동, 동홍남동, 미원동, 서홍남동, 장제동, 중앙로3가
 ⑰ 옥구읍 ⑱ 개정면 ⑲ 나포면 ⑳ 대야면 ㉑ 서수면 ㉒ 성산면 ㉓ 옥도면
 ㉔ 옥산면 ㉕ 옥서면 ㉖ 임피면 ㉗ 회현면

4. 본인을 돌봐주는 주변의 성인(예를 들어, 부모, 조부모, 친척 등)과의 관계는?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5. 본인과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는?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6.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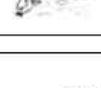
7.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나쁜 동네라고 생각한다. ② 나쁜 동네라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⑤ 매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한다.

부
록

- 2 -

For children

놀이와 여가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	◐	◑		
 1. 우리 동네에는 내가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놀이터나 운동장 등).					
 2. 나는 놀고 쉴 시간이 있다.					
 3. 우리 동네 놀이하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다.					
 4. 우리 동네에는 숲과 나무 등의 자연환경이 잘 가꿔져 있다.					
 5. 나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구경할 수 있다.					
 6. 나는 학교수업과 별개로 방과 후 프로그램,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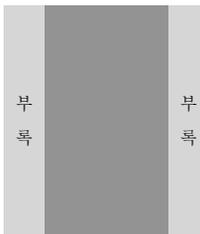
참여와 시민권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	◐	◑		
 1.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 시키는 일에 기여 하고 있다.					
 2. 우리 지역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추진 할 때 우리의 의견을 듣는다.					

- 3 -

For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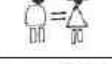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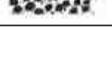
참여와 시민권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나는 TV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4. 나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 있다.					

안전과 보호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 나는 버스나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2. 우리 동네는 전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환경이다.					
	3. 나는 위험을 느낄 때, 누구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안다.					
	4. 우리 동네에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5. 나는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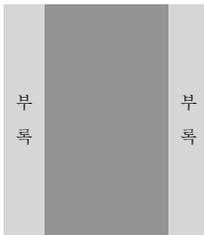
For children

나의 건강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진료 받을 병원이 있다.					
	2. 우리 동네에는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3.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마구 방치돼 있지 않으며, 더러운 오물이 흘러 다니지 않는다.					
	4. 우리 동네 공기는 상쾌한 편이며, 매연이 나 마취가 없다.					

교육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 나는 학교에 다닌다.					
	2.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대우 받는다.					
	3. 나는 학교수업에 필요한 교과서와 공책, 학용품 등을 충분히 사용한다.					
	4.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들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					

For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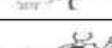
비고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5. 나는 학교에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 배운다.					
 6. 나는 학교에서 환경 보호에 대해 배운다.					
 7. 나는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8. 학교에서 나는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9. 학교에서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10.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볼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있다.					
 11. 우리 학교에는 마실 물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다.					
 12. 우리 학교 화장실은 안전하고 깨끗하다.					
 13. 우리 학교에는 내가 고민을 쉽게 털고 얘기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For children

비고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14.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 피부색, 국적,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똑같이 존중받는다.					
 15. 우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충분한 대우를 받는다.					
 16. 우리 학교 또는 동네에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17. 우리 학교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18. 나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19. 우리 학교와 동네에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20. 우리 학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닐 수 있다.					

For children

나의 사생활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	◐	◑		
우리집					
 1. 우리 집에서 나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2. 나는 집이나 집 근처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다.					
 3. 나는 집에서 물이나 손을 씻을 때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4. 우리 집은 환경적으로 깨끗하다.					
 5. 나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나의 안전과 보호					
 6. 나는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					
 7. 나는 위험한 약물로부터 안전하다.					
 8. 우리 동네에는 나를 위협하는 폭력 집단이 없다.					
 9. 나는 유괴나 납치를 예방할 수 걱정하지 않는다.					
 10. 나는 폭력(성폭력 포함)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는다.					

For children

나의 사생활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 응 답	비고
	○	◐	◑		
 11. 나는 학대나 폭력에 대해 가족 외에 상담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12. 우리 동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피부색, 종교, 국적, 문화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 받는다.					
 13. 우리가 받을 어거 경찰서 등에 잡히기도 성인과 다른 별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나의 건강					
 14. 나는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5. 나는 상교육 및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 받을 수 있다.					
우리학교					
 16.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서로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지 않는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보고서

군산시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평가

인 쇄 2015년 12월 9일

발 행 2015년 12월 9일

발행처 군산시 어린이행복과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인 윤진주

◦ 본 연구는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로 2015년 군산시 위탁 연구 용역 과제로 수행된 것입니다.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군산시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